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지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소집단 부모교육에 참여한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의
영유아기 자녀양육 어려움 및 변화과정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유아교육전공)
방 혜 경

소집단 부모교육에 참여한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의
영유아기 자녀양육 어려움 및 변화과정

배지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유아교육전공)
방혜경


인 준 서


방혜경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장 영 희 

심사위원 이 문 옥 

심사위원 권 정 윤 

심사위원 이 승 연 

심사위원 배 지 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집단 부모교육 과정에서 부모교육자 역할과 아버지들의 변화양상이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가 영유아기 자녀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둘째,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 대상 소집단 부모교육에서 부모교육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셋째, 소집단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의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소집단 부모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자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2012년 4월 30일부터 2012년 9월 16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 7명을 대상으로 소집단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소집단 부모교육은 P시에 소재한 교회의 심리 상담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아버지들의 베트남 문화 이해와 자녀양육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토의하고 시연하는 과정이 부모교육에 포함되었다. 연구기간 중에 총 20회의 부모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부모교육은 1회기 당 90~1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한 면담은 4차로 나뉘어 실시하였다. 1차 면담은 2012년 4월

30일부터 2012년 5월 5일까지 소집단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원하는 아버지 1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 형식으로 총 15회 실시하였다. 2차 면담은 2012년 5월 6일부터 2012년 8월 19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아버지 10명 중 7명을 대상으로 총 56회의 개별면담이 이루어졌다. 3차 면담은 2012년 8월 26일부터 2012년 9월 2일 사이에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총 3회의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4차 면담은 2012년 9월 9일부터 2012년 9월 16일까지 연구 참여자 부부를 대상으로 총 2회의 집단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 참여자 네 가정이 2012년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캠프에 참여하였는데, 이 과정을 본 연구자가 함께 하면서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에 수집된 자료는 20회기의 부모교육 자료와 76회의 심층면담 자료, 참여관찰 자료, 현장노트, 약기노트, 저널 등의 자료로 범주화하고 의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자녀양육 과정에서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아내를 대신하여 아버지들은 어머니가 주로 하고 있는 역할까지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해 부모 역할에 자신이 없거나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아내가 지속적으로 친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어린 자녀들의 기본적인 요구에도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베트남 이민자가정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문화 차이와 양육 지식의 차이가 존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경제적인 어려움은 베트남 이민자가정을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들은 안정적이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될 자녀의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상

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집단 부모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부모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모교육자는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이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주제가 포함되도록 부모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부모교육자는 아버지들에게 소외되고 억압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과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가족들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아버지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부모교육자는 아버지들에게 부모교육 수업시간에 베트남 문화에 대한 이해와 영유아기 자녀양육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의 제공자 역할을 하였다. 부모교육자는 또한 아버지들과의 감정교류를 통해 정서적인 공감을 함으로써 소통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아버지들이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 실행해보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버지들의 양육태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자는 아버지들에게 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족한 부분은 반복하여 지원함으로써 아버지 역할에 자신감을 갖도록 정서적인 지원을 하였다.

셋째, 소집단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전에 아버지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과 분노로 인하여 자녀양육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으며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 그러나, 소집단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양육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변화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에게 자녀양육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아내의 한국어 습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남편과 아내 간의 갈등이 완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소집단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자신의 가정에 맞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활용 방법을 알게 되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7
II. 이론적 배경	9
1.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관련 정책	9
1)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증가	9
2)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12
2. 베트남 결혼이민자가정	16
1) 문화적 배경	16
2) 언어환경의 특성	18
3) 자녀양육 방법	20
3. 소집단 부모교육	24
1) 소집단 부모교육의 필요성	24
2) 소집단 부모교육의 효과	27
III. 연구 방법	31
1. 연구 참여자	31
2. 연구 절차	44
1) 기초요구조사	44
2) 예비연구	46

3) 본 연구	49
3. 자료 수집	61
4. 자료 분석	64
5.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방안	67
IV. 연구 결과 및 해석	69
1.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가 겪는 어려움	69
1) 과중한 책임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한 어려움	69
2)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어려움	76
3) 부부간의 이해 부재로 인한 어려움	83
4) 자녀양육과 관련된 경제적인 어려움	94
2. 소집단 부모교육에서 나타난 부모교육자의 역할	98
1)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내용 구성하기	98
2) 소외되고 억압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하기	104
3) 베트남 이민자가정에게 필요한 양육 지식 제공하기	108
4) 상호 감정교류를 통해 정서적으로 공감하기	111
5) 개별 가정에 적합한 교육 제공과 역할 수행 돕기	113
6) 반복적인 격려와 정서적 지원하기	115
3. 소집단 부모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과 다문화가정의 변화 양상	119
1) 자녀양육에의 능동적인 참여	119
2) 아내에 대한 이해와 지원	123
3)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부간의 갈등 완화	130
4) 자녀양육비 절감 방안 모색	142

V. 논의 및 결론 147

1. 논의 147

2. 결론 및 제언 163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차

<표 1>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국가별 혼인 현황	11
<표 2> 2013년 제 2차 다문화가족 정책의 주요 내용	15
<표 3>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32
<표 4> 예비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47
<표 5> 소집단 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	52
<표 6> 개별면담 과정 및 내용	57
<표 7> 집단면담 과정 및 내용	59
<표 8> 수집된 자료	63
<표 9> 범주 목록	6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에 들어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은 세계를 국경 없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국제결혼과 국내 외국인 거주자 증가로 인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장영희, 김희진, 엄정애, 권정윤, 2007).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의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배우자의 한 쪽이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문화권 출신으로 이루어진 국제결혼 가족인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게 되었다.

안전행정부(2013)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전체 주민등록인구(50,948,272명)의 2.8%에 해당하는 1,446,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36,054명(2.6%)이 더 늘어났다.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라 국제결혼도 지난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국제결혼은 2005년에 최고조(43,121건)에 이르렀고 이후 약간 감소하여 2011년에는 29,744건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은 우리나라의 전체 혼인(326,104건) 중 10%이상을 차지하는데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결혼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남성과 중국여성과의 결혼이 우위를 차지해 왔다. 그러다가 2011년에는 베트남(34.3%), 중국(33.9%), 필리핀(9.3%)의 순으로 베트남 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1). 한국남성과 동남아시아 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결혼이주 여성들의 나라보다 높은 것과 일부 종교의 선교를 위한 합동결혼(전만길, 2005), 국제결혼 중개업체 수의 증가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일반적으로 한국계 중국여성, 일본여성 등 동북아시아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에게는 혈통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자녀양육과 교육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시아 나라들의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김미현, 2011).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어머니와의 충분한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어머니가 보다 소극적으로 양육에 임하게 되어 아버지가 자녀양육 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 많아지게 된다(이은하, 2010).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아동의 인지 능력, 학업 성취, 사회적 유능감, 정서적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Hart, Dewolf & Burts, 1992). 유아기에 부모와의 긍정적인 경험은 학령기나 청소년기 이후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기이다(Rutter, 1987). 아버지들은 어머니와 다르게 활동적이고 활발한 신체적인 양육행동으로 아동의 성역할 형성, 인지발달의 증진,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도움을 주기에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아버지의 자녀양육의 참여가 더욱 강조된다(Dembo & Lawritzen, 1985).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자녀양육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많은 역할을 아버지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외국인 어머니들이 우리 문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완화하여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진숙, 2007).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은 다른 문화권에 와서 적응 못하는 아내와 자기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는 자녀와 가족들에게 각기 다른 문화의 전달자 역할과 서로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임희정, 2012). 다문화가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아버지가 가정에서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부부관계의 질이 높아졌고 부모들 스스로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는 연구결과(이정순, 2003)는 다문화가정에서의 아버지 양육참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이해가 우선이며, 낮은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에게 남편의 양육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언어적·

문화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문무경, 2010), 아버지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미숙하여 자녀양육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느끼고 있다(정수경, 2011). 다문화가정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역할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더욱 많은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김혜경, 박수강, 서지혜, 성지영, 신미숙, 조희경, 1997). 이러한 현실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은 자녀양육 과정에서 일반 가정의 부모들보다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자녀들 또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한현이, 2011). 다문화가정에서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어머니 혼자 양육을 감당하게 하고 스스로 적응하여 나가기를 바랄 경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자녀에 대한 강압적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신숙재, 1997).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어머니가 자녀양육 효능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1992년 이후부터 시작되어 200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남성과 베트남 여성들과의 결혼은 다른 나라 결혼 이민자가정보다 늦게 시작되어서 가족구성원 중 미취학 아동이 많은 편에 속하며(Thanh, 2005), 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우리나라 일반가정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56.8%인데 비하여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자녀는 27.7%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설동훈 외, 2006). 미취학 아동의 교육과 양육을 언어와 문화를 적응하기에 힘든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취학 아동 중에서 아이 혼자서 지내는 경우가 38.1%이고, 혼자 지내는 아이들 중 70.9%가 베트남 여성가정의 아이들이다.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은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이 늦은 경우가 많다. 또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대인관계에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유아를 보육시설로 보내지 않고 집에 혼자 있게 둔다면 자녀는 정

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박미경, 2007; 박영아, 2010).

베트남 출신 어머니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어머니들에 비하여 한국어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베트남 이민자가정 유아들의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어휘력이 부족하여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김갑성, 2008; 오성배, 2005). 자녀교육의 역할을 거의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베트남 이민자여성 어머니들이 일반 가정의 어머니들처럼 자녀 교육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김금자, 2009), 이러한 어려움은 어머니 자신에게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로 확산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은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조미영, 배지희 2011).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편이나 시부모 등 가족들의 조언에 의존하게 된다(한경님, 2012). 다문화가정에서 나타나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조선족과 일본의 어머니들보다 베트남의 어머니가 자녀와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또한 자녀의 학습을 돕는 비율은 필리핀, 중국, 베트남 순으로 보고되어 베트남 어머니들의 학습 지원이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다(이진숙, 2007). 중국 조선족여성과 한국남성과의 결혼이 부부 모두 초혼의 비율이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재혼의 비율이 높은 반면, 베트남 이민자여성의 가정에서 부부가 초혼인 비율이 80% 이상으로 일본 이민자가정 부부 다음으로 높다(정기선, 2007). 다른 이민자가정보다 초혼비율이 높은 베트남 이민자가정에서는 자녀 출산과 양육의 경험이 없는 아내를 위해 남편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Belsky와 Vondra(1989)에 의하면 부부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때 부모양육의 효능감이 증진되어 부모역할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남편이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부부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

을 나눌 때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이, 2007). 국제 결혼을 하는 남성들은 만혼인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 아내는 결혼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하기도 전에 출산을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므로 남편의 도움은 매우 큰 힘이 된다. 베트남여성 결혼이민자 집단에서 남편의 도움과 협력이 아동의 자존감 사회영역, 자존감 신체영역과 연관된다는 최형성(2011)의 연구결과는 한국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서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베트남여성 이민자가정 어머니의 언어적 어려움과 자녀의 학습지원 관련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문화가정에서의 자녀양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한국에서의 적응과정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오옥선과 김성봉(2012)은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경험하는 자녀양육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노미향(2009)은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의 부모역할과 실태 및 자녀양육 경험의 어려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김한나(2011)는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김미숙(2009)은 낮은 학력과 연령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내국인 어머니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을 밝혔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정에서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해소하기 위해 개선과제를 제안한 연구(곽정선, 2011)와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위하여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모역할, 부모역할 효능감, 문화적응, 부모역할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를 알아본 연구(이은경, 2013)가 이루어졌다. 전홍주, 배소영, 곽금주(2008)는 필리핀 어머니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를 조망하였고, 조미영(2011)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멘토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머니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이주하여 온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여성 결혼이민자

들의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다른 언어와 문화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보고(오성배, 2005)하였고 결혼 이민자는 알고 있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적고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까워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인 남편의 지지를 강조하였다(김민경, 김정은, 2009; 김현수, 최연실, 2012). 결혼 이민자 여성의 문화 적응과 다문화가정 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며, 아버지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이윤정, 강기정, 강복정, 2010). 그러나, 아내의 한국생활 적응과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고 지원하는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육 지원과 교육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정수경(2011)과 한현이(2011)는 일반가정의 아버지보다 다문화가정 아버지가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므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버지 역할 수행을 돕기 위해서 부모역할 교육과 멘토 프로그램이 필요하며(김낙홍, 장소정, 2012; 이지원, 2011),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다양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김미희, 2012; 조정숙, 2012; 공민정, 2011).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아버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경험하는 양육 관련 어려움과 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 선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아버지를 대상으로 실제로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여러 문화권의 다문화가정들을 포함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특정 문화권의 다문화가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다문화가정은 국적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문화권이 포함된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지에 대한 것을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베트남 결혼 이민자가정이 증가하고 있지만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아버지가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연구(임희정, 2012)가 이루어졌을 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들의 역할을 지원

하는 과정이 포함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베트남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소집단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모교육자의 역할이 무엇이며, 부모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변화양상이 어떠한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가 영유아기 자녀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2.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 대상 소집단 부모교육에서 부모교육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3. 소집단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의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관련 정책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가정을 흔히 볼 수 있고 해가 갈수록 인구 구성에 있어서도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증가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적별 결혼 현황과 지원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증가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도 빠른 속도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 국제결혼은 한국 여성과 미군, 일본 남성과의 결혼이 대다수였으나(이혜경, 2005) 그 이후에는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많아질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1990년에는 4,710건 이었던 국제결혼이 2000년 한해만 11,605건으로 늘었고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은 1990년(619건)에 비해 11배 이상(6,945건)으로 폭증했다(통계청, 2011). 이러한 양상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 같은 민족과의 결혼이 아닌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한국 사회 내에서도 국제결혼에 대한 이전과는 다른 관점의 변화로 볼 수 있다.

201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과의 결혼은 2000년에 11,605건으로 총 전체결혼 332,090건의 3.5%를 차지하였고, 2005년에는 42,356건으로 총 혼인대비 13.5%로 3.6배 증가하였다. 2011년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전체 결혼 건수(29,792건)중 대부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결혼으로 74.8%(22,265건)해당

되며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과의 결혼은 25.2%(7,497건)로, 외국 여성과의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을 기점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원인은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많은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건수, 설동훈, 2006).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의 결혼 건수가 10%이상을 계속 유지하다가 2011년 9.0%로 최근 결혼 관련 사전 서류제출 요건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법무부, 2011).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보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인 원인인 남아 선호사상의 성비 불균형으로 남성의 수요가 급증하는데 비해 전문직 여성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독신의 증가로 인하여 결혼적령기의 남성들이 배우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갑성, 2006;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 2006). 대다수 결혼적령기의 한국 여성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신의 결혼조건을 만족시켜 주어야 결혼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이해경, 2005; 정기선, 2008). 그러나 한국여성들의 결혼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성들이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껴 대안으로 외국인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김현재, 2007; Thanh, 2005). 이와 같은 일은 정보화,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는 사회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인해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이주가 많아지면서 동남아시아 주변국 여성이 결혼을 통한 한국 이주를 함으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다(김현재, 2007). 국제결혼업체들이 증가하여 국제결혼을 추진하려는 원인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이해경, 2005).

그러나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었고 결혼이민 여성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고충, 차별대우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설동훈 외, 2005). 이와 같이 세계화

와 개방화의 물결로 국제결혼의 건수도 증가하였고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혼인 현황을 나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가별 혼인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 구성비
베트남	*134	474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9,623	7,636	34.3
중국	6,977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11,364	9,623	7,549	33.9
필리핀	502	838	928	947	980	1,174	1,497	1,857	1,643	1,906	2,072	9.3
일본	701	690	844	809	883	1,045	1,206	1,162	1,140	1,193	1,124	5.0
캄보디아	2	2	19	72	157	394	1,804	659	851	1,205	961	4.3
미국	262	267	322	341	285	331	376	344	416	428	507	2.3
태국	182	327	345	324	266	271	524	633	496	438	354	1.6
몽골	118	194	320	504	561	594	745	521	386	326	266	1.2
우즈벡	66	183	328	247	332	314	351	492	365	317	324	1.5
네팔	2	21	22	32	16	33	82	159	316	202	211	0.9
러시아	155	236	297	315	234	203	152	110	139	119	125	0.6
기타	583	443	577	564	601	669	749	741	777	894	1,136	5.1
총계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22,265	100

*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을 의미함.

출처 : 통계청 (2011). 2011년 혼인통계 결과.

위의 표에서 2011년도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 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7,637건(34.3%), 중국 7,549건(33.9%), 필리핀 2,072건(9.3%), 일본 1,124건(5.0%), 캄보디아 961건(4.3%)의 순으로 나타난다. 혼인통계 결과에서 본 것처럼, 중국 여성과의 결혼이 계속하여 증가하다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 증가율은 2002년(474건)부터 2006년(1,128건)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011년에는 2,072건으로 국제

결혼 중에서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의 여성 결혼 이민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결혼하였으며, 초기에는 중국(조선족 포함)여성들이 가장 많았으나 점차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여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2006년부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수립되면서 2007년에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시행이 되고 같은 해에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는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다(2008. 법무부).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을 수립하였고, 전국에 걸쳐서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대하였다. 이에 2006년 21개소로 시작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에는 80개소, 그리고 2011년에는 212개소로 증가되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가족 영역 간 연계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였다(2008, 보건복지가족부).

단계별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인 ‘입국 전 결혼 준비기’에는 국제결혼 과정에서 결혼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의식 향상 교육과 결혼이민예정자를 위한 현지사전교육을 제공하는 단계이다.

2단계에서는 크게 3가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첫째, 입국 초기에는 가족관계

형성기로 보고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취업 및 교육지원·가족상담·한국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찾아가는 서비스인 방문교육, 한국 디지털 대학교의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EBS방송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여성 긴급전화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생활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충에 대한 상담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다누리콜 센터를 9개의 언어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이혼 가족을 포함하여 개인·가족상담·다문화가정의 가족구성원 역할 및 가족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해향상가족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단계에서는 자녀양육 및 정착기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교육 지원을 위해 부모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발달지원을 위해 한글교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에서 언어교실 사회증진 프로그램과 언어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이중 언어 사용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역량 강화기인 4단계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취업 및 취업연계를 통한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있다. 동시에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지역교육청을 연계하여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가별 결혼이민자의 자조모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의 인식개선과 홍보를 위해 다문화가족 모니터링 단을 운영하고 포털사이트인 ‘다누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하여 콘텐츠 개발 및 보급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서비스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의 욕구를 전체적으로 포괄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김유경, 2011)고 하였다.

한편 최근에 들어와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2013년 4월 제 7차 다문화가족 정책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 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2013년도에는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회 초기적응 지원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81개 과제를 확대 추진하였다. 이러한 시행 계획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주요 사업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 2013년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의 주요 내용

주제	사업 내용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 결혼제도, 문화 및 교육강화: 현지사전 교육,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 •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다언어, 다문화 프로그램 방송,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에게 다국어로 건강검진 정보제공, 언어 발달 지원서비스 확대 실시(초등이하 유아), 이중 언어교육 확산 • 다문화자녀의 한국어 능력 향상: 한국어교육 과정(KSL)운영 • 한국생활 초기적응지원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500명)지원 • 다문화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다문화위기 청소년 상담 및 자립 지원강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 중개업체 점검강화, 국제결혼 사증검 사강화: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확보 • 결혼 이민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 다누리콜센터 운영: 통번역 서비스 • 콜센터 설치운영: 국제결혼 피해상담 지원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외국인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사회적 기업지원, 지역 일자리 사업지원 • 직업교육 훈련 지원 • 결혼이주여성 대상 지역사회 지도사, 통·번역 인력 양성 등 역량강화개발 • 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 자조모임 활성화: 결혼 이민자의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관련 TV프로그램제작,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실시 •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 다문화교육이해 관련 연수과정 개설 • 다문화가족 자녀의 입영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3).

이러한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은 결혼 이민자의 직업 교육확대와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파견 등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은 다문화가족이 실질적으로 한국어 교육 외에는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경, 2010).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의 부부간에 생기는 문화적 이질감과 자녀양육,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문성은과 방은령(2012)은 다문화가족에게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결된 직업교육이 활성화 되지 않고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단기간 실시될 경우에는 실효가 없으므로 다문화가족들이 한국 사회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제기된다.

2. 베트남 결혼이민자가정

최근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문화적 배경과 언어 환경의 특징, 그리고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자녀양육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배경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자주 받은 나라로 단결력이 강하고 보수적이며 배타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부썬 투이, 2009). 외세에 의한 잦은 침략으로 폐쇄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사회는 주로 유교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중국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유교 문화권에 영향을 받은 북부 베트남에 있어서 사회관계의 기본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족이다. 북부 베트남의 가족 구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교적인 전통에 뿌리를 둔 가부장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나, 그 성격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여성이 대외적인 일을 하는 양태성을 갖고 있다(심상준, 2009). 이와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베트남 여성들의 가치관의 척도는 개인이 아닌 가족공동체를 중요시하며 가족의 가치관 중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 부부간의 애정을 높이 평가한다(김기태, 2002).

한국과 베트남은 유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베트남은 여성 존중을 기준으로 여성과 어머니는 땅과 벼의 의미인 삶의 근원으로 존중되었다. 여성의 존중은 성인의 경지로 받아들여 ‘다오’는 도(道)이며 ‘머우’는 모(母)의 의미인 ‘다오 머우’라는 모신(母神)의 존재로 여성을 높여지는 경우도 있다(부썬 투이, 2009). 이러한 경향은 역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중국이 베트남을 지배했을 때 ‘증짜’, ‘쫘니’ 두 자매가 반란을 주도하여 독립 국가를 세운 것도 여성이었다(최병욱, 2006). 또한 베트남은 중국, 프랑스, 일본, 캄보디아, 미국 등 많은 나라들과 전쟁이 잦았다. 매번 전쟁을 치를 때마다 여성도 동등하게 전쟁에 참여를 하였다. 베트남의 환경은 여성들이 자연에서 산물을 채취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어서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수확량을 얻고 농사일의 대부분도 남성들이 모두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여성들이 담당하며 생활을 책임지게 되었다(심상준, 2009). 이와 같은 환경에 놓였던 베트남 여성들은 가정 일과 자녀양육,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일까지 감당함으로써 베트남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우리나라 여성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 베트남 이민자 여성은 베트남과는 다르게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자녀양육에만 국한되도록 시모나 시댁이 관여하는 것을 자신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7). 또한 한국 남편도 아내가 가사와 자녀양육을 잘 수행하였을 때 결혼 적응도가 높게 나왔으나 아내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친교모임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는 양면성이 있기도 하였다(장운정, 박정윤, 2009).

재산상속에 있어서 북부 베트남에 있어서는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장남을 우대하는 불균등 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남부 베트남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북부 베트남과 달리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분배를 하고, 장남이 아닌 막내아들(末子)에게 상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의 노후봉양도 막내아들만이 아니라 딸도 책임지게 하였고, 제사 의무도 장남에게만 아니라 차남이나, 장녀에게도 주어졌다(하순, 2000). 베트남 이민자 여성이 한국에 와서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정집에 생활비를 보내는 일은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베트남 효문화의 자연스런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이민자 여성의 거의 대부분은 남부 베트남의 농촌 지역 출신으로(김현재, 2007), 대부분 중매로 결혼이 이루어졌고, 신랑 측으로부터 관습대로 ‘납따이(納說)’인 신부대 지불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일은 베트남의 전통문화이며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바치는 예물의 개념이다. 또한 신부를 데려오기 전에 결혼세를 촌락에 바치는 절차도 있다(심상준, 2009). 우리나라와 다른 베트남의 문화적 배경의 특징은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부부와 가족들이 서로 상대방의 다른 문화와 입장을 이해하고 맞추어 나가는 문화 소통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 언어환경의 특징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이민자 여성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댁과의 언어 소통을 하기 위한 것’(Hoang, 2010)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베트남 다문화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간의 언어소통 일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언어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베트남 이민자 여성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베트남 국가의 공식적인 언어인 베트남어는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낀

(Kinh: 京)족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의 3가지 지역 방언이 있다. 비엣-무엣어군에 속하는 베트남어는 비엣어, 므엣어, 쯏어, 토어 4가지 외에도 50개 종족의 7개 어군이 있다(부선 투이, 2000). 일반적으로 베트남어는 6개의 성조를 가진 성조어(聲調語)로서 문법이 쉬운 반면에 발음하기가 힘들고 발음의 장단, 고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이민자 여성이 한국어를 습득할 때 베트남어를 배우려는 한국인들이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언어습득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베트남 이민자 여성들이 힘들어 하는 발음은 ‘ㄹ’자음이다. 베트남어는 단어의 끝에 ‘ㄹ’자음이 오지 않아서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인들은 정확한 발음으로 표현하기를 힘들어 한다. 베트남어는 초성 ‘ㄴ’을 ‘ㄹ’로 발음하는데 ‘많이’를 ‘마리’로 발음하고 ‘할머니’를 ‘할머리’라고 한다. 그리고 끝자음에 ‘ㄹ’을 ‘ㄴ’으로 발음하는 영향으로 ‘한국말’을 ‘한국만’, ‘살’을 ‘산’으로 발음한다. 또한 ‘베트남’을 ‘베틀남’으로 ‘닭고기’를 ‘따꼬기’로 발음하여 예사소리와 된소리를 구별하지 못한다. 문장 구성방식도 베트남어 어순에 따라 주어+동사+목적어식 문장을 사용하고 조사와 어미사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왕한석, 한건수, 양명희, 2005).

한국과 베트남의 문법구조상의 차이로 인하여 언어행위(speech act)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난다. 베트남어는 각 음절의 음높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억양에 대한 표시로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베트남 이민자 여성들은 한국어를 공부할 때 화자의 감정과 태도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되는 의미를 인지하기가 어렵다(김선희, 2013).

우리나라에서 직접 거절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아니요 · 됐어요 · 싫어요’ 일반적으로 사회적 힘이 상위자인 사람이 하위자인 사람에게 거절의 표현으로 사용하지만 베트남 이민자 여성의 경우 상위자에게 ‘됐어요’를 거절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한다(최연선, 2013). 이와 같은 차이는 한국에서 베트남 이민자 여성이 시부모나 가족에게 이와 같은 거절의 표현을 사용했을 때 갈등을 일으킬 수 있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어 호칭의 표현은 친족 명사의 사용 범위가 사회까지 확대되어 대인관계에서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한다. 베트남어의 호칭 사용은 베트남 이민자 여성들이 한국어를 말할 때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으로 인해서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오해를 가져다 줄 여지가 있다(황성희, 2012). 이것은 베트남 이민자 여성들이 한국인들과 대화를 할 때 소극적인 대화를 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 베트남 이민자 여성들은 본국의 언어 구조에 맞추어서 말하려고 하거나 어미가 생략 되어 말하는 것으로 인해(전혜경, 2010)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 그리고 자녀양육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보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설동훈, 윤흥식, 2005).

이와 같은 실제 사례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베트남 이민자 여성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사용할 때 베트남 언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나 관습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자녀양육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습득을 어려워하고 있는 베트남 이민자 여성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언어학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화행중심의 말하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베트남 이민자 여성은 베트남 문법식의 한국어를 사용한다거나 몸짓이나 손짓으로 사용하는 비언어적 표현방식을 지양하고 남편이나 가족들은 바른 한국어를 습득하도록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3) 자녀양육 방법

국제결혼 이민자가정이 직면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자녀양육 문제이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언어와 문화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언어학습·정체성·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아동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지니게 된다(오성배, 2005). 그리고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문화

적 차이는 자녀양육 방식에서 커다란 갈등요인으로도 작용한다(설동훈 외, 2005). 이민자가정의 어머니는 미숙한 언어로 인해 자녀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는 언어지체를 나타내고,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지니게 된다(박순희, 2009).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다문화가정 중에 베트남 여성 결혼 이민자가정의 자녀양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은 어머니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아내와 남편 간에 10세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부부가 62.4%를 차지하는데,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부부간 연령 차이가 15세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정혜경, 2009). 또한 베트남 여성의 결혼 평균 연령은 24세로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 중 가장 젊은 나이로 나타났다(설동훈 외, 2006).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Thanh, 2005) 나이 어린 어머니들의 대부분은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일반가정의 어머니들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김미숙, 2009; 김춘화, 2009). 그러나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은 나이가 많아서 영유아기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홍달아기, 채옥희: 2006).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행동에 공격성, 적대감으로 나타났고, 또한 어머니가 생활에서 자녀의 요구를 지나치거나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자녀의 학습지도에도 부담을 가졌다(팜 프옥 마잉, 2008).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한 어머니들 일수록 자녀에게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고 있다(신숙재, 1997; 안지영, 2010). 즉, 어머니의 연령이 낮으면 부모중심의 양육방법을 사용하므로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Fox, 1995).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어머니들은 다른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 보다 학력이 낮은 특징이 있다(여성가족부, 2006). 이러한 점은 언어장벽으로 나타나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설동훈, 윤홍식, 2005). 베트남 출신 어머니들은 언어에 대한 장벽이 크므로(이진숙, 2007) 한국어로 자녀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그러나 한국인 아버지들은 어머니가 자녀와 한국어로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한국인 아버지들은 어머니가 자녀와 한국어로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어머니들은 다문화가정의 다른 국가 어머니들 보다 모국의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을 더 많이 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났다(박찬옥, 이은경, 2011). 이런 현상으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유아기 때 적절한 언어적 자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답하거나 기피하고 혼잣말을 많이 하는 등 소극적인 언어로 표현하였다(김병순, 2007; 김신영, 2009; 김희태, 2001). 그러므로 어머니는 적절한 시기에 언어제공을 하지 못하므로 유아기의 언어발달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여성 결혼 이민자의 자녀들은 다른 이민자 여성의 자녀들 보다 정체성의 혼란과 문화적응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김현재, 2007; 이삼식, 최효진, 박성재, 2009). 이러한 배경으로 가족 간에 감정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자녀들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주위를 살피며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어머니는 자녀들의 부적응 상태를 민감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며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금자, 2009). 그 결과 자신으로 인해 자기 자녀의 지적 성장이나 언어발달이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어머니 부모교육 요구가 다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김정옥, 2013).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어머니는 자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설명해 주고 싶지만 부족한 한국어로 인해 한국어 습득을 목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녀들을 보내고 있다(곽정선, 2011).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어머니의 결정은 이른 나이에 자녀들을 유아교육기관에 보내서 한국어 습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가정에서 가르

쳐야 할 기본적인 습관 형성이나 부모와의 애착형성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전홍주 외, 2008).

베트남 이민자 여성 가정의 경우 미취학 자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0년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중 0-6세의 미취학 자녀들이 가장 많으며 베트남(83.8%), 필리핀(57.4%), 조선족(40.8%) 순으로 베트남 여성의 미취학 자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56.8%인 것에 비해 결혼이민자의 자녀들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는 사람은 14.3%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미취학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까닭은 양육비용과 사교육비 부담(31.7%)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다문화가정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낮은 경제력으로 인해 미취학 자녀의 양육은 주로 이민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이 담당하고 있다. 더군다나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가정 유아들 중 70.9%는 유아교육기관이나 양육자의 돌봄이 없이 혼자 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시설 무상 지원정책으로 보육시설 이용률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베트남 이민자가정에서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맞게 자녀양육을 지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의 능동적인 양육태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2006)에서 실시한 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결과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를 결정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비율이 베트남(33.3%), 필리핀(18%), 한족(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가정의 아버지가 양육과 교육문제에 있어서 자녀양육에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베트남 다문화가정에서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하여 아버지의 올바른 결정과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3. 소집단 부모교육

1) 소집단 부모교육의 필요성

‘부모교육’이란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양육태도를 지니도록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부모교육의 개념은 부모참여, 부모훈련, 부모관여, 부모개입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되어 왔다. 부모교육은 올바르게 못한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들에게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통해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포함되므로 부모훈련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Powel & Diamond, 1955). 또한 부모참여는 부모와 교사가 교육의 동등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효율적인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전 과정이라 볼 수 있다(이기숙, 2000).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1960년대 헤드 스타트 운동 이후 유아교육에서 적극적인 부모교육으로 강조되었고, 최근에는 부모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 주로 실시하는 부모교육으로는 가정통신·면담·부모회·참관이 있으며 그 중에도 소극적인 방법인 강연회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구미경, 2001; 김희진, 2002). 요즘 부모들은 매스컴·책·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이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 전달되는 강연회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고 있다(정운정, 2006).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관 중심의 부모교육 중에서 강연회의 참석이 감소되는 또 다른 이유는 부모의 특성이나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다(정인오, 1994). 그러나 모든 강연회에 부모들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 지식전달에만 초점을 맞추는 주입식 부모교육과 달리 개별 질문과 토론이 포함되고 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어 진행되는 형태의 강연회는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배지희, 2008). 특강, 워크숍 같은 대집단의 형태로 진행되어 전달받는 형태의 부모교육은 다

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많은 지식을 경험하는 이점이 있지만, 질문과 토의를 통해 심층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의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소집단을 선호한다.

현대사회는 맞벌이, 조부모,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족의 배경을 고려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조미영, 배지희, 2009). 다양한 가족 구조를 가진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일반 부모들과 동등한 주제를 가지고 교육하기 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족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이어야 한다. 취업모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자녀에게 관심이 높아서 부모교육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지만 직장일로 시간이 부족하여 부모교육에 많은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명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모들 보다 많아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을 원하고 있다(최형운, 2007; 최혜진, 2003).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서로 생활 문화가 다르고 언어능력소통 능력이 부족하므로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언어적 도움을 바탕으로 한 부모교육이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 온 이민자 여성의 능력과 흥미를 반영하고 생활에서 당면하는 가정의 문제와 양육의 문제 등 부모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의 요구가 반영된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한경님, 2012).

다문화가정에서 어머니가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며 소집단 형식으로 협의와 토의를 하는 부모교육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 어머니 역할을 재인식하게 하고 자녀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교육효과가 나타났다(조미영, 2011).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의 경우에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능동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아버지의 자신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추어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유동미, 2003). 수직적인 관계에서 아버지가 강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는 느낌이 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아버지의 요구와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계획에서부터 활동, 평가까지 참여가 가능한 소집단 부모교육이 요구된다(박은혜, 1981).

부모들은 특화된 부모교육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고,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교육을 실시해 주길 원하므로 앞으로의 부모교육은 자신의 가정과 자녀에게 맞는 부모교육 내용을 선택하고 부모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서영희, 권미량, 김은주, 2006; 정보미, 2013). 과거의 부모교육에서 실시되었던 정보전달이나 전수하는 방법과는 달리 부모의 역량에 도움을 주는 교육으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이은화, 1977; Hamner & Turner, 1985).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에 있어서 대집단의 일방적인 주입식 부모교육에서 제시해 주는 교육 내용은 자녀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 가정환경과 자녀의 연령, 기질과 문제 상황에 따라 양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집단 형태의 부모교육 방식보다는 부모교육자와 함께 실습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소규모 부모교육이 적합하다(이성한, 1997). 소집단 부모교육에서는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토론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부모들이 알고자 하는 실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소집단의 부모교육 참여자들은 토론을 통하여 서로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비교하면서 주관적인 문제를 객관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부모는 전문가인 교육자로부터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과 방법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문제, 기질, 환경에 따라 배운 방법을 실행하며 적극적인 부모역할을 감당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소집단 부모교육의 효과

오화선(2012)의 연구에 의하면 적극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받은 아버지는 자녀에 대하여 양육 효능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수정 등(2007)의 연구에서도 안정애착 형성을 위하여 예방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부모는 영아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표상을 갖게 되었고, 영아의 신호에 민감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집단으로 실시된 부모교육은 부모 모두에게 효과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성심(1983)의 연구에서 부모 훈련 프로그램을 받은 부모들 중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소극적 거부형과 기대형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다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들은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주제를 정할 때 일반적인 교육내용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교육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동일 집단 내에서도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녀의 연령이 비슷한 층으로 구성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는 교육방식을 택하여야 하며 집단 성원과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부모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부모교육에 참가한 부모들은 강의를 통해 얻은 정보보다 소집단의 모임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스스로를 지원함으로써 강의를 통한 부모지원에서 얻을 수 없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최진희, 1996). 이와 같이 부모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자와 교육 참여자들 간에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토론을 통하여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제시되는 소집단 부모교육이 소집단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 임은미(2013)의 연구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활동중심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많이 경험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어머니 자신의 장점을 찾아보는 활동만 통하여 자아존중감의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다문화가정에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가 교육기관에 적응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이윤호, 2009).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부모교육

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하여 부모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부모의 정체성과 부모자신의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강기정, 2009). Dix와 Branca(2003)도 유아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역할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일현과 성승연(2011)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이 정체성의 혼란과 언어습득의 어려움,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BTI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부모들 서로간의 같은 기질을 이해하고 공통적인 갈등을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존엄성을 향상 시키고 그들의 자녀에게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 태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 대상자인 부모들의 성격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비슷한 대상으로 구성하여 소집단 형태의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김정원, 이기숙, 1999). 또한 조미영(2011)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자녀양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자녀에게 적용하며 자녀의 감정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맞는 교육을 알게 되어서 사교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연구가 부족하므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요구와 어려움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맞는 교육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박선옥, 김하림, 최수현, 2010).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볼 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특성이 다르고 이들을 위한 정보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다르므로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자녀양육을 하는데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집단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금진과 송진만(2008)은 부모교육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실습을 하였으나 가정에서 부모들이 시간이 부족하거나 실생활에 적용

하는 데는 기술적인 문제의 미숙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의 지식 정도와 사회 지위, 경제적인 상태, 자녀와의 문제 등을 배려하지 않고 부모들에게 일괄적인 형태로 양육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요구를 반영하고 자녀의 연령, 실시유형, 문제 중심, 대상의 특징을 고려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노진형, 2005). 또한 부모 교육 대상의 크기에 대해 남광수(2009)는 대규모 대상보다는 소집단 혹은 개인에게 내용, 방법,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소집단 부모교육이 부모가 당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소규모의 부모교육을 적용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소집단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공동의 목표를 가진 부모가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반성적 사고를 통해 자녀양육의 문제를 찾아 개인의 가치나 경험을 동료집단과 비교를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 이민자가정을 대상으로 소집단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집단 부모교육 과정에서 부모교육자 역할과 아버지들의 변화양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장에서는 자녀양육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하여 소집단 부모교육을 실시한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A시에 소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P시 교회를 다니는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¹⁾ 7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남성으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여 현재 0세부터 7세까지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둘째, 자녀양육에 참여 하려는 의지가 있고 부모교육 참여 후 나타난 변화과정을 연구자와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대상자로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 동의하며 자신의 양육 참여에 대하여 연구자와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수락하는 자로서 아내가 직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도록 선정하였다. 넷째, 베트남 이주여성인 어머니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1년 8개월~13년으로 기간이 다양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부부들의 연령 차이가 7세~27세로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일요일에도 직장에 출근하여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힘들거나 또는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남에게 자신의 사생활

1) 본 연구의 참여자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를 이하 '아버지'라고 지칭한다.

활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아버지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외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였고 아내와 4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고 별거기간을 갖고 있었으나 연구를 시작한 중반 이후에 이혼을 한 아버지의 경우에는, 면담 과정에서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어려움과 참여 의지가 남달리 강하였고, 부모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기적인 소집단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아버지 7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한이아버지	찬우아버지	종희아버지	남영아버지	호승아버지	영화아버지	수영아버지
연령	42세	50세	52세	57세	33세	52세	41세
학력	고졸	중졸	고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전문대졸
직업	기술직	도매상직원	일일고용직	상업	공장사무직	주민센터 영어강사	기술직
결혼기간	5년5개월	13년	3년4개월	6년	7년	4년(이혼)	1년8개월
자녀	5세 아들 5개월 딸 (쌍둥이)	14세 딸 7세 아들	24세 딸 21세 딸 9개월 딸	6세 딸	6세 아들 3세 딸	7세 딸	16개월 딸
아내 연령	31세	37세	40세	30세	26세	38세	22세
연령 차이	11살	13살	12살	27살	7살	14살	19살
아내 학력	중졸	대졸	중졸	중졸	고졸	중졸	중졸
아내 직업	공장직공	상담원	공장직공	마트직원	카페 점원	주부	주부
한국거주기간	4년5개월	14년	3년4개월	6년	7년	8년	1년8개월

1)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한국인 아버지

(1) 한이 아버지²⁾

한이 아버지는 42세로 5세 아들과 5개월된 딸 쌍둥이를 두었고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처음에는 선을 몇 번 보았으나 상대방 여자에게 여러 번 거절당한 후 자신을 돌아보니 재산도 없고 학벌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포기했었다. 그러던 중 친척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를 듣고 용기를 내어 결혼 중매업자를 통해 화상으로 선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 생활에서 힘들었던 일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생긴 부부싸움과 갈등이었다. 그리고 다툼이 있을 때마다 ‘사랑 없이 결혼하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할 마음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어렵게 마음먹은 결혼이라서 혹시나 아내가 베트남으로 돌아 갈까봐 내심 걱정이 되어 화가나도 많이 참았다고 하였다.

그는 아내 사랑이 특별하여 키가 작은 아내가 자녀양육을 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아내와 함께 외출할 때는 아기를 주로 본인이 안고 다닌다고 하였다. 일상에서 시장보기, 아기 데리고 병원 가기, 큰 아이 어린이집 데려다 주기 등, 양육참여를 많이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아내가 불평할 때 섭섭하다고 하였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내의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장모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세 번 초청하였고, 근래에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내의 양육을 돕기 위해 장모를 한국에 오도록 비행기 표와 여비를 보냈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장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주 양육자인 장모가 베트남어 중에서도 지방 사투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큰 아이의 언어교육과 작은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2)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하였다.

우리 어머니(장모)는 베트남 사람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투리를 써서 베트남 사전을 뒤져도 모르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애 엄마와 둘만 알아들어요. 더군다나 애 엄마도 문제인 게, 교육이라고 하면 엄마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가 한국말을 한 글자라도 더 배워야 애들 교육을 시키지... 정말 부족한 걸 많이 느껴요. 우리 와이프가 집안 일 하고 아이들 뒤치닥거리 하다보면 언제 배우겠어요. 내가 짬을 내서라도 큰 애라도 가르쳐야죠. 놀이하는 법이라던가... 이런 교육적인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배워서 와이프에게 알려 주려고요... 남편들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아내를 이해하기 훨씬 쉽죠.

(한이 아버지, 2012. 4. 29)

위의 면담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이 아버지는 베트남 사투리를 쓰는 장모와 아내의 언어 사용과 아내의 적극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적인 태도를 걱정하였기 때문에 부모교육에 대해 갈망하여 열심히 참여하는 열성을 보이는 아버지이다. 부모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와서 연구자와 함께 다과를 준비하고 다른 연구 참여자가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통화를 하여서 늦게라도 부모교육에 참여하기를 권고하는 열정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아내와 언어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면서도 아내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아버지이다.

(2) 찬우 아버지

찬우 아버지는 연구 참여 당시 50세였으며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새벽도매상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어렸을 적에 본인의 성격이 조용하여 한 번도 남과 다투어 보지 않았을 정도로 온순하였으나 어른이 된 후에 변하였다고 하였다.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려 했으나 모든 여자들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죽을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힘들게 살아 왔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도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이런 자신이 싫어서 시장 사람들과 매일 술을

마시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아버지이다.

산업연수생으로 나왔다가 공장에서 정해진 기간을 못 채우고 나왔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된 베트남 여성인 아내를 친척의 소개로 만났으며 만난 지 40일 만에 결혼을 하였다. 아내는 베트남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고 현재 베트남 이주 여성을 위한 상담일을 하고 있다. 찬우 아버지는 새벽에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초저녁에 일찍 취침해야 하므로 아이들과 놀 시간이 없지만, 퇴근하고 오면 아내가 오기 전까지는 집안일을 하며 둘째 아이를 돌봐 주기도 하였다. 아들이 원하는 반찬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내의 반찬 솜씨가 좋지 않아도 그런 일로는 아내와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딸은 14살이라서 학교 성적 향상에 관심이 있으나 아이가 계속 뒤쳐지는 것이 속상하다고 하였다. 딸은 거의 어머니가 양육하였기 때문인지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어렸을 적부터 다른 아이에게 뒤쳐진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바쁘게 살다보니 학습지도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두어서 학습이 뒤떨어지게 되었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둘째인 아들은 대를 이어야 된다고 어머니에게만 맡기는 것보다는 본인이 참여를 하여 더욱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들 만큼은 아버지(본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놀아주고 교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 방법을 알고 싶어서 연구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아들은 잘 키워야 해요, 딸은 공부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해야지, 매일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들은 달라요. 내 인생과 같이 되어서는 절대, 절대로 안 되거든요. 난 아무 것도 아녜요. 잘 하는게 없잖아요. 아내는 걱정은 하지만... 사실 별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마음과 같을까요? 그런데 교육방법을 몰라요. 가르쳐야지요. 아내가 못하면 나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내는 자기 일에는 참 열심히 해요. 꼭 공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대학 갈 수 있다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걱정이예요. 그런 것을 알고 싶어요. (찬우 아버지, 2012. 5. 13)

(3) 종희 아버지

종희 아버지는 현재 나이가 52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일일고용직 일을 하고 있다. 1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일과 결혼 후 이혼했던 일, 술에 취해 있을 때 성추행 범으로 몰렸던 일, 교통사고를 냈던 일들을 겪고 난 후로 사람을 피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매사 소극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더군다나 첫 번째 결혼을 했을 때, 결혼 초에는 행복했으나 아내와 이혼을 하고 나서는 모든 일에 의욕이 없고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형수 소개로 베트남에 아들을 두고 있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다. 한국인 전처에게서 낳은 24살, 21살인 두 딸과 베트남 아내와 낳은 9개월 된 딸과 함께 살고 있으나 큰 두 딸들과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였다. 두 딸에게 어렸을 적에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못한 모습만 보여준 종희 아버지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현재 둘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막내딸은 고집이 세고 때를 많이 써서 어떻게 대처할지 방법을 모르는 아내는 힘들어 한다고 하였다. 본인도 자녀교육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다 커버린 두 딸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지 엄두도 못 낸다고 하였다. 다 커버린 두 딸에게 한 행동과는 달리 막내딸이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아버지 교육에 관심을 갖고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첫째 부인은 한국 여자였는데 결혼하고 처음에는 좋았죠. 아기도 잘 키운다고 생각 했어요 나중에 불화가 생기면서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전 와이프와 사이에서 난 딸이 어렸을 적인 6학년 때 생리를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은 못 했죠 아버지를 싫어했으니까요. 자기도 엄마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어 볼 수도 없고, 내가 그때 좀 딸과 친했더라면 저도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딸아이가 접근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정말로 많이 아팠어요. 와이프 없이 저 혼자 아

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저는 두 딸은 그렇게 키웠지만 (막내는) 잘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도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같이 놀아주고 가르쳐 줘야 친해지죠. 다 커버린 두 딸과는 이야기조차 안하는데 막내도 그러면 어찌겠어요? 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잘 몰라요. 저는 알죠. 두 딸을 키워 봤으니까...아내는 그냥 교육보다는 잘 먹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스쳐 버리는 것이 많아요. 저는 늦게 자녀가 생기면서 달라졌어요. 나도 이제서야 이 나이에 철이 든 거죠.

(중희 아버지, 2012. 4. 29)

(4) 남영 아버지

남영 아버지는 2006년에 다문화가정 20쌍과 함께 합동결혼식을 하였다. 연구 참여할 당시 57세로 연구 참여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고, 아내 나이는 30세이며 본인과의 나이 차이도 27세로 연구 참여한 부부들 중에 나이 차이가 가장 많았다. 그 당시 합동 결혼을 했던 부부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부정적인 사례에 대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3개월 동안 아내와 관련된 모든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으며 또한 밖에 나가지도 못하도록 하였다. 아내가 베트남 사람을 안 만난다고 하면서 베트남 사람과 만나는 것을 알게 되면 거짓말하고 다닌다며 아내에게 심하게 화를 냈다고 하였다. 또한 베트남과 한국 사람들과는 언어·음식·습관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런 이유로 아내가 본국으로 돌아갈까 봐 결혼 후 3개월까지 주의 깊게 지켜봤다고 하였다. 남영 아버지는 늦게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열정이 남달리 깊어 자녀 교육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아내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틈만 나면 자녀에게 엄하게 한글 공부를 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한글 쓰기 교육을 하는 것만이 교육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산만한 아이에게 공부만 강조 하다 보니 아버지와 공부하자고 하면 아이가 도망가려고 한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다.

아이가 떼쓰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잘 안돼요. 방법을 모르니깐. 아내는 더 잘 몰라요. 내가 더 잘 알아. 왜냐하면 한국어를 잘 못하니 내가 키워야 되니깐 거의... 걱정이 많아요. 잘 모르니깐... 모르는 것이 정말 많아.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이 나이가 많아요. 나이 먹어서 애를 낳으니 애가 너무 예쁜 거야. 노총각이 애를 나니 시어머니도 그렇고 집안이 모두 예뻐한 단 말이야. 그러니 교육은 저리 가게 되고... 엄마는 모르고 나이가 어리니 놀 생각만 하구... 친정에 돈 부칠 생각만 하구... 이게 문제가 많아요. 특히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 엄마들이 더 모르는 것 같아. 중국 엄마들은 잘 안다니깐... 우리 베트남이 문제야 문제. (남영 아버지, 2012. 5. 13)

남영 아버지는 어렸을 적부터 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친분을 갖고 있었다. 또한 합동결혼식을 한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다문화가정들의 좋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도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내를 의심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 때의 일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에 아내가 자녀양육을 잘하지 못해도 이해하려 하였다. 본인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해 관심은 많으나 아는 것이 없는 것을 걱정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육을 통해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을 받아 자기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하여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면담이나 부모교육을 하는 동안 다소 격하게 반응을 하거나 거친 어투로 표현하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 할 때는 눈물을 가장 많이 보였던 아버지이다.

(5) 호승 아버지

호승 아버지는 33세로 전문대를 졸업하고 친척의 공장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 다른 다문화가정의 아버지와는 달리 아내와 연애결혼을 하였으며 생활에 매우 자신감이 있었다. 사업차 베트남에 갔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 편지로 몇 년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였으며 두 자녀를 낳았다. 첫 번째 아들 호승이는 6살인데, 어렸을 적에 식도에 이상이 있어 수술을 하였고 언어 배우는 시기에 말을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언어지체가 나타났다. 현재 6살의 나이에 비해 감정 표현과 발음이 부정확한데도 불구하고 언어발달이 뒤지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남자 아이라 늦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어린이집에서 호승이의 수업 장면을 우연히 보다가 자녀의 언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아내는 한국에 온 지 오래 되어 의사소통은 별로 문제가 없지만 자녀와 함께 놀아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하거나 말을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호승이 어머니도 자녀의 언어지체에 대하여 걱정이 되었지만 본인이라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호승이 아버지는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서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내도, 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책 다 읽어주면 다 끝나는 건가? 뭘 해줘야 하는가? 뽀로로도 보여주고 밤에 책도 읽어주려고 하는 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내는 돈을 벌어야지... 친정에 보내야 하니깐, 장시간 카페에서 일을 해요. 저녁에 애들을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큰 아이는 종일반 5시에 오고, 작은 애는 4시에서 5시에 오구. 저녁에는 부모가 좀 가르쳐야 하는데. 엄마는 없고, 나는 잘 모르고. 애 언어는 어떻게 하죠? 진짜 가슴이 철렁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 못 하는 것이 진짜 문제 아닌가요? (호승 아버지, 2012. 4. 22)

(6) 영화 아버지

영화 아버지는 52세로 방송통신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A지역 주민센터에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영어를 무료로 가르치고 있으며 일본어에도 관심이 많아 고아원 아이들에게도 영어와 일본어를 무료로 가르치는 적극적인 아버지이다. 그러나 몇 년 전에 사업에 실패하자 아내가 이혼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속상한 마음에 별거를 하다가 연구 중반 이후에 이혼을 하였다. 이혼한 아내와의 사이에 7살 된 딸을 두고 있으며 영화 친할머니가 양육을 하며 함께 살고 있다.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다고 하면 전 아내와 만나기도 하여서 얼마 전까지 다시 합쳐 살려는 생각을 하였으나, 아내는 다른 남자와 재혼한다고 하였고 본인의 경제력이 약한 것이 매우 속상하다고 하였다.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으며 재혼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딸 아이의 어머니가 베트남 여성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아내도 베트남 여성을 원하고 있었다. 영화 아버지는 조모가 손녀를 키우기 때문에 버릇없이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조모도 엄마 없이 크는 것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도 훈육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모의 행동을 지적하기 힘들다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여태 아내와 별거하면서도 이혼하지 않고 딸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딸을 아내가 데리고 가지 않고 제 어머니가 키우고 있는데, 요즘은 더욱 버릇이 없어요. 점점 더해지는 것만 같아요. 자식은 커 가는데, 생활 습관이 엉망이에요. 자기 고집대로만 해요. 교육도 힘들고, 돈도 없고, 전 인생에 있어서 절반의 실패만 한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영화 아버지. 2012. 5. 13)

(7) 수영 아버지

수영 아버지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가장 늦게까지 말을 하기를 힘들어 했으며 6주가 지나서야 말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본인의 발음이 부정확하여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여서 남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말을 할 때 항상 얼굴이 붉게 되면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국내 여성과 데이트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기술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소개해 주는 업체를 통해 39살에 나이 어린 20세 여성과 결혼을 하여 늦게 가정을 이루었으며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고마워하고 행복해 하였다. 그래서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며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고 있었고, 본인이 아버지 교육에 참여하여 배운 것을 아내에게 가르쳐 주면서 남편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였다. 아이가 커가면서 본인처럼 ‘부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염려를 하였다. 머리가 좋지는 않지만 본인을 닮아 손재주가 있고 운동을 잘하는 특징을 가진 자녀가 미래에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하고, 이런 자녀를 둔 부모가 어떻게 양육지도를 해야 할지 알고 싶어서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 어머니는 한가지 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남자가 잘 났으면 국제결혼 했겠어요? 국제 결...결혼 안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국제결혼을 했을까요? 귀한 내 아들이니깐... 내... 내 아들은 잘 났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느낌 이에요. 그래서 난 무조건 아내가 어머니 모... 모셔주는 것을 고...고마워 해야 한다고 생...생각해요. 아내가 고마워요.(중략) 내 발음도 그렇지... 아이가 안 따라 했으면 바...바램이구요. 난 손재주 그건 있어요. IQ가 둘 다 나쁜데 아... 아이는 괜찮을까요? 손재주, 운동하는 것만 조금 괜찮아요. 그런 것도 재주지요? 혹시 그런 걸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교육 시키

고 싶어요.

(수영 아버지. 2012. 4. 29)

이상과 같이 베트남여성 결혼이민자가정의 7명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소집단 부모교육을 통하여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2) 부모교육자

본 연구에 부모교육자로 참여하게 된 연구자가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관한 소집단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현장에서의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학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유치원 교사 시절에 유아들을 열심히 지도하였지만 그것 이외에 부모가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느냐에 따라 자녀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볼 때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부모들과 면담을 할 때,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은 어머니뿐 만 아니라 아버지 또한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가정 내에서 하고 싶은 만큼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특히, 자녀가 잘못되거나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아버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자책감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다. 본 연구자에게 상담하러 오는 아버지들은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욕구와 관심은 높지만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고, 심리적인 위축과 함께 부담감을 느끼며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욕구에 비해 자녀교육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정서적, 전문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부모 역할 지원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시급

함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2008년 법무부가 주최한 다문화가정 100쌍의 결혼식에 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등 13개 국가의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에서 만난 이민자 여성들은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으며 늦게나마 결혼한 것에 대해 감사를 하는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았다. 그러던 중 S교회에서 2008년 합동결혼식에 참여 하였던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는 결혼하여 힘들었던 이야기, 아내와의 갈등 이야기, 첫째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었던 지난 과거를 이야기 하며 속 시원히 말 할 곳이 없었다고 하소연하였다. 한국어에 능숙한 한국인 아버지가 자녀에 관한 문제가 생겨서 도움을 청하거나, 양육을 상담해 올 때 연구자는 가르쳐 주고 관련 자료를 꾸준히 제공 하였고 아버지들은 지속적인 자녀양육 지원을 원하였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한국생활에 미숙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몰라 힘들어 하는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을 볼 때 부모교육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의 필요함을 절실히 느껴 본 연구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상담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부모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녀양육 교육지원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 부모들과 상담을 통해 자녀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편안해졌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모교육보다는 각 가정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 소집단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지금 A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을 가르치고 자녀교육 상담을 하고 있다. 많은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을 만났지만 특히,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어머니들은 한국 거주 기간이 오래 되어도 중국이나 필리핀 여성 이민자의 어머니들보다 한국말 습득을 어려워하고, 자녀 상담이나

면담을 할 때도 행동의 표현이 불안정하고 서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더구나 다문화가정에서 베트남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양육을 힘들어 하고 어려워 할 때, 어떻게 자녀양육을 해야 있는지 하소연하며 물어오는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들과 상담 하면서 고민을 나누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교육의 보람과 기쁨을 맛보는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이민자가정에서는 가정환경과 배경에 따라 다른 자녀 양육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욱 양육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부모교육자로서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영유아기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맞추어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아교육 현장 경력을 갖고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대상 부모교육을 강의한 경험 및 대학에서 부모교육 관련 과목 강의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지원 부모 상담과 교육 지원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이러한 동기로 인해 본 연구자는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의지와 열정, 그리고 세 아이를 길러낸 어머니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연구에 임하고자 한다.

2. 연구 절차

1) 기초 요구 조사

2012년 4월 28일에 A, P시에 위치한 교회에 다니는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들과 A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강중인 베트남 이민자가정 어머니의 남편들 32명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관련 기초 요구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요구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에 응답한 아버지들 중에서 양육을 위한 아버지 교육에 참여 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12.5%(4명)이었으며, 참여의 형태는 모두 대집단의 형태로 강연회에 참여 하였다. 참여하지 못한 28명 중 71.4% (20명)는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17.8%(5명)는 부모교육에 관심은 있었으나 자기 자신의 사생활 개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자신이 다문화가정이라는 사실을 타인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다. 기타 응답(10.7%, 3명)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등 이유를 들었다.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직장의 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일요일에 실시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였다며 교육자가 시간을 조정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의 아버지들(87.5%, 28명)은 ‘아버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부모교육 참여 경험은 낮았지만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교육을 실시할 경우, 아버지들이 희망하는 주제는 베트남의 생활문화 이해, 임신과 태교, 분만 후의 생리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의 이해, 아내와 의사소통 기법, 아내의 역할 분담하는 방법, 육아정보와 이해, 자녀의 언어교육법, 자녀의 문제 행동 지도법,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방법, 문제행동 대처방법, 자녀의 발달 단계 이해, 아내와의 갈등문제 해결하는 방법 등 이었다.

아버지들은 본인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내도 함께 참여하여 교육 받기를 원하였고, 아버지보다 베트남 이주여성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요구들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주제를 설정하는데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예비 연구

본 연구의 적절성과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위하여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 개별면담

예비 연구에서의 개별면담은 2012년 3월 10일부터 4월 1일까지 본 연구 참여자 2명이 포함된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연구 참여자인 아버지들과 편안한 마음으로 심층면담을 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미리 만나서 차를 마시며 친밀감을 갖도록 래포 형성에 노력하였고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개별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1인당 3회씩 이루어졌고 장소는 A다문화 센터 상담실과 P교회 상담실의 조용한 곳으로 선정하였다. 면담 소요시간은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였다.

면담 이후 보충할 부분이 있거나 상황에 따라 만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면담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전사하였다. 면담 내용은 가능한 한 그날 전사하여 생생하게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면담 시 추가할 질문 목록을 만들었다. 면담에서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전화나 E-mail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였다.

본 예비 연구에 참여한 4명의 특성은 다음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 예비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	직업	나이	학력	가족관계	자녀
아버지1	사업	56	고졸	처제, 자녀1	6세 아들
아버지2	기술직	41	고졸	부모, 자녀1	5세 딸
아버지3	기술직	42	고졸	장모, 자녀3	5세 아들 3개월 쌍둥이 딸
아버지4	상업	50	중졸	자녀2	14세 딸 7세 아들

(2) 예비연구 결과

본 연구자는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영유아기 아버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개별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의 자녀양육경험과 관련된 어려움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들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소외계층이라는 것과 한국여성들과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베트남 결혼 가정의 남편들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하였다. 더군다나 가정생활에서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로 인해 가족들과 아내와의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문화 차이에서 생기는 부부간의 문제를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을 나타냈다.

또한 아버지들은 자녀의 언어지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녀의 언어에 대해 걱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어로 이야기하는 아내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녀의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아내는 한국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밤늦게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일용직이나 단순 노동자와 임시직)까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녀에 대해 양육과 교육에 참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자녀의 언어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 씩 오는 학습지 선생님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교육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조모와 함께 사는 경우 베트남어는 손자에게 필요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 못하는 유아에게 어려운 베트남어를 가르쳐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자녀가 어머니의 모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조모는 어머니들의 생각과는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어 아버지들은 조모와 아내와의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또한 조모는 베트남어가 영어에 비해 많이 쓰이지 않는 언어이고, 억양이 높아 공손하지 못한 태도로 인식하여 오인하는 등 언어로 인해 조모와 아내는 갈등을 겪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문화적인 차이로 가사 참여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내와 마찰이 생기는 것을 염려하였다. 베트남에서는 남편이 양육이나 가사 참여에 매우 개방적이기 때문에 가사 일을 많이 도와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한국 남편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들이 섭섭해 한다고 하였다. 또한 양육 방법에 있어서도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자녀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아버지 학교에 참여한 한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가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었으며, 아버지 학교에서는 부부간의 화합과 행복한 가정 만들

기가 주제였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아버지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시간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선호하였고 시간은 일요일 점심식사 후나 토요일 오후 2시를 가장 선호하였다. 참여자 모두 양육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싶은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형식은 다함께 듣는 강연회 형식의 교육 보다는 가정의 자녀양육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참여자의 요구가 반영되어 아버지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교육을 원했다.

이상과 같이 예비 연구 결과에서 나온 요구를 바탕으로 아버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베트남 문화와 각 가정의 배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그룹 부모교육 주제를 계획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3) 본 연구

본 연구는 2012년 4월 30일부터 2012년 9월 16일까지 실시하였다.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본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아버지 10명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들 가정의 특성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이중에 3명의 아버지가 중도에 포기하여 7명의 아버지들이 소집단 부모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이 겪는 어려움과 부모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P시에 소재한 교회의 심리 상담실에서 베트남 여성 결혼 이민자가정의 아버지 7명을 대상으로 소그룹 집단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1) 소집단 부모교육

소집단 아버지 부모교육은 P시 교회 심리 상담실에서 2012년 5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만나면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20회기의 소집단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1회기부터 15회기까지는 아버지들에게 부모교육을 진행하였고, 16회기부터 18회기까지는 어머니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회기와 20회기는 부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다.

먼저 2012년 5월 6일부터 8월 19일에는 1회기부터 15회기까지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부모교육은 주로 일요일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 되었으며 1회기 당 90~1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부모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와 가능한 시간을 맞추어 개별적으로 진행함으로 부모교육이 한 회기라도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로 부터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Glesne & Peshkin, 1992). 그러므로 지식을 전달하는 부모교육자가 아닌 아버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이며 조연자, 학습촉진자의 역할을 하도록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협동적이며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노력하였다. 안부금(2002)에 의하면 교육의 내용은 실제적인 상황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소집단 부모교육에서는 주제별 강의식 설명을 한 후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주제에 따른 상황을 제시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은 제시된 상황에 비추어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역할극, 실습 등의 상호작용을 해보는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실생활과 직접 연결이 되는 역동적인 교육이 되도록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 가정의 요구 상황이 각각 다르므로 개별적인 과제를 부여하였다. 각 가정에서 과제를 실행한 후 모임 때 토론을 통해 부모로서의 역할과 양육참여, 남편으로서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

성적 활동을 하였다.

특히, 베트남 결혼 이민자가정에서만 경험하였던 내용일 때에는 일반적인 가정의 사람들과는 마음껏 이야기 나누지 못하였던 부분이었으므로 서로 공감되어 몰입할 수 있도록 내면의 소리를 듣고자 연구자의 참여를 최소화 하여 참여자 의사를 존중하도록 노력하였다. 참여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자들 간에 친밀감이 확대 되면서 아버지 교육시간에 가족이나 자녀들을 동반한 경우에는 베트남 이민자 어머니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놀 수 있도록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어 연구 참여자들이 조급한 마음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에 몰두하도록 배려했다.

아버지 부모교육 과정 이후 2012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인 16~18회기에는 아버지들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이민자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하였다. 2012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한 19~20 회기에는 부부가 모여 교육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부족한 교육을 보완하는 부모교육 시간을 가졌으며 수업을 마친 뒤에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상담을 하며 교육이 이루어졌다. Scott(1999)에 의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원하는 주제에 따라 부모교육이 진행되었다.

아버지 부모교육의 진행과 내용은 요구조사와 예비 연구의 심층면담 결과, 그리고 여성가족부(2005)의 국제결혼 부부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결과 보고서와 여성가족부(2009)의 다문화가족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여성가족부(2012)의 부모교육 서비스 매뉴얼 활용 교수법 및 한경님(2012)의 자료 등을 토대로 부모교육 전문가인 지도교수와의 협의 하에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소집단 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

회기/기간	주제	부모교육 내용	교육 방법
1회기 2012년 5월6일 (아버지참여)	부모교육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들 간의 친교나누기 •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부모교육 주제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 • 면담 • 토의 • 과제
2회기 2012년 5월13일	자기인식과 자존감 높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아온 성장과정 돌아보며 자기 자신 이해하기 •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 인식하기 • 자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강의 • 토의 • 코칭
3회기 2012년 5월20일	소중한 우리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내의 만남을 돌아보며 고마움 느끼기 • 아내와 자녀에 대한 자랑거리 표현하기 • 아내의 한국어 시험 준비 도와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 • 발표 • 과제
4회기 2012년 5월 27일	아내,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내와 친밀한 관계 맺는 방법 논의하기 • 자녀와의 관계를 점검 해보고 친밀한 관계 맺는 방법 토론하기 • 베트남 기본생활 용어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 • 시범 • 과제
5회기 2012년 6월3일	다문화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의 현주소 알기 • 베트남 가정의 문제점 이해하기 • 다문화가정에서 아버지의 중요성 이해하기 • 가정에서 아버지의 양육에 관한 활동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시청 • 강의 • 토의
6회기 2012년 6월10일	베트남의 문화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문화에 관해 이해하기 • 베트남 출산풍습 살펴보기 • 아내와 다른 문화로 인한 어려운 경험 나누기 • 아내의 문화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 토의

<p>7회기</p> <p>2012년 6월 17일</p>	<p>영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의 발달 단계에 대한 지식 이해하기 • 아버지가 참여할 수 있는 올바른 양육방법 이해하기 • 아버지의 양육경험 나누기 • 영아기의 아버지들이 원하는 개별면담 주제 정하기 • 가정에서 양육참여 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 토의 • 면담 • 과제
<p>8회기</p> <p>2012년 6월 24일</p>	<p>영아기 자녀와 상호작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에서 자녀와 언어적 상호작용의 중요성 이해하기 •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놀이를 통해 소통 방법 익히기 • 퇴근 후 30분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 실연 • 과제
<p>9회기</p> <p>2012년 7월 1일</p>	<p>유아기 자녀의 언어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기의 성장발달에 따른 특징 이해하기 • 다문화가정 언어의 중요성과 민감기 이해하기 • 자녀발달에 맞는 그림책 알아보기 (추천도서 목록 제시) • 도서관 연계하여 이용방법 경험하기 • 도서관에서 책 대출, 반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시청 • 토의 • 면담 • 견학 • 과제
<p>10회기</p> <p>2012년 7월 8일</p>	<p>아빠가 읽어주는 그림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에 맞는 그림책 선택하기 (자녀의 연령에 맞는 동화책을 골라서 동화구연 연습) • 베트남 전래동화 내용 이해하기 • 그림책 읽어주며 상호작용하기 • 그림책 읽은 후에 연계활동 하기 • 부녀회와 연계하여 집에서 안 읽는 동화책 돌려보기 • 퇴근 후나 잠자기 전 책읽어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연 • 역할극 • 토의 • 과제
<p>11회기</p> <p>2012년 7월 15일</p>	<p>아빠와 함께하는 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의 놀이경험의 중요성 이해하기 • 베트남 놀이 알아보기 • 다양한 놀이 방법 익히기 • 자녀와 함께 놀이 활동하기 • 부녀회와 연계하여 장난감 돌려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 실연 • 과제

12회기 2012년 7월20일	자녀와의 올바른 훈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칭찬과 격려하기 • 감정코칭 방법 익히기 • 역할극 • 아내, 자녀에게 칭찬의 말 사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 동영상시청 • 실연 • 과제
13회기 2012년 8월5일	올바른 식생활 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의 식습관 이해하기 • 올바른 식습관 지도와 영양관리 이해하기 • 자녀의 식습관에 대한 경험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 토의 • 과제
14회기 2012년 8월12일	유아의 지능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지능에 대한 이해하기 • IQ와 다중지능과의 관계 이해하기 • 부모와 자녀가 바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나누기 • 자녀의 잘하는 점 찾아 격려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 동영상시청 • 토의 • 과제
15회기 2012년 8월19일	자녀의 문제행동 지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문제 행동 사례 나누기 •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법 이해하기 • 역할극 •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대처 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 • 강의 • 시연 • 과제
16회기 2012년 8월26일 (어머니 참여)	자녀 바르게 키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교육의 필요성 이해하기 • 자녀를 양육할 때 힘든 점 이야기 나누기 • 어머니들이 원하는 부모교육 주제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 문답 • 토의 • 과제
17회기 2012년 8월29일	자녀교육 정보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발달에 맞는 지식과 정보제공, 질병과 예방 접종, 안전에 대해 이해하기 • 이유식 만들기 • 한국의 문화 이해하기(음식, 예절, 생활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답 • 토의 • 실습
18회기 2012년 9월2일	자녀와 대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발달에 맞는 지식과 정보제공, 초등학교 준비와 자녀의 장점 자랑하기 • 올바른 대화법과 칭찬하는 방법 익히기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집에서 안 입는 옷 물려 주기 • 집에서 안 쓰는 물건 가지고 와서 돌려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 • 모델링 • 실연 • 과제

<p>19회기</p> <p>2012년 9월9일 (부부참여)</p>	<p>부부의 친밀감 확인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모임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에서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야기 나누기 • 남편이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동영상을 아내에게 보여주기 • 앞으로 자녀교육에 관한 계획 이야기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 • 동영상상영 • 과제 • 개별적인 부모교육
<p>20회기</p> <p>2012년 9월16일</p>	<p>행복한 우리 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에서 부족한 부분 나누기 • 가족에게 바라는 점 나누기 • 서로 변화된 점 발견하여 칭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 • 개별적인 부모교육

이상과 같이 부모교육은 주제 중심으로 문화의 이해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참여자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부분을 서로 나누면서 진행이 되었다.

(2) 면담

① 개별면담

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관점과 생활, 감정과 의식주 등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럽고 목적적인 연구수집 방법이다(김영천, 2006). 특히 다문화가정에서는 잘 드러내지 못한 억압된 구조 때문에 감정이 이면에 숨겨져 있어서 소수집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에는 심층면담이 적합한 방법이다(조용환, 2008).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이 경험하는 자녀양육에 관한 어려움과 부모교육을 통하여 나타나는 아버지들의 양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별면담은 1, 2차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1차 개별면담에서는 베트남 이민자 여성을 배우자로 둔 한국인 아버지들 중 부모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아버지 10명을 대상으로 P교회 심리 상담실에서 2012년 4월 30일부터 2012년

5월 5일까지 면담을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아버지들과 레포(rapport)형성을 하기 위해 각자의 휴대폰에 소지한 가족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면담은 주로 상담실이나 조용한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본 연구의 소개와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과 어려움, 아버지들이 원하는 부모교육의 내용 등 전반적인 요구에 대한 내용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은 1인당 30~50분 정도 시간이 소요 되었으며, 개인당 1~2회씩 총 15회 실시하였다. 1차 면담이 끝난 이후 부모교육을 마칠 때까지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아버지 3명은 연구에 불참하여 7명이 본 연구에서 참여하게 되었다.

2차 면담은 2012년 5월 6일부터 2012년 8월 19일까지 부모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1차 면담과 같은 개별면담 형식으로 개인당 각각 7~8회씩, 총 56회 진행 하였다. 면담은 미리 시간을 약속하여 부모교육을 마치기 전후에 30~40분씩 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미리 약속을 하여 부모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면담을 하였지만 부모교육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면담을 원할 경우에는 교육을 마친 뒤에 개별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조용환(2008)은 답변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비언어적인 자료 활용을 권하였으므로 본 면담에서도 주제 따른 상황을 제시하는 그림과 문화와 관련된 생활사진, 그리고 부모교육과 관련된 영상 등을 활용하여 이야기의 내용이 풍부하도록 하였고, 연구주제와 연구문제를 계속하여 확인하면서 면담을 하였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참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질문을 하였고 연구 참여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하여 눈 맞춤, 고개 끄덕이기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를 존중하도록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할 때에는 되도록 질문을 하지 않았고, 이야기 듣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면담 도중에 참여자의 자녀가 들어오거나 외부의 소리로 인해 방해가 될 경우에도 이야기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비구조적 면담(non-structured interview)과 반구조적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비구조적 면담에서는 자신의 과거사, 아내와의 만남, 부

모교육과 관련한 이야기 등 자유스러움 속에서 면담 초기에 새로운 정보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Spradley(1980)에 의하면 연구 초기에 기술적 질문을 하고 후기로 갈수록 구조적 질문, 대조적 질문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연구자는 면담 중반 이후에는 주로 반구조적 면담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주제에 대한 의미론적 관계가 드러나도록 구조적 질문(structural question)을 하였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조적 질문(contrast interview)을 하였다. 또한 추상적인 질문이나 애매하거나 유도성이 있는 질문은 피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1, 2차 개별 면담과정 및 내용은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 개별면담 과정 및 내용

면담	대상	면담내용
1차 면담 (2012년 4월 30일 ~ 5월 5일) 개별면담 15회	연구 참여를 원하는 아버지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의 소개 • 자녀양육의 경험과 어려움 이야기 •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부모교육
2차 면담 (2012년 5월 6일 ~ 8월 19일) 개별면담 56회	연구 참여자 아버지들 7명 (10명중 3명 빠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들의 성장배경 되돌아보기 •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게 된 배경과 결혼생활 이야기 • 자녀양육에 관한 이야기

② 집단면담

3, 4차 면담은 2012년 8월 26일부터 2012년 9월 16일까지 집단면담으로 실시하였다. 3차 면담은 보조 참여자인 연구 참여자의 베트남 이민자 아내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이나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알아보고자

집단면담을 하였다. 개별적으로 면담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와 개별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2012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어머니와의 집단면담으로 이루어진 3차 면담은 1시간~1시간 30분씩 총 3차례 이루어졌다.

주로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의 수업이 끝난 후 함께 귀가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 연구자와 마주칠 기회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레포 형성이 되어 면담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부모교육이 진행 되면서 아버지들은 어머니 교육을 절실히 요구하였고 어머니들 또한 교육받기를 원하여서 심층면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한국말이 미숙해서 쉬운 말은 이해를 하였으나 언어소통이 잘 안될 때에는 연구 참여자 중에서 한국말이 능숙한 어머니가 통역을 해 주어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면담에서는 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한국문화 이해와 양육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집단 면담을 마친 후에 어머니들이 더 많은 만남을 원할 경우에 개인적인 면담 시간을 가졌으며 남편과 양육고민이나 갈등, 자녀양육에서 궁금하였던 부분 또는 부모교육 후 가정에서 과제를 하는 남편의 모습에 대한 아내의 반응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자는 면담 내용 중 한 주제에 대한 본인들의 다양한 느낌과 경험, 교육에 궁금했던 부분 등에 대해서 비형식적인 면담을 실행하였다. 비구조화된 면담을 주로 하였지만, 먼저 아버지들에게 실시했던 면담결과를 이용하여 질문 목록을 만들어 질문을 하는 반구조화된 면담도 하였다. 답변이 모호하거나 이해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체크를 하였고 다음 모임 때 질문을 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에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으며 모든 참여자가 면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였다.

4차 면담에서는 2012년 9월 9일부터 2012년 9월 16일까지 연구 참여자 부부들을 대상으로 집단면담을 하였다. 집단면담에서는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변화된 이야기, 상대방의 문화이해로 가정에서 변화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이 반복되고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거론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이 되어 면담을 종료(Seidman, 1998)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MP3로 녹음한 것과 연구자의 기록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고, 면담을 마친 뒤 바로 현장 노트에 면담 중에서 느꼈던 연구 참여자의 중요한 행동과 내용, 상황과 함께 감정까지 기술하였다. 또한 미처 녹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면담의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현장 약기노트로 남기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본 연구자의 의견도 그 자리에서 기록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고 저장된 파일의 일부분은 분석 후 추가 질문 목록을 만들어 다음 회기 면담 때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가명을 사용하여 면담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의 보장에 힘썼다. 또한 면담 자료와 현장노트, 약기노트, 메모 등의 자료는 면담의 내용과 함께 확인하면서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집단 면담과정 및 내용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7> 집단면담 과정 및 내용

면담	대상	면담내용
3차 면담 (2012년 8월 26일~ 9월 2일) 집단면담 3회	연구 참여자의 아내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과 가족에게 바라는 점 이야기 • 한국문화에 대한 힘들었던 경험 이야기 • 자녀양육의 지식에 대한 질문 • 한국 문화이해와 관련된 어려움
4차면담 (2012년 9월 9일~ 9월 16일) 집단면담 2회	연구 참여자 부부 7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을 마치고 난 뒤 부부사이의 긍정적인 변화 이야기 •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변화 된 이야기 • 문화이해로 가정에서 변화 된 이야기

(3) 참여관찰

2012년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교회에서 주최하는 다문화가족 행사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캠프’가 개최되었다. 캠프에는 베트남 다문화 8가정이 참여하였는데, 연구 참여자 중 4가정이 캠프에 참석하여서 본 연구자도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부모의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참여, 문제행동 해결 방법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Spradley(1980)에 의하면 참여관찰자는 내부자(insider)이면서 동시에 외부자(outsider)의 행동을 내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4가정과 연구자의 숙소를 한 곳으로 배정하도록 요청하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피고 참여자들의 모든 활동을 함께 하며 캠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같은 감정으로 느끼는 내부자(insider)로서의 경험을 하였다. 또한, 즉석에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기도 하였지만 어떤 때에는 늦은 오후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장면을 벗어나 현장에서 분리된 외부자(outsider)로서 자기성찰(introspection)을 통해 객관적인 기록이 되도록 하였다.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즉시 적으려 했으나 참여자의 가족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기록하기 어려울 때에는 수첩에 간략하게 적어 놓았다가 이후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적었고, 숙소에 와서 수첩에 적은 것을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하였다.

참여관찰의 형태는 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지만 상황에 따라 수동적 참여를 병행하였다. 연구자는 가족 캠프의 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참여자 가족과 함께 모든 스케줄에 따라 생활 하였고, 잠자기 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런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의견을 나누면서 관찰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이 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자녀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부부간에 자녀에 관한 의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자는 수동적 참여를 하였다. 수동적 참여는 현장에 있기는 하되 다른 사람들과 서로 깊

이 관련을 맺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이며 ‘방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Spradley, 1980), 연구자는 현장에 머무르면서 감시자로 인식되지 않게 사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캠프를 마치는 시간까지 참여관찰자로서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다.

3. 자료 수집

1) 면담 전사본

아버지, 어머니 부모교육 전, 후에 실시한 개별면담, 집단면담을 녹음과 기록으로 남긴 후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저장한 내용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전사하였고 정리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다음 면담 때 질문을 통하여 의미를 이해하여 전사할 때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2) 현장노트

현장노트는 부모교육이나 여름캠프 때에 참여관찰을 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짧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메모하고 일어나는 상황을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부모교육 과정에서도 각각의 사건들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이나 느낌, 의문사항, 다음 면담이나 부모교육 할 때에 질문할 사항, 다음 회기 때 확인해야 할 일 등을 적어 두었다. 그러나 연구자와 참여자가 계속하여 상호작용을 하여 메모하기 어려울 때나 감정을 공감할 때 또는 기록을 하려고 했으나 현장에서 기록을 할 수 없어서 지나친 상황일 때에는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한 후 다시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현장노트는 관찰 현장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쟁점화 될 수 있는 부분과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3) 부모교육 일지

부모교육 일지는 부모교육 과정에서 아버지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기가 끝나는 시기에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회기에서 다룬 내용, 소감, 다음 회기에 참고해야 할 부분, 과제 이행 유무 등을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함께 기록 하였다. 이러한 기록 과정을 연구 참여자들이 무척 부담스러워하여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선을 다하여 기록하도록 격려했다.

4)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의 저널

저널쓰기는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부모교육 현장을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하며(Walker, 1985) 감정과 사고 사이에 내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전문성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박은혜, 1996). 대부분 아버지들은 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글을 쓴다며 이 일을 힘들어 하였다. 저널 쓰기를 꺼려하여 처음에는 몇 줄이라도 기록하도록 하였고 개인당 2-4장 정도의 저널을 썼다. 또한 연구자도 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식하기 위하여 저널을 기록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저널은 아버지들과 면담을 할 때 도움이 되었다.

5) 기타자료

연구자는 부모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때 수업의 전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한 후 전사하였다. 또한 아버지들과 찍은 사진을 보며 회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그 외에도 아내에게 보낸 영상, 아내와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등의 자료들은 놓치고 지나간 행동과 감정을 분석 하는데 활용이 되었다.

이와 같이 소집단 부모교육 모임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부모교육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 녹화자료와 심층면담 내용을 전사한 자료이다. 또한 부모교육과정에서 작성한 부모교육일지, 부모교육과 캠프에 참여하여 참여관찰 기록을 한 약기노트, 부모교육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한 현장노트, 연구자의 저널, 참여자의 심경의 변화나 과거사, 아내에 대한 심경고백을 쓴 저널, 면담할 때에 부족한 부분이나 불참 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행하였던 전화상담 기록자료, 편지, 사진, 부모교육 활동지 등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수집된 자료

자료목록	수집된 자료
면담	아버지(개별면담 71회) 부부(집단면담 2회) 보조참여자: 어머니(집단면담 3회) 면담 녹음파일(2800분)
참여관찰 (부모교육)	현장노트 부모교육일지 약기노트
참여관찰 (가족 캠프)	약기 노트
녹화 (아버지, 어머니교육)	부모교육 동영상 녹화파일(1720분)
참여자의 저널	아버지 저널(23장) 연구자의 저널 1권
문서수집	부모교육 활동지 전화상담 기록자료 사진, 편지

4. 자료 분석

질적 연구에서의 분석은 문화적 이해에서의 주제를 찾는 것이며 자료에 입각하여 가설을 구성하는 과정이다(Bogdan & Taylor, 1975, 이정선: 1998 재인용). 본 연구자는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도 자료의 이해를 위해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런 활동으로 인해 더 파악해야 할 부분과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심층면담과 소집단 부모교육을 통해 얻은 전사 자료를 참여자의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의미 있는 단어, 사건, 상황, 행위를 중심으로 분류를 하였고 자료의 의미를 파악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구 문제에 따라서 아버지들의 양육에 대한 어려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고 부모교육자의 역할과 양육 참여에 대한 변화 양상을 틀에 따라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읽어가다가 대화, 행동패턴, 연구 참여자들의 사고방식 등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중심주제어를 중심으로 목록을 만들었다. 이런 과정에서 코딩 범주(coding categories)를 찾을 수 있었고 이들 코딩 범주는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좋은 수단이 되었다(Bogdan & Biklen, 2010). 연구자는 코딩 범주에 따라 대주제를 찾고 그 주제 밑에 일련번호를 매기면서 조직화하였다. 이때 약기 노트와 관찰노트에서 새로운 단어, 유형, 행동에 관계되는 번호를 써 넣어 주제를 추가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소주제 목록을 작성하였다. 모든 자료를 약호화된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였으며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범주 목록

대주제	소주제	의미
아버지의 어려움 (416)	과중한 책임감과 부정적인 자아상 (129)	어머니 역할 수행의 미숙함으로 인한 아버지의 과중한 책임감 (62)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한 세대 간 대물림에 대한 두려움(67)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함(121)	준비되지 않은 결혼으로 인한 아버지의 양육책임(41)
		친정에 대한 지원이 우선인 아내로 인한 마음고생(59)
		자녀의 요구를 이해 못하는 아내를 대신하는 어려움(21)
	부부간의 이해부재로 인한 어려움 (166)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해 부재(63)
		문화차이로 인한 이해 부재 (49)
		양육지식의 차이로 인한 이해 부재(21)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차이로 인한 이해 부재(23)
	자녀양육과 관련된 경제적인 어려움 (69)	양육비에 대한 걱정(52)
증가하는 교육비에 대한 염려 (17)		
부모교육자의 역할 (200)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내용구성하기(23)	
	소외되고 억압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하기(25)	
	베트남 이민자 가정에게 필요한 양육 지식 제공하기(32)	
	상호 감정교류를 통해 정서적으로 공감하기(24)	

	개별가정에 적합한 교육 제공과 역할 수행 돕기(86)	
	반복적인 격려와 정서적 지원하기(10)	
아버지들의 변화 (491)	자녀양육에의 능동적인 참여(79)	자신감 있게 아버지 역할하기 (41)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38)
	아내에 대한 이해와 지원(101)	아내에게 자녀양육 방법 알려 주기(42)
		친정에 대한 아내의 경제적 지원 이해하기(27)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부간의 갈등 완화 (146)	아내의 한국어 습득 독려하기 (32)
		아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23)
		상대방의 양육문화 이해하기 (61)
	자녀양육비 절감 방안 모색(42)	아내와 협력하여 양육에 참여 하기(29)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기(33)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협력 활용하기(22)

*()는 코딩수를 의미함

5.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방안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삼각측정법,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지도교수 및 동료 연구자의 조언, 자기반성적 사고 등 다각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Merriam, 1998).

1) 삼각측정법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집단 아버지 부모교육 과정과 다문화가정 여름 캠프에 본 연구자가 참여한 참여관찰, 부모교육 수업시간에 비디오를 설치하고 촬영한 녹화와 녹음자료, 부모교육 전, 후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자료를 전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현장의 상황을 잊지 않도록 기록한 현장노트, 연구 참여자들이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아버지와 연구자가 쓴 저널, 부모교육 일지, 수업모습이나 기념으로 찍은 사진 등 다양한 문서의 수집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여 범할 수 있는 판단 오류의 한계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2) 심층적이며 세부적인 묘사

본 연구자는 심층적이고 세밀한 묘사를 통해 설명해야 할 베트남 이민자 여성의 가정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들의 어려움과 변화 양상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층적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자는 심층적인 묘사를 위해 현장노트와 비디오 녹화를 활용하여 참여관찰이나 면담 때에 일어나는 사건 분위기나 아버지들의 감정의 변화에 대한 정보가 세심하게 드러

나도록 기술하였다.

3) 연구 참여자에 의한 자료의 검토

소집단 부모교육 과정에서의 면담과 참여관찰에서의 전사 자료를 주요 정보 제공자인 아버지 중 본 연구자와 상담과 면담을 많이 하고 교육에 적극적인 아버지 2명과 자료 검토를 하였다. 연구자가 면담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참여자와 함께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의 해석에 대한 왜곡을 피하려고 하였다.

4) 지도교수 및 동료 연구자들과의 조언과 지적

Huberman과 Miles(1994)에 의하면 연구가 연구자의 관점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전문가에게 보이고 타당도에 대한 검토를 받아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 및 동료 연구자 2인의 조언과 지적과 비평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 과정을 거침으로서 연구자가 갖는 고정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갖도록 노력 하였고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5) 연구자의 자기반성 과정

부모교육을 진행하면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사 자료를 반복하여 읽음으로 반성적 과정을 통하여 무의식적인 편견이나 주관적인 모습으로 의미를 단정 짓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베트남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집단 부모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부모교육자의 역할과 아버지들의 변화양상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베트남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심층면담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소집단 부모교육 과정에서의 부모교육자 역할과 아버지들의 변화양상을 자료를 통해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에 따라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이 겪는 어려움

영유아기의 자녀를 양육하는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이 겪는 어려움은 과중한 책임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한 어려움,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어려움, 부부간의 이해 부재로 인한 어려움, 자녀양육과 관련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1) 과중한 책임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한 어려움

(1) 어머니의 역할 수행의 미숙함으로 인한 아버지의 과중한 책임감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는 한국의 생활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녀양육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즉, 병원가기, 분유와 기저귀 고르기, 준비물 챙기기 등 어머니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부담감에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내가 많이 했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애 보고...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것 준비하구. 어떻게 애 키웠는지 알면 눈물 나요. 회사일 마치면 문방구 문은 다 닫았죠. 그러면 편의점에서 사서 보내고. 애 엄마가 나한테 안도와 준다고 해도 소소히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 하나가 다 일이죠. 남영이 어렸을 적에 기저귀도 다 내가 직접 사야 했다니깐. 한글을 모르니. 분유 뭘 살지, 기저귀 뭘 살지. 그런데 나도 뭘 알아야지요. 매번 뒤에(설명서) 보고 고르지요. 문화가 달라서 일회용 기저귀가 뭔지도 몰라요. 베트남으로 가면 애는 어떻게 해요? 가면 끝이구나 하는 생각... 내가 애를 혼자서 키운다는 것은 절대 안 되죠. 그래도 혹시 잘못(이혼) 될까 봐 눈치를 보는 편이죠. 그래서 성격을 많이 죽여요.

(남영 아버지. 2012. 6. 10)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아내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영아기 때 기저귀 고르는 것부터 자녀에게 필요한 준비물 구입까지 모두 아버지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힘겹게 아내를 도와주고 있었고 아내가 자녀양육이 버거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화가 나도 참는다며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다.

아주 힘들게 한 결혼이잖아요. 20쌍 합동결혼 중 제대로 사는 부부는 우리 포함하여 10가정 이에요.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애 엄마에게 밥 해라, 빨래해라, 애들 간식해라, 유치원 마치면 학원 보내라 그런 말 하나도 안 해요. 내가 다 해줘요. 식구들 잘 때 나갔다가 새벽시장이 아침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 내가 살림 거의 다 하다시피 했어요. 애 엄마 퇴근 전에 나는 혼자 밥 차려 먹고 일찍 자구. 나는 줄곧 혼자서라도 살림하라면 다 하겠어요. 나는 뭐 안 힘드나? 나는 열심히 헌신했다고 봐요. 그런데 당연하다

생각해요. 지금도 밥하고 다 하니까요...(중략)... 술로 달래고 있어요. 그런데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몸이 힘들어요.

(찬우 아버지. 2012 .6. 17)

찬우 아버지는 새벽시장에서 도매상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른 새벽에 출근을 하였다가 오전에 퇴근하여 집에 오면 찬우 어머니가 이미 출근한 이후여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였다. 찬우 아버지는 함께 합동결혼식을 한 20쌍 중 10쌍만 가족을 이루고 사는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현실에 위기감을 느끼고 결혼한 아내와 잘 살기 위해 가정일과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내의 행동에 대해 속상한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술로 풀고 있었다.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은 어렵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을 잘 영위하기 위하여 고된 바깥일을 하고 집에 와서도 가사일과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한이 키울 적에도 내가 많이 키웠어요. 아내는 할 줄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거기다가 잘 안되니 신경질만 부리고... 그래서 정말 내가 우리 한이를 데리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죠. 애 엄마는 어디 있냐고. 속도 모르고. 거의 다 내가 키웠어요...(중략)... 마트가기, 장보기, 예방접종하기, 우유타기...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면 기저귀 가는 속도, 우유 타는 방법? 뭐 이런 것만 조금 빨라졌다고 봐야 하나? 아무튼 애 엄마는 애를 잘 키우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봐요.

(한이 아버지. 2012. 4. 29)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이 모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의 아내들은 먼저 다른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과 함께 식판에 음식을 담고 와서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4명의 아버지들은 모두 자녀들과 함께 식판을 들고 자녀들을 옆에 앉히고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한이 아버지는 한이 여동생을 띠에 메고 한이를 데리고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연구자는 “어머니들에게 아이들 좀 맡기세요, 거의 식사를 다 하신 것

같은데요?”라고 힘들 것 같아 물어 보았더니 “놔주세요. 베트남에서는 식사 후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 해요. 잠시 베트남 사람들끼리 모여 한참 떠들어야 스트레스 날릴 것 아녜요?” 라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름캠프 참여관찰. 2012. 8. 2)

한이 아버지의 경우 아내가 평소에 자녀양육 하는 것을 힘들어 하였고 자녀의 문제행동이 생길 때마다 잘 해결 못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한이 아버지가 자녀를 많이 돌보고 있었다. 또한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하기 위해 참석한 캠프에서도 한이 아버지는 한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야기 떠를 매고 다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희 아버지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싶지만 퇴근 시간이 늦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있었다.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마트 가는 것, 이런 것 밖에 못해요. 집에 오면 12시, 1시. 애는 잠자는 모습만 보죠. 주말엔 좀 쉬고 싶지만 주말에 다해야 해요. 어떨 땐 스트레스예요. 의무적으로... 일주일 먹을 것 사줘야 애 엄마가 일하죠. 혼자 가는 것 어려워해요. 종희 이유식? 만들기? 못해요. 우리 종희 밥(이유식)을 얻어먹으려나. 책 줘도 못하죠. 내가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워야 할지... 그게 참 걱정이예요. (종희 아버지. 2012. 6. 24)

이처럼 베트남 이민자가정에서 아버지들은 한국문화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베트남 아내가 자녀양육을 감당하지 못하여 일반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와는 달리 어머니의 역할까지도 감당해야 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2)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한 세대 간 대물림에 대한 두려움

부모교육에 참여한 대부분 아버지들은 어린 시절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성장 배경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국제결혼을 하기 전에 한국여성들과 맞선들을 보면서 결혼 조건이나 외모, 학력 또는 경제력 부족으로 인해 결혼 배우자로 선택되지 못하였다는 좌절감을 겪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을 가진 아버지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과 분노로 인해 자녀양육 과정에서 갈등을 나타냈고 자녀에게도 반복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애 엄마가 생각하기엔... (나랑)안 맞지. 애들이 아빠 닮을까 걱정이 된다 구 해요. 애들이 날 조금이라도 닮은 느낌이 들면 화가 난다니까. 막 두들겨 뺐어요. 나도... 내가 싫거든... 내 인생 내놓을게 뭐가 있습니까? 내 대에서 끝나길 바라는데... 이어질까봐... 내가 애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해요. ...(중략)... 뭐든 노력 하려고 해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항상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좋게 생각해야 하는데... 어디 가서 맡은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 것은 없고... 잘 난 것도 없고, 키도 짤막 하구, 말발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 했죠, 안 그래요?
(찬우 아버지. 2012. 4. 6)

마음속에 억압이 눌러 있어서 저는 확실하게 놀지도 못하고 만날 뒤에서 조용히 있었다니까요. 기타도 치고 싶었고, 공부도 하고 싶었지만 못했고, 가난해서 일 하려고. 고등학교 까지 밖에 못 다녔고, 상고지요. 대학도 가고 싶었지만. 안 되고. 그래서 놀리는 게 많아요. 내 맘속엔. 아버지가 무서워서... 왜 그랬는지 몰라도 항상 맘속에 억압된 맘이 있어요. 부정적 생각이 많아요. 뭐든지 안 돼, 공부도 안 돼, 일도 안 돼, 결혼도 안 돼, 부모도 안 돼, 이런 감정 등이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지는 삶, 그러니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나 잘하겠어요? 내 인생이 그래요. (한이 아버지. 2012. 6. 17)

위의 사례들에서 본 바와 같이 베트남 이민자 여성과 결혼한 아버지들은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내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 자녀가 본인을 닮은 행동을 보일 때에는 체벌을 하였다. 아버지들은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였지만 거듭된 실패를 경험한 이후 지금의 본인의 외모와 말투, 그리고 행동 등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한이 아버지는 과거에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많은 경험들 때문에 아버지 역할도 역시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

우리 수영이는 아직 말 한마디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나처럼 그러지 않겠죠?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계속 단어를 알려 주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데 글썽요 반...반응이 없네요. 아침, 저녁으로 주신 책을 계속 읽어 주는데 아직은 관심조...조차 없어요 수영이도 발음이 안...안 좋은가? 나처럼? 그래도 선생님 시키는 대로 계속하려고요. 나처럼은 살지 말...말아야지요 나는 인생의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사람이지만, 난 밀려난 인생이 싫어요? 우리 와이프도 못 가르쳐요. 우리 수영이는 그러지 않기를 바...바라야지...

(수영 아버지, 2012. 6 .17)

수영 아버지는 어렸을 적에 심한 열병을 앓고 난 뒤 말을 더듬고, 발음이 부정확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심경을 어렵게 드러냈다. 성인이 되어 15년간 짝사랑을 한 여성에게 말 한마디 건네 보지 못했고, 한국여성과 여러 번 맞선을 보았으나 계속 실패를 하였던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수영아버지는 6회기 부모교육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 하였다. 그리고 남에게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언어장애를 가진 수영 아버지는 자녀의 언어 사용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자녀가 본인과 같이 부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 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고 자녀가 대인관계에서 자신감 있게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는 건강한 자녀가 되기

를 바라고 있었다.

다음 사례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배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던 행동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상 좋지 않은 행동들로 다시 자녀에게 반복하게 될 것을 염려한 내용들이다.

나는 아버지처럼 술을 안 먹겠다.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그런데 닭아 가는 거야... 아버지보다 더 먹으려 그래... 내가 속상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들도 이렇게 산다면... 우리 아들은 절대 안 되지.

(호승 아버지. 2012. 4. 2)

저는 전처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두 딸도 저와 같이 될까봐... 이제야 걱정이 된다니까요. 이혼하는 것을 다 본 애들 이에요. 전 그땐 정말 사람같이 살지 않았어요. 다행히 애들이 큰 문제없이 컸지만... 나 같은 남자를 만나고... 또 이런 관계를 배우게 될까봐. 걱정이 되요.

(종희 아버지. 2012. 6. 17)

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아요. 아버지와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는 술을 3일에 한 번씩 먹고 길바닥에서 쓰러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적에 굉장히 소심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중적인 성격도 생겼어요. 친구들이나 선생님겐 미소를 짓고 집에서는 안 그러고. 이게 중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희망사항을 얘기하면 적을 것이 없었어요. 어른이 안 되고 싶었거든요. 내가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본 게 고작 그건데. 어른이 되어도 성격 같은 내면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문제가 봉착하면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내 마음속에는 항상 글썽... 내가 아버지 역할을 과연 잘할까?

(한이 아버지. 2012. 4. 2)

내 애만큼은 나보다 잘 살아야지요. 내 새끼들에게 내 삶이 나와 똑같이

이러지면 어쩌나? 내 새끼, 손가락질 당하면 어쩌나? 나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중략)... 나도 그 중에 속하잖아요.

(영화 아버지. 2012. 4. 22)

이처럼 아버지들은 자신의 부모에게서 보아온 좋지 못한 습성들에 대해 자신이 많이 닮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녀에게 아버지의 좋지 않은 롤 모델이 그대로 대물림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과 함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는 어려움

(1) 준비되지 않은 결혼으로 인한 아버지의 양육 책임

부모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어머니로써 자녀양육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내들은 대부분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와서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임신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아내들은 재혼과 이혼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였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녀양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가 감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낮엔 애 엄마가 귀찮아하고, 잠만 자고, 애 우유도 안 먹이는 거예요. 걱정 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이 엄마를 대신해서 키워 준 거예요. 거의 원장님과 나하고 연락해서 키운 거지요. 이것 필요하다면 사다주고... 이 리 뛰고 저리 뛰고 했어요. 딸 같은 아내. 한국 와서 경험도 없기 때문에 아

내도 딸. 내가 두 딸을 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애 다시는 안 낳아요. 딸 하나로 족해. 그 당시 정말로 힘들었어요. (남영 아버지. 2012. 6. 10)

남영 아버지보다 27살 어린 남영 어머니는 양육에 소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남영 아버지는 궁여지책으로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원장에게 남영이를 전적으로 키워 달라며 맡겼다고 하였다. 남영 아버지는 원장이 예방접종에서부터 글씨교육까지 알아서 대리양육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였다. 또한 아버지는 남영이가 한국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이 맡아 키워준 것에 대하여 고마워하며 오히려 엄마가 교육을 했더라면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영 아버지는 나이 어린 아내의 소극적인 자녀양육 태도를 이해하려고 하였지만 실제로 자녀를 양육할 때는 힘들고 버거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특하면 베트남 가야겠다고 하고. (아내가) 24살이었지. 아내가 매일 떼졌어요. 철이 드니까 아니 자기 집이 좀 사니까. 안정되니까 조금 나에게도 이득이 오는 거야. 그 때는 애 놔두고 놀러 나가면 저녁 늦게 올 때는 보통이야. 그러다가 더해져 하루, 이틀 언니 집에서 자고 왔다가. 애 놔두고 그럴 수 있나요? 젓먹이를 놔두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땐 정말 황당했지요.

(남영 아버지. 2012. 6. 10)

한 번 낮잠을 자면 한 3-4시간은 죽히 자요. 애기 분유 줄 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애기는 배가 고파 죽는다고 우는데 애 엄마는 그래도 난 몰라라 계속 자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지요. 모른 척. 한두 번 피곤해서 그런다면 이해하는데 여러 번... 뭐 거의 이런 모습을 보니 한심하더라고요.

(한이 아버지. 2012. 6. 17)

남영이 가정의 사례와 같이 남영 어머니는 영아기의 자녀를 놔두고 장시간 외출을 하는 등의 행동이 더욱 심해져 심지어는 며칠씩 외박을 하는 경우도 있

었다. 이러한 아내의 모습에 대해 남영아버지는 황당해 하였다. 더군다나 아내가 마음이 상할 때면 자주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채근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철이 없기 때문’이라며 마음을 달랬다고 하였다. 또한 한이 아버지는 아내가 자녀 분유먹이는 시간이 지나도록 낮잠을 자며 아이의 울음에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이민자 여성들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첫 자녀를 출산을 하였기 때문에 애착 형성이 중요한 영유아기 자녀를 돌보는 시기에 자녀 돌봄과 양육을 버거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내의 태도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대신해서 양육을 감당해야 하므로 자녀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 여성들에게 임신,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친정에 대한 지원이 우선인 아내로 인한 마음고생

베트남 이주여성들의 대부분은 친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국남자와 결혼하였다고 결혼 동기를 밝혔으며 남편이 친정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남편이 경제적 지원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아내가 취업을 하려 하였고 이에 대해 아내가 양육보다 취업하는데 더 적극적이라고 남편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에 엄마가 공장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언니가 소개 해 줬다고 했는데, 어느 날 에 엄마가 얘기 생겼다고... 그런데 얘기 못넣으니 지금은 지워야겠다는 거예요. 공장에 들어간 지 한 달 되었는데 얘기 넣으면 안 된다고. 큰애도 어린이집 보내고 퇴근 시간이 늦어 혼자 한 시간 정도 혼자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맘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무조건 낳아라 했어요. 무척 싸웠어요. (한이 아버지, 2012. 8. 5)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 82세였어요. 제가 외아들인데 아들이 장가를 못가네. 노인네가 외국 색시라도 괜찮다고 해서 돈을 처가에 많이 주고 결혼했지. 그런데 결혼하면 당연히 애 엄마 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 그런데 애 엄마는 딴 생각만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연락해서 일자리 알선하구 취직하러구... 애 안 낳으려 했다니깐. 그러다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경사예요? 그런데 애 엄마는 매일 울었다니까요. 황당하죠. 이유는 말이 안 통하니 모르겠지만 취직해서 돈 벌려 했던 거예요. 나 참... 내가 못할 것 한 것 같았어요. 애 낳자마자 두 달 만에 취직했어요. 내가 애 다 봤지요.

(영화 아버지. 2012. 7. 15)

한이 어머니처럼 임신하면 일을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본국에 송금을 하기 위하여 임신을 미루고 계속하여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아버지들은 늦게 한 결혼이기 때문에 남들처럼 어엿한 가족을 갖고 싶어 하였다. 영화 아버지는 처가에 충분히 지참금을 지불했다고 생각하였고 아내와 빨리 가정을 꾸리기 위해 자녀를 낳아 양육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자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컸지만 이와 달리 아내가 임신한 것에 대해 매우 속상해 하며 며칠 동안 우는 모습에 실망하였다고 말하였다. 한편, 늦은 나이에 결혼한 남영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를 낳아준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현으로 베트남 처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였지만 끊임없는 지원 요구에 한편으로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호소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이 나이가 많아요. 나이 먹어서 애를 낳으니 애가 너무 예쁜 거야. 노총각이 애를 나니 시어머니도 그렇고 집안이 모두 예뻐한단 말이야. 그러니 아내가 예쁘지. 아이만 잘 키워 주면 되는데. 무슨 직장이야. 나가지 말구. 나가면 좋을 게 뭐있어? 난 못나가게 했어요. 할 수 없이 내가 돈 보내 준다고 했지만, 처가에게 뭐든지 다 해주는 내가 봉이야.

(남영 아버지. 2012. 6 .10)

여기 와서 친정어머니가 아프다고 돈 부쳐주고… 또 동생이 대학 간다고 돈 부쳐주고… 나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은 남동생 대학 간다고 돈 부쳐주고 처남이 졸업해서 은행에 취직 했어요. 여동생은 미용 학원 다닌다고 해서 여기서 1년 다녔어요. 이번엔 장가간다고 오라는데 아마 거기 가면 또 돈 줘야 될 거야. 그러니까 장모가 내가 제일 예쁘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애기엄마가 나랑 안 다니려고 하는데… 나 늙었다고… 나랑 27살 차이나요.

(남영 아버지. 2012. 5. 16)

이처럼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본국에 송금하기 위해 취직을 원하고 있었으며 나이가 어린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빨리 직장에 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남영 아버지처럼 어머니가 취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경우, 베트남 처가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아버지가 부담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3) 자녀의 요구를 이해 못하는 아내를 대신하는 어려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은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할 때,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아이에게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아내가 자녀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경험할 때는 답답하다고 하였다.

감정 표현을 하는데 엄마가 그것을 잘 받아줄 줄 몰라요. 우리 가족, 우리 엄마에게 표현을 하면 오냐, 예쁘다, 그런 말을 해야 하는데 그냥 예쁘니까 웃죠. 노래도 배운 것을 부르는데 가족 중에 아무도 그것을 따라서 불러줄 사람이 없는 것이 슬퍼요. 아이가 가사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혼자 흥얼거려요. 안됐죠 뭐(눈물이 글썽하다). 그럴 때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는데 받아 줄 사람이 없어요. 엄마도, 장모님도…

(한이 아버지. 2012. 5. 16)

애가 어렸을 때 일인데 뭘 요구하는지 엄…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이 엄마가 잘 몰랐던 거예요. 애랑 말이 안 통하니까 애도 답답하지. 애는 계…계속 뭐라 하는데 엄마는 탄소리 하니까…애가 며칠을 즐겼더라고요. 아이 엄마가 화딱지 나서 조르니까, 뻘어요. 저녁에 보니 애가 맞아서 울었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잘 들…들어보니 원하는 것이 있었던 거야. 며칠을 얼마나 애가 애간장이 다 탔는지… 말하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나도 속상해서 울었다니까요.

(영화 아버지. 2012. 5. 27)

한이는 아버지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편이라 한국말을 제법 잘하였다. 어린이집에 다녀온 후에 친구들과 지냈던 일들을 가족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그러나 한이 아버지는 아내와 장모가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기 때문에 한이가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를 불러도 칭찬과 격려를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속상해 하였다. 한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한국어로 칭찬과 격려를 하여야만 자녀와 정서적인 교감이 된다고 생각하여 한국어로 반응하지 못하는 장모와 아내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영화 아버지의 사례의 경우에는 영화는 엄마에게 며칠 동안 필요한 것을 요구하였지만 어머니는 아이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때를 쓴다고 생각하여서 혼을 내기도 하였다

종희 엄마는 (아이한테) 혼을 잘 안 내요. 왜냐하면 베트남 말로 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한국말로 혼내고 이해시키는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을 묵살하고 그냥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종희 엄마가 한국말로 ‘안 돼’ ‘뻘!’ ‘하지 마’ 이런 말 만 할 수 있거든요 계속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것만 계속해요. 이것은 왜 안 되는 것을 얘기하기에 (한국말) 잘 못 하니까, 아예 못해요.

(종희 아버지. 2012. 7 .15)

종희 어머니는 베트남에서 이혼을 하고 종희 아버지와 결혼을 하였다. 베트남에서 12살 된 아들을 친정어머니가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키워 본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종희 어머니는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훈계해 주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모국어인 베트남어를 사용하면 자녀의 한국어 습득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자녀에게 잘못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는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돼”라는 부정적인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다. 종희 아버지는 엄마가 아이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안 돼”라고 무조건적으로 반복하여 제지를 하다 보니 자녀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걱정을 하였다. 또한 어머니는 다른 아이들과 놀이를 할 경우에도 자기 자녀나 다른 아이의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보고 꼭 참고 있다가도 화를 억누를 수 없을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베트남어가 튀어 나오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의아하게 쳐다보기 때문에 창피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이를 안고 피하듯이 나오게 되는 일을 여러 번 겪으니 항상 자녀의 요구와 문제 행동에 대해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리 애는 항상 저에게 뭐든지 해 달라고 와요. 나도 방법은 쉬...쉬운 것만 알고 모르지요. 그런데 엄마에겐 아...아예 같 생각도 안하구요. 애들도 엄마가 모른다는 사...사실을 아는가 봐요. 쉬운 거 말고는... 그 정도 단계까진 갔어요. 엄마의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게 걱...걱정 되더라고요

(수영 아버지, 2012. 6. 10)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영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아버지에게 요청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수영 아버지는 아내에게 자녀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러 번 설명을 시도했지만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중도에 그만두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 베트남 이민자 여성들은 자녀와의 문제 상황을 한국어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는 단어로만 대화를 하다 보니 한국어에 미숙한 어머니들은 계속하여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 밖에 없었다.

베트남 이민자가정에서는 어머니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로도 자녀와 충분히 상호작용하여 자녀가 이중언어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남편이나 시모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한국어를 잘 몰라서 아이들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와 소통하기 어려웠고 또한 자녀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자녀는 한국어에 미숙한 어머니를 배제하고 아버지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통한 양육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바깥 일로 인해 시간을 낼 수 없고 또한 양육방법을 잘 몰라서 적절하게 반응을 해 주지 못함을 안타까와 하였다.

3) 부부간의 이해 부재로 인한 어려움

(1)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해 부재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자녀들은 일반가정의 자녀들보다 가정에서 일차적으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베트남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한 뒤 베트남을 떠나기 전에 결혼 중개업소에서 알려진 기본적인 한국어를 배운 것이 전부이었기 때문에 한국어에 미숙하였다. 본 연구자가 어머니와 면담을 할 때에도 어머니가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한국어 부족으로 인해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취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자녀양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를 아버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말)잘 못 하니깐 아예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 애는 이게 뭔지, 저게 옳은 건지 잘 몰라요. 애에게 설명 해주라 해도 못해요. 매일 이런 걸로 다투고, 애 엄마는 당연히 해야 하잖아요. 화내면 애 엄마는 울고 난리죠. (남영 아버지. 2012. 6. 24)

엄마는 말이 잘 안되니까 자세히는 못...못 고쳐주거든. 엄마에게 달려가면 자세히 이유를 모르니까 그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아요. 가르치는 방법을 잘 몰라. 안돼요. 이... 이놈 이런 말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황을 이해해서 혼내지 않으면 버릇이 많이 없어질 거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좀 엄해야겠다는 생각에 혼내다 보니까 막 감 감정이 앞서가요. 화...화가 나서 엄청 혼내지... 그러다 보면 수영 엄마랑 싸우는 거예요. 왜 수영이 울리냐구... 막 답답해요. 나도 이해 못...못해요. (수영 아버지. 2012. 6. 3)

베트남 어머니는 자녀의 문제행동이 생길 때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여 자녀에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어려움으로 남영 어머니는 때를 쓰는 자녀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당황해 하고 있었으며 남영 아버지 또한 자녀의 행동에 대처하는 아내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이해해 주지 못하고 화를 표출하고 있었다. 비슷한 사례로 수영 아버지도 아내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가 버릇이 없어질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녀에게 격한 감정을 분출하고 아내에게도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처럼 어머니들은 모국어인 베트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한국어로만 상호작용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자녀와의 충분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제결혼을 한 이민자가정에서의 한국어 역량은 그들의 한국생활 적응은 물론 자녀교육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어머니들에게 한국 아버지들은 어머니의 모국어를 통해서도 자녀와 충분히 상

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배려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사실 우리가 서로 애 때문에 싸운 것은 알아요. 그러나 자세히는 모른 거지요 우리가 깊은 얘기는 나누어 보진 못했죠.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애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는지 애에 대해서 어떤 말에 기분 나빴는지.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고, 매일 똑같은 말만 하니. 애 엄마도 그렇게 감으로 화났으니까. 나도 그러려니. 예라 모르겠다. 뭐 체념하며 산다고 봐야죠.

(한이 아버지. 2012. 5. 6)

속 깊은 얘기를 자주 해야 나도 느끼는데. 뭐 해야지 하면서 깊은 얘긴 아예 안하죠. 여태 못하니 화나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마음에 앙금이 많은 것 같아요.

(중희 아버지. 2012. 5. 16)

부부간에 상호 의사소통이 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서로 관계를 증진하며 오해를 푸는데 의사소통이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문제로 부부간에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가정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오해가 풀리지만,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의 경우 아내가 외국인이고 한국에 와서도 한이 어머니처럼 매일 직장에 나가서 사용하는 한국어는 극히 한정된 언어를 사용한 다. 그러한 이유로 아버지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와 오해를 풀지 못하고 마음에 앙금이 많이 남아있는 어려움이 있으며 아버지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동안 급여가 밀려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모든 돈이 끊길 판이었어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애교육비, 식대 계산하면 마이너스 통장만 쌓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혼자서 감당했고. 너무 힘들어 죽음도 생각했죠. 혼자서 안정된 느낌을 찾으려 노력했고 제 스스로가 마음

의 평정을 찾아요.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달래곤 했어요. 남도 안 그래요. 아내와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노력을 안 하는 모습이 화가 나더라고요. 서로의 아픔을. 의사소통이 잘된다면 서로가 위로해 주고 내 아픔을 아내가 공감해 주며 위로 해 주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 단계까지는 기대하지 말아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계가 있으니까요. (영화 아버지. 2012. 4. 16)

부부싸움하고 나서 느끼는 건 항상 느끼는 건 아이가 우리 부부의 끈이 예요. 아이가 어떻게 되면 우리 부부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말도 안통하고. (한이 아버지. 2012. 5. 16)

위의 두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부부가 서로 위로하고 진솔한 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여서 부부사이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영화 아버지는 자신이 힘들 때 아내가 대화 상대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초급 수준의 한국어 사용은 일상생활에서 서로 간의 간단한 대화로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아내와의 정서적 공감을 하거나 서로의 문제에 대해 깊은 대화를 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부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어나 베트남어로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부부들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이해와 존중하는 마음을 비언어적인 방법으로도 표현함으로써 동반자적인 삶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부간에 서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문화 차이로 인한 이해 부재

부모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베트남에서 온 아내와 문화, 환경, 가치관이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대하여 갈등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정에서는 서로 다른 생활 습관과 문화로 인해 자녀양육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어머니들은 베트남에서 배우고 본 자녀양육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려 하고, 남편은 한국의 방식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양육방식을 고집하였다.

에 낳고 산모 도우미를 받았어요. 사실 도우미에게 맡기면 되는데 아기 목욕시키는 것, 산모 몸조리 모두 안 맡기는 거예요. 미역국도 안 먹고… 끼임을 만들어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나라 식으로 키우고 싶어 하고 우리 식을 안 믿는 거예요. (한이 아버지. 2012. 4. 22)

한이 어머니는 둘째를 낳았기 때문에 ‘출산 후 방문도우미’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남편은 아기 돌보는 방법과 베트남 출산문화에 따라 산후의 산모 음식을 요청하는 아내의 요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였다. 한이 아버지는 아내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아내에게만 한국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기를 바라면서 갈등하였다.

애가 땀띠가 나서 짓물러서 별경게 성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애 엄마는 걱정도 안 해요. 워낙 그곳은 병이 나면 그냥 치유될 것이라 생각해요. 여긴 어디 그래요? 애가 그 정도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저절로 낫는다고 생각해요. (중희 아버지. 2012. 6. 17)

베트남에선 할머니가 애기 다 봐 준다고 어머니가 애 봐 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해요. 찬이 엄마가 나가서 늦게 들어오더라도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 갖더라고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애 돌보느라 힘들었다고… 어깨 아프다고… 찬이가 튼튼해서 업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한마디 안 해요. 고마운 것 아네요? (찬이 아버지. 2012. 6. 24)

또한 중희 아버지도 어머니와 양육문화가 달라 부부갈등을 경험하였다. 중희

어머니는 땀띠는 저절로 자연치유 될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남편은 아이의 피부가 벗겨질 정도면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된다며 서로 다른 양육 방법의 차이를 나타냈다. 찬이 아버지의 경우 베트남에서 자녀 육아는 주로 집안의 조모가 맡아서 하는 것을 당연히 하는 양육문화에 익숙한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 이들 부부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과 혼란을 겪었다.

에 엄마보고 베트남식 이유식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조건 한국식으로 해야 한다고... 이 애는 한국 애잖아요. 그래서 그 책(베트남 이유식책)을 몰래 감춰서...(웃음) 그랬더니 한참 찾더라고요. 그런데 안 썼어.

(호승 아버지. 2012. 6. 3)

이유식을 집에서 하는데 그 국물은 꼭 닭고기 국물이나 뼈 국물로 해요. 뼈만 고아 먹여요. 어머니가 어리니까 좀 크면 먹이라고 해도... 아내의 말이 툰도 높고 하니깐, 꼭 화내면서 말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애는 말만하면 성질난다고 하고 와이프는 자기 딸에게 먹이는 건데... 베트남에서는 괜찮은 건데 어머니는 그런다구 하고... 그렇게 하니깐 기분 나빠하고. 베트남에선 애기에게 주어도 괜찮다고... 우겨요.

(종희 아버지. 2012. 4. 22)

한편 호승 아버지의 경우, 호승 어머니는 이유식을 제공할 때 베트남에서 가져온 책에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반면에 호승아버지는 호승이가 태어난 곳이 한국이고 한국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의 음식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에 아내의 행동이 못마땅하여 베트남 이유식 책을 감춰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항상 뼈 국물로 이유식 만드는 것에 대해 불만인 조모와 종희 아버지에게 종희 어머니는 베트남에서 일반적인 이유식을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나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종희 아버지는 종희 어머니가 조모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은 각기 다른 나라의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고 만난 부부이기 때문에 올바른 양육을 위하여 서로 다른 상대방 문화 이해를 통해 상호의 노력이 필요하다.

(3) 양육 지식 차이로 인한 이해 부재

앞서 살펴보았듯이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부부는 문화 차이로 인해 자녀양육에 있어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고, 남편과 아내간의 양육 지식의 차이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이 엄마는 개념이 없어요. 짜면 찐다고 막 혼내고... 때리고. 언젠가는 한이가 오줌 싸다고 발가벗겨서 집 밖에 나가라고 해서 애가 문 앞에 울고 있더라고요 퇴근하고 오다가 봤는데 얼마나 화딱지가 나던지... 내가 예뻐 해주면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니 애가 더 오줌 싸지. 물어보면 그냥 안 싸다고 엉덩이를 감춰요. (한이 아버지. 2012. 5. 6)

아이에게 00치킨을 거의 매일 튀겨주는데.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만 해주면 애들은 최고예요. 애 엄마도 그런 것은 베트남에 없으니까 정말로 잘 사요. 마트에 가면 꼭 사요. 매일 먹이죠. 먹이면 똥똥해진다고 해도 말 안 들어요.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조금함을 느껴요.

(찬우 아버지. 2012. 6. 24)

위의 한이 아버지 경우, 아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아내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속상해 하였다. 얼마 전까지도 한이는 배변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쌍둥이 동생이 태어나자 유뇨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또한 아기가 되고 싶다고 동생 우유병에 우유를 넣어 마시며 퇴행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이 아버지는 한이의 행동에 대해 연구자에게 상담을 하였고 지도 방법을 알고 난 뒤, 어머니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한이

가 바지에 오줌 싼 행동에 대해 계속 혼내면서 갈등을 일으켰다. 심지어는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서 옷을 벗겨 문 앞에 세워두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체벌하는 모습에 양육방법을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에 대해 무척 답답해하였다. 또한 찬우 어머니는 자녀의 간식으로 인스턴트 음식을 튀겨 먹이는 것을 즐겨하였다. 찬우 아버지는 이런 음식은 비만을 부르는 식품이므로 만류하였지만 아내는 이해하지 못하고 베트남에서 냉동식품은 귀한 음식이므로 자식들에게 매일 먹이고 싶어 하였다. 다음은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양육 지식으로 인해 어머니들이 이해 못하는 사례들이다.

이유식? 뭐 특별한 것 있어요? 내가 자랄 때는 우리 어머니가 밥을 씹어서 주는 것 먹고 그냥 저절로 자랐어요. 그래도 배탈 한번 안 나고 자랐는데... 무슨 요즘 엄마들 너무 난리들이야. 와이프도 내가 그렇게 주려하면 더럽다고 기겁해요. 이유식을 꼭 만들어 먹어야 한다고? 그냥 놔둬도 다 잘 자랐지 않았어요? (중희 아버지, 2012. 7. 22)

아이들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보면 정말로 성질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말로 해도 안 될 때에는 욕박지를 수밖에 없어요. 찬우 엄마는 난리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 잘 먹히잖아요. 저는 욕박지르는 게 저의 방법이에요. 그러다보면 애 엄마랑 2차로 붙죠. 나도 어렸을 적에 매 맞고 컸어요. 그것도 야구 뺏다로. 직방 이에요. (찬우 아버지, 2012. 6. 17)

한편, 이런 비슷한 양상은 한국 아버지의 경우에서도 나타났다. 중희 아버지는 어렸을 적에 조모가 밥을 씹어서 이유식을 대신하였던 것을 회상하며 그 당시에 자신이 그렇게 자랐다는 생각에 요즘 어머니들이 특별하게 이유식을 만드는 방법이나 육아 방식에 대하여 극성스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하였다. 중희도 그런 방법으로 키워도 별 탈 없이 잘 클 것이기 때문에 시도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중희 어머니는 중희 아버지가 경험하였던 이유식 방식은 불결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부하였다. 또한 찬우 아버지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매 맞고 체벌을 받았던 경험으로 인해 체벌이 말을 잘 듣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양육지식의 차이로 갖게 되는 갈등 경험은 베트남 이민자가정 부부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해결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4)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이해 부재

베트남 이민자인 아내는 모국어로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주로 베트남 친구들과 만나면서 한국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언어소통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들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였으면 자라나는 2세를 위해서도 아내가 한국어 습득에 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인 남편들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베트남 사람들끼리 만나려는 아내와 갈등을 나타내고 있었다. 베트남 모임에서는 아내들이 모국어만 사용하므로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안 되며 더군다나 한국인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행동에 대해 더욱 우려하였다.

어제도 베트남 모임에 갔다가 밤 11시 넘어 들어왔어요. 애 엄마가... 이렇게 매일 자기들끼리만 만나. 그러지 말라도 안 고쳐져요. 미치겠다니까요.

(남영 아버지, 2012. 5. 13)

베트남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그들만 만나요. 베트남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한국말도 안 늘고 집에만 들어오면 다른 사람과 비교 되는지 “아빠 싫어” 라며 자꾸 신경질만 부리고 특히 애들에게 짜증내는 모습을 여러 번 보니 치밀었어요.

(한이 아버지, 2012. 6. 17)

한이 아버지의 경우에 베트남 사람들과 만난 후 집에 와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내를 보고 이런 행동은 다른 가정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일 것이라는 생각에 베트남 모임은 아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런 모임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자녀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투영되는 것을 걱정하였다. 언어와 문화가 낯선 지역으로의 이주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으로 이주해 온 베트남 이민자들은 언어의 장벽과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모임에는 안 간다니까요. 가자고 해도 잘...잘 안가요. 왜?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고역이거든요. 그래도 남편과 함께 참...참석할 곳은 가야지요. 매일 자...자기들끼리만 만나면 되겠어요?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수영 아버지. 2012. 6. 17)

에 엄마 보고 애들 말기고 문화센터에 가서 한국강좌 좀 들어라 해도. 엄마들 좀 사귀라고 해도...에 백일만 지나고...에 돌만 지나고. 이렇게 미루니...그러다 보니 한이 다 컸어요. 그런데 둘째 때도 또 그러네. 아무도 안 만나려 해요. (한이 아버지. 2012. 7. 22)

아버지들은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하여 친분관계를 맺기를 꺼려하는 아내의 행동에 대해 속상해 하였다. 아버지들은 한국인들 모임에 가기를 꺼려하며 한국인들과 관계 형성을 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아내의 태도가 한국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였다.

반면에 위와는 달리 호승어머니가 한국 어머니들과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 엄마들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아이들 유치원 끝나고 나이 비슷한 엄마들이 같이 카페에 가게 되었나 봐요. 카페에 가서 유치원 엄마들과 친구 하려고 일부러 따라 갔데요. 좀 끼워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다음 모임 때가 되도 연락이 없어서 계속 기다리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엄마에게 전화 했어요. 알고 보니 그 엄마들이 자기들만 만나고 애 엄마한테는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참...그래서 내가 만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 우리는 다문화사람들 끼리만 만나라는 것 아네요?. 애 엄마는 그래도 해야 한데요. 역시 교육은 힘들고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은 더 힘든 것 같아요.

(호승 아버지. 2012. 7. 15)

호승 어머니의 경우 자녀 일에 적극적이며 한국말도 제법 잘 구사하여서 이웃에 사는 유아교육기관의 자녀들과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과 교류하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비슷한 연령의 아이를 양육하는 학부모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였으나 차별적인 일부 한국 어머니들의 태도가 오히려 활발히 교류하고자 하는 이주여성 어머니들의 욕구를 어렵게 한다고 속상해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어머니들은 주로 베트남 출신이나 다른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으며 한국 어머니들과의 교류는 사실상 없다고 하였다. 이런 소극적인 베트남 이민자 어머니의 태도와 함께 한국 어머니들의 편견이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 어머니들의 사회관계를 협소하게 만들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교육정보나 유용한 학습정보의 접근을 통제하는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이민자 어머니들과 한국어머니들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4) 자녀양육과 관련된 경제적인 어려움

(1) 양육비에 대한 걱정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부들은 거의 맞벌이를 하는데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기 보다는 일용직이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아내 수입의 많은 분량을 본국 친정집으로 송금해야 하고 또한 가계소득도 낮아 생활비와 양육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을 힘들어 하고 있었고, 최저생활 수준조차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이건 아이 하나 키우기도 너무 힘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방접종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본(접종)말고 나머지는 우리보고 내라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은데 병 걸려 죽으면 부모가 돈 없어 예방접종 못해서 죽인 거죠. 우리야 버는 게 뻘해요. 버스를 안타려 일찍 일어나서 웬만하면 걸어요. 돈 아끼려고, 우린 무식하고 뻘없고.

(한이 아버지. 2012. 5. 6)

책을 아이에게 맞춰 사주는 것도 돈도 많이 들어서 사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책값이 조그만 게 7000원, 8000원, 10000원, 12000원이 훌쩍 넘어서 사기에 너무 비싸서 정말 아이에게 사주기에 너무 벅차요.

(종희 아버지. 2012. 5. 6)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나름대로 아끼려고 노력하였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걱정하였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지만 여느 한국 부모들처럼 자녀를 잘 키워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희망하며 어렵게 사교육의 일부에 참여하고 있었다.

한국 엄마들은 사교육 사교육하면서 이것저것, 피아노, 태권도, 수영... 뭐 이런 잡다한 것 죄다 시키더라고요. 우리 집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딱한 개. 000 한 가지만 시켜요. 왜냐하면 한글공부가 중요하잖아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급해요. 그래서 맡겨요. 우리 다문화가정의 유행이야.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그것만 간신히 시켜요. 태권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조금 크면 시켜야지. 나는 뭐 안 시키고 싶겠어요? 잘 키우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은 거기까지예요. (남영 아버지. 2012. 5. 6)

애 엄마가 일하고 오면 8시가 넘으니까 어린이집 마치고 저녁에 피아노학원을 보내요. 원장님이 소개해 준 곳인데 5만원만 더 내면 한 시간, 어떨 때는 애 엄마가 올 때까지 치라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다니까. 나도 밤샘근무를 신청 하고요. 그러니 애가 갈 곳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혼자 두 달 놔뒀더니 애가 싫다고 난리 났었어요. 애 엄마가 일 하면 과외를 더 시킬 수 있어요. 아이를 좀 더 맡기면 엄마가 그 시간 일할 수 있잖아요.

(찬우 아버지. 2012. 7. 22)

아버지들은 한국의 어머니들처럼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정보도 다양하게 접하지 못하고 비싼 사교육비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시킬 수 없다고 속상해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정확한 정보 없이 사교육을 시키고 있었으며 어머니 부재 시에 가정의 보육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사교육 시간을 연장하기도 하였다.

영화요? 영화는 무슨. 영화비도 꽤 비싸던데요. 우리 애들 영화 보여주려고 보니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래서 DVD로 보여주기로 하고 집에서 다른 만화 영화 봤다니까요. 달래느라 혼났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사주고... 미안했죠. 우리 가족 영화 보다가 몇 만원 훌쩍 넘어가요. TV에서 보는 것이 경제적 이에요. (한이 아버지. 2012. 7. 22)

다문화가정에서 가계 지출의 대부분은 생활비와 자녀양육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글 방문학습지 교육을 시키는 것 외의 비용 지출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사교육을 더 시키고 싶어서 근무시간을 연장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여가 문화비 지출도 부담스럽다고 하였다. 이처럼 베트남 이민자 여성의 가정에서는 낮은 경제력으로 자녀를 양육 하는데 드는 비용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증가하는 교육비에 대한 염려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였거나 재혼을 하였기 때문에 본인들의 나이가 많은 반면 자녀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야 할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걱정하였다.

우리 베트남 가족의 아버지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보통 우리 나이면 애들이 대학생, 고등학생 이에요. 빠르면 결혼도 시킬 나이에 이제 꼬물꼬물 어린애라는 것이 걱정 이에요. 애가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면 환갑이 넘어요. 그러면 애들 대학교가면 비싼 등록금이나 델지.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 일할 지도 모르고, 결혼시킬 때 까지 돈을 잘 모을지. 이게 미지수예요

(찬우 아버지, 2012. 6. 17)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양육비로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교육 지원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 계속하여 경제적 수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앞으로 들어가게 될 비용 지출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애를 많이 낳겠어요. 딸이라도 하나면 족해요. 애하나 있는 것도 힘들어요. 잘 키우는 게 문제잖아요. 요즘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아이 되치다꺼리 하긴 우리 너무 나이가 많아요. 아무래도 내가 건강해야지.

(영화 아버지. 2012. 7. 22)

남영이 하나만 키워요. 남영이 키우기 힘들어요. 남영아빠 3년 지나면 60살이 되요. 지금도 남영이는 아버지를 할아버지라 불러요. 남영이가 싫어해요. 우리는 돈 없어요. 우리도 정말로 살기 힘들어요.

(남영 어머니. 2012. 8. 29)

위의 사례와 같이 아버지들은 자녀양육비가 많이 들고 더군다나 나이가 많아 경제력 약화에 대한 걱정으로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영화아버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한명이라도 잘 키우려고 하였고 남영아버지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자녀의 양육 지원을 하기에는 자신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출산은 기피하고 있었다. 이처럼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안정되지 않은 직장으로 인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더구나 아버지의 높은 연령 때문에 어린 자녀의 교육지원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로 추가 출산을 부담스러워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여성 결혼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의 어려움은 외국인 아내가 한국생활에 미숙하고, 아버지 자신의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해 아버지 역할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아버지들은 아내의 준비되지 않은 결혼으로 자녀양육의 책임을 대신하였고, 또한 친정에 경제적 지원이 우선인 아내로 인해 마음고생도 하였다. 또한 한국어가 원활하지 못한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버지들은 자녀들과의 상호작용도 많이 하여야 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하여 부부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차이, 양육지식 차이,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여서 갈등하였다. 더불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양육비용에 대한 걱정과 안정되지 않은 직장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육비 지원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2. 소집단 부모교육에서 나타난 부모교육자의 역할

소집단 부모교육에 나타난 부모교육자의 역할은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내용 구성하기, 소외되고 억압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하기, 베트남 이민자가정에게 필요한 양육 지식 제공하기, 상호 감정교류를 통해 정서적으로 공감하기, 개별 가정에 적합한 교육 제공과 역할 수행 돕기, 반복적인 격려와 정서적 지원하기 등으로 분류되었다.

1)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내용 구성하기

본 연구자는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의 어려움과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에 근거하여 부모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버지들의 어려움은 자녀의 연령이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자녀양육과 부부관계 등 여러 어려움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교육자는 부모교육 대상을 아버지 외에도 부모교육 후반부에는 어머니와 부부를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부모교육 주제와 교육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버지를 위한 교육 주제

부모교육자는 부모교육 첫 부분은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아버지들이 과거 경험들 가운데 마음속에 부정적인 자아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모색함으로써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부각 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모교육자는 아버지들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주제를 포함시켜 아버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난 지금까지 자신감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만 내가 최고지요. 누가 날 알아 주겠냐고요. 우습지. 난 성공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비연구 면담결과, 2012. 3. 10)

아빠, 남편? 지금도 불확실해요. 왜? 내가 뭘 잘 할 수 있겠어요?

(예비연구 면담결과, 2012. 3. 17)

부모교육 주제는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우선으로 ‘자기인식과 자존감 높이기’라는 주제로 구성하고 자신의 성장과정을 돌아보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수용을 통하여 아버지의 강점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부모교육 시작과 끝나기 전에 노래를 불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베트남 이민자가정은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바로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누적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난 애 엄마랑 제대로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뭔지 모르게 답답하고. 말이 잘 통하지 못하니 자꾸 감정이 응어리처럼 쌓이는 것 같아요.

(남영 아버지, 2012. 5. 6)

연구자는 아버지들이 서로 힘든 상황을 터놓고 이야기를 통하여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였고 부부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부부관계의 친밀감을 도모하는 방법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였다. 그래서 ‘소중한 우리가족’과 ‘아내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 개선’이라는 주제로 아내와의 만남을 돌아보며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부모교육 주제로 구성하였다. 수업에서는 연구 참여자 중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찬우 어머니를 강사로 아버지들에게 기본적인 베트남어를 가르쳐 주었다. 연구자는 아버지들이 베트남에 있는 장인, 장모에게 한 달에 두세 번은 안부전화를 걸어 배

트남어로 감사의 말을 하도록 하였다. 부모교육자는 아버지들이 아내에게 고마움의 표현을 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그림이나 문자 보내는 방법이나 다양한 표현을 수업에서 연습하고 과제로 부여함으로써 아내와의 감정을 완화하고 정서적으로 소통이 되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부부들은 서로 다른 양육문화와 풍습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나타냈다.

항상 밥을 쟁반에 담아 가져다 방바닥에 놓고 TV 보며 먹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참 식탁 놔두고 이상 하더라고요. 애들 교육으로도 좋지 않죠

(한이 아버지, 2012. 3. 17)

시어머니가 있는데도 방 한가운데 누워있고, 낮에 꼭 낮잠을 자서 어떤 때는 민망할 때도 있어요. 결혼 처음엔 낮에 손님 앉혀놓고 옆방에서 잤다니까요.

(남영 아버지, 2012. 5. 5)

우리랑 사는 방식이 참 다르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까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해 못하는 구석이 참 많아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왜 그리 시어머니에게 머리 숙이는 것 싫어하는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잘난 구석이 있는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돼요.

(호승 아버지, 2012. 5. 16)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베트남의 출산, 생활풍습, 예절, 식습관, 놀이, 이야기 등의 주제를 다룸으로써 상대방의 문화이해를 통하여 그동안 한쪽으로 고착된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문화에 동화되기를 바라는 일방적 교육보다는 쌍방간에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두 문화에 대한 이해를 교육 주제로 다루었다. 교수 학습 방법으로는 베트남의 풍습, 문화 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강의와 베트남의 일상과 문화에 관련된 동영상 또는 그림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자는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겪은 문화와 풍습으로 겪었던 어려움

을 서로 토론을 통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였으며 서로 간에 공감을 하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도록 진행하였다. 아버지들은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놀았던 베트남 놀이를 해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아버지들이 이론으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루어 보는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수업과 활동을 통하여 아버지들이 아내에 대한 존중과 가정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동반자적인 관계임을 제고하도록 강조하였다.

또한 아버지들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표현하여서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을 부모교육 주제에 포함하였다.

내가 예를 돌보는 방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같이 놀아주려 해도 그냥 총 싸움? 한이는 내가 적군이 되어 죽는 것만 하래요. 그래서 그런 역할만 하고... 뭐 별다른 것이 있나요? 좀 배우면 좋겠어요. 교육적으로 놀아주고 싶어요. 애 엄마도 책하나 못 읽어주고 나도 마찬가지니. 한이에게 미안하죠.

(한이 아버지. 2012년 5월. 6일)

난 애가 책 읽어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떨어져요. 와이프가 보는 게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안했죠. 책장만 넘겨줘요. (종희 아버지. 2012년 6월. 24일)

자녀양육에 관한 부모교육 내용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방법, 자녀와의 다양한 상호작용 방법을 다루었고 언어교육, 동화 구연방법, 놀이방법, 자녀의 올바른 훈육법, 식습관 지도, 유아의 미래 직업에 대한 생각나누기 등을 포함하였다. 수업은 아버지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제시하였고 강의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들이 자녀와 부모의 역할을 나누어서 직접 역할을 하거나 연구자가 제시해주는 방법을 따라 해 보고 기술을 연습하는 과정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나 유의해야 될 일은 반복하여 제공하였다. 부모교육자는 아버지들에게 실제 생활에 활용하도록 과제를 부여하고 다음 수업시간에 토론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 해결점을 찾아 반성적 사고를 하도록 수업을 진행 하였다.

(2) 어머니를 위한 교육 주제

두 번째 부모교육은 연구 참여자들의 아내인 어머니들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어머니들은 부모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다. 또한 자녀양육 방법에 대하여 열심히 배우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도 자녀양육과 관련된 교육을 배우려는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우리도 하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은 것 많아요. 아빠는 물어보는 것 잘 몰라요. 선생님과 만나서 얘기 하고 싶어요. (호승 어머니. 2012. 7. 15)

베트남의 이유식은 우리랑 전혀 다르더라고요. 아내는 베트남 것만 알아요. 우리 것은 전...전혀 몰라. 나도 모르지. 나는 괜찮지만. 애 먹이는 것이 걱정 되요. 책하나 샀긴 샀는데. 어디 굴러다녀요. (수영 아버지. 2012. 6. 24)

와이프는 먹이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나는 어떻게 키우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남자가 알 리가 있나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옆에서 종희 엄마가 너무 부러워해요. 애기 키우는데 공짜로 알려주니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해요. 고맙죠. 그런 생각이. (종희 아버지. 2012. 6. 3)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보니 정말 필요한 것인데. 엄마들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엄마가 모르면 되겠어요? 물론 내가 가르쳐 주지만 엄마들이 알아야만 교육이 효과가 더 크죠. 그리고 자꾸 질문을 해요. 나는 한계가 있어서 더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주지 못해요. (환이 아버지. 2012. 8. 22)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라는 주제로 자녀교육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할 때 어려운 문제들을 나누며 어머니들이 원하는 자녀양육이나 교육에 관련된 주제를 정하였다. ‘자녀교육 정보이해’라는 주제에는 ‘영아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제공’, ‘질병과 예방접종’, ‘안전에 대한 이해’, ‘연령에 알맞은 이유식 만들기’, ‘한국의 문화이해와 예절’ 등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자녀와의 대화’ 주제에서는 ‘유아발달에 맞는 지식과 정보 제공’, ‘자녀에게 올바른 대화법과 칭찬하는 방법’, ‘집에서 안 쓰는 물건 돌려쓰기’ 등을 다루었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한국어가 미숙하였기 때문에 이론 중심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그림이나 동영상과 함께 설명을 하고 개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찬우 어머니가 통역을 해 주었으며 실습과 시연을 반복하며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머니 대상 부모교육에서는 아버지들에게 제공하였던 부모교육과는 다른 양상으로 토론 보다는 주제에 대하여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개인 가정에 필요한 실습이나 시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을 마친 후 개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이유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어머니에게는 자녀의 개월에 적합한 재료를 준비하여 이유식 만드는 방법을 두, 세 가지 알려 주었고 다른 이유식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도 제공해 주었다. 또한 자녀에게 칭찬하는 방법이나 대화하는 방법이 부족한 어머니에게는 자녀와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재연하며 연습하고 반복하여 익숙하도록 진행하였다. 초등학교 입학 앞 둔 어머니에게는 초등학교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태도 익히기와 교육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처음 학교에 보내는 어머니들의 불안감을 줄여 주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을 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 역할의 이해를 통하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과 방법, 그리고 지식을 습득하여 자녀 양육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3) 부부를 위한 교육 주제

부모교육자는 아버지교육과 어머니교육을 나누어 진행하고 난 후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의 친밀감 확인하기’의 주제를 통해 서로 정서적, 언어적 표현을 통한 친밀감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아빠가 너무 고마워요. 난 칭찬 안 해줘요. 해주면 안할까봐(웃음). 너무 아빠가 달라졌어요. 칭찬 하면 부끄러워해요. (호승 어머니, 2012. 8. 12)

그전에는 몰랐던 아내의 장점이 눈을 크게 뜨니 보이더라고요. 난 그저 그렇게 사는 부부들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곱씹어 보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도 역시 변하지 않는 것은 남자의 자존심. 애엄마에게 덤덤하게 표현하죠. 우리나라 남자들이 별 재미없잖아요.

(한이 아버지, 2012. 8. 22)

‘행복한 우리 가족’ 주제 시간에는 부부들 서로가 부모교육 후에 달라진 점을 격려하고 가족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부모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나누면서 반성적 사고를 갖도록 구성하였다. 수업시간에는 아버지들이 아내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여주었고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에게 가정에서 변화된 점을 격려해주고 가지고 있는 마음의 표현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모교육자와도 부모교육 시간에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였다.

2) 소외되고 억압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하기

소집단 부모교육에 참여한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소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해 하였고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자신

의 행동이나 표현에 있어서도 무척 조심하였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아버지들은 여러 부부들을 대상으로 강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부모교육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소집단 모임의 경험이 처음인 참여자들에게는 다른 참여자들과의 관계, 활동, 대화 등 모든 것들이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편안한 공간 제공을 통한 부모교육 과정에서 지식을 제공하고, 토론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점차적으로 아버지들 각자의 마음에 그동안 감추고 억누르고 싶었던 부분들까지 드러내 놓았다. 이로 인해 아버지들은 서로 동반자적인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며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양육과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아버지들이 서로 자기의 속사정이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친분관계를 맺는 것을 불편해하며 거부하기도 하였다. 단지, 부모교육을 통하여 정보알기와 자신의 가정에 어려움을 풀기 위한 방편으로 참여를 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동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아버지들은 스스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여서 서로 공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찾게 하였다.

맨 처음에 공부한다고 해서 무척 걱정 했어요. 사실 내 무식함이 드러날까 (웃음), 지나간 모습 생각하기도 싫었고 말하기는 더 싫었거든. 공부시간이 가족과 지내는 황금시간 때라 빠지고 싶더라고요. (남영 아버지. 2012. 8. 2)

아버지들과 수업을 하기에 벽찬 감이 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들과 친할 수 있을까. 아버지들이 조금은 거칠고 말 붙이기가 힘들다.

(연구자의 저널. 2012. 5 .6)

위의 남영 아버지처럼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교육’이라는 생각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일을 갖고 있는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도 부족한데 모처럼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부모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 더욱 큰 부담감이었

다. 또한 연구자에게도 아버지들의 부담감이 전해져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부모교육이 진행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아버지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들이 부모교육을 참여하러 오면서 아내들도 함께 오는 경우도 있거나 자녀를 동반하고 오는 경우도 많았다. 본 연구자는 상담실 옆 빈 방에 자녀와 아내가 쉴 수 있는 가족 쉼터를 만들어 교육 시간 중에 쉴 수 있도록 가족 전체를 배려하였다. 이곳에서 자녀들이 놀 수 있도록 연구자의 자녀가 어릴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을 배치하였고, 아내들이 쉬면서 볼 수 있는 쉬운 육아 책과 최근 유행하는 베트남 가요를 들을 수 있도록 배치해 놓았다. 또한 아이들의 간식과 어머니들이 마실 수 있는 차도 준비해 놓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버지들만의 참여가 아닌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본 연구자는 아버지들이 혼자 와서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교육이 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저번 주에 일이 늦어져 부모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애 엄마와 한이에게 이야기 했더니 난리야. 특히 한이는 놀이방에서 레고 해야 된다고... 선생님과 공부해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이가 공부해야 한다고 먼저 앞장 서는 게 우습더라고요. 애 엄마도 거기서 호승엄마와 만나는 것이 즐거운지 가자고 하더라고요. 난 사실 애 엄마, 장모님, 쌍둥이 이렇게 다니는 것이 창피했어요. 내 마음속에...차 한 대에 여럿이 타는 것 때문에 택시 타기도 눈치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부끄러워요. '우리 다문화가족이 이렇게 열심히 산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요. 당연히 우리 베트남 식구들은 다 이해 하리라 생각하고 다 보여줘요. 그래서 참석하러 일을 빨리 마치고 왔니까요.

(한이 아버지, 2012. 7. 20)

우리 다문화가정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풀만한 곳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가정을 남에게 얘기 할 곳이 정말로 없다니깐요. 누가 이해해요? 이런 장소, 이런 모임이 없어요. 다른 가정들은 부부가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 치킨 시

켜놓고 속 맘 후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가정들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문화가정은 풀 데가 없다는 것. 여기 와서 많이 풀고 속 시원한 얘기 많이 했어요. 술로 많이 거의 풀었는데... 이야기로도 풀 수도 있다는 것을...
(찬우 아버지. 2012. 7. 8)

그런데 한 두어 번 듣다가 보니 아- 이게, 정말 필요한 거야, 이게. 우리 매일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아버지 아버지, 난 나야. 우리 가정에 완전히 필요한 거지. 이곳이 정말 맘이 편한 곳 이예요. (남영 아버지. 2012. 8. 2)

애 엄마가 여긴 베트남 키즈 카페라나? 애 엄마는 남편 공부보다 모임에 관심 있어요. (호승 아버지. 2012. 6. 17)

부모교육이 주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족과 지내는 시간에 교육을 하게 되면 참여하기에 부담스러울까 염려되어 가족 전체의 참여를 배려하였던 것이 가족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연결이 되고, 또한 아버지들도 이런 가족의 호응에 더욱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들은 가족의 호응으로 부모교육에 전적으로 몰두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아버지들의 대부분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교육시작 전, 후에 노래를 부르고 시작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아버지들과 부모교육 주제곡을 정하였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함께 주제곡을 부른 뒤 본인이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실행하였던 일을 2~3가지 이야기를 한 뒤 교육을 시작하였다.

처음에 내 이름을 넣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사실 잘 안 되었어요 좀 답살,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우리가 군대에서 부르던 군가가 정말 그 령듯이... 정말 주제곡 선정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종희 아버지. 2012. 6. 17)

이제는 연구 모임 팀이 가족같이 편해요. 다 털어놓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시원하게. 그렇게 풀지 못하고 살아 왔잖아요.

(찬우 아버지. 2012. 5. 20)

이처럼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은 자신들만 갖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왔었다. 아버지들은 주체곡을 부름으로써 자아존중감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고 지난날 움츠렸던 자신을 개방하여 연구 참여자들을 가족처럼 느끼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속 시원히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부모교육자는 아버지 자신의 존재에 긍정적인 생각이 들도록 노력하였고 온 가족이 참여하여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을 열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3) 베트남 이민자가정에게 필요한 양육 지식 제공하기

부모교육과정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많이 달랐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실정과 문화, 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아내를 대신하여 자녀양육 방법을 배우고자 하였지만 각 가정의 환경이 달라 자녀양육에 대한 요구도 달랐다. 그래서 교육자는 부모교육에서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육자는 처음에 아버지들에게 원하는 지식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방법을 고민하였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수업 이해할라나 모르겠어요. 공부는 저 뒷전으로 살아 온 인생이라... 어려운 말은 질문 할게요. (예찬 아버지. 2012. 5. 6)

아버지들에게 지식만을 이해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론보다는 실제적으로 활용을 통하여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일에 바쁜 아버지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하기 힘든 교육은 생활에 적용하기 힘들다... 이해하기 쉽고... 양육에 적극 도움 되

고... 그리고 가정이 변화되는 수업...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고민이다.

(연구자의 저널. 2012. 4. 30)

먼저, 아버지들에게 양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쉽게 제공하고 그들의 이해를 돕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영상보기,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기, 가상으로 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역할극하기,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방법 연습하기, 자녀와의 놀이 시연하기, 단계별 이유식 만들기, 도서 대출증을 만들어 책 대출해보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각 가정에 필요한 무료지원 상담하기 등을 직접 해보도록 하며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단지 이론과 지식으로만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 활용하기 쉬우며 실제적이며 능동적인 수업이 제공되었다.

00씨는 참 잘 해요. 아마 아내에게도 어제 그렇게 했나 봐요. 실제로 그렇게 연습하니깐 아내에게 연습한대로 할 수 있지... 연습 안하면 쑥스러워 그렇게 안돼요.

(찬우 아버지. 2012. 7. 15)

어제는 종희 엄마가 교육에서 배웠던 식빵 죽을 종희 해 주었던가 봐요. 너무나 잘 먹어서 식빵 한 개 반을 먹었다고 좋아했어요. 오늘 만든 야채 죽은 실습했을 때보다 훨씬 더 무르게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는 어렸을 적부터 요리를 많이 해봐서 그런지 요리는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종희 엄마도 한국식 이유식 잘 만들어서 참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하니... 만족이에요.

(종희 아버지. 2012. 8. 29)

아빠 공부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선생님이 주신 종이 보고 읽고 연습하는 거 그런 게 저는 보기 좋아요. 매일 종이 들고 중얼 중얼 공부해요.

(호승 어머니. 2012. 6. 24)

이처럼 연구자는 부모교육과정에서 각 가정에 필요한 양육지식을 강의 형식

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 지식을 쉽게 이해하도록 소개하였으며, 참여자는 가정에서 생활에 직접 적용하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베트남 문화이해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지식이해와 더불어 가정생활에서는 아버지들과 아내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감정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한 뒤, 표현하는 방법을 충분히 연습을 하였다. 아버지들은 배운 것을 표현하기에 거부해 하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행동으로 나타내기에 용이하도록 방법을 반복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평상시도 연습이 되어 진다면 흉내 낼 수 있는데 지금은 어색하고 어려워요. 자꾸 억압 하려 하구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이런 것은 대화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집에 가서 애 엄마에게 하려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을 충분히 하니까 도움이 된다고요.

(남영 아버지. 2012. 6. 17)

요 몇 달 계속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쫓기다보니까 사실 우리 삶이 남과는 다르게 살아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도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몰랐거든요. 모르다 보니까 그냥 성질대로 막 내버리고... 신경 안 쓰고 이제 좀 아니까. 말할 적에도 배운 대로 너 때문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 하죠. 말도 틀려지고 그냥 아이들과 자꾸 놀려고 해요. 애 엄마는 잘 못하니깐 노는 날엔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깐 애 엄마 하고 더 좋아졌어요. 내가 애 돌봐주고 매일 아니, 매일은 아니더라도. 요 몇 달 동안 애 엄마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말로, 음성언어로 보냈다니깐... 한글 모르니깐. 그러니깐 많이 달라졌어요. 계속 해야지.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 엄마(할머니)가 공처가 됐다고 좀 놀려요. 또, 애 엄마도 나보고 다른 사람 같다니... 아이들도 당연히 좋아해요. 자꾸 수업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종희 아버지. 2012. 8. 12)

선생님께서 알려 주신대로 하려는데 잘...잘 안되었어요. 여러 번 시도하는데 쉽지 않았는데... 저번 주 저녁에 선생님과 애 엄마와 상...상담 했다고... 애엄마가 나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또 명석을 퍼주니 하...하게 되었어요. 처음이 어렵지 다음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수영 아버지. 2012. 8. 19)

이와 같이 연구자는 아버지들에게 소개하였던 것들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문화, 양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수영 아버지의 경우처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외에도 지원을 하였으며 아버지들이 배운 것을 가정에서 실행하는데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행동에 격려와 칭찬을 하도록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4) 상호 감정교류를 통해 정서적으로 공감하기

본 연구자는 부모교육이 처음 진행 되었을 때 아버지들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서로 간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았다. 그래서 연구자는 부모교육 중에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탐색하고 인정하며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였다. 의사소통의 시간이 경과할수록 서로 간에 공감하면서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리 아버지 학교가 열려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문화가정이 안정이 안 되고... 그러면 교육이 무슨 교육... 다 소용 없어요. 가정...가정이, 안정이 우선 이에요. 그렇게 기대하던 가정이 불안한데...

(한이 아버지. 2012. 6. 3)

속상한 마음을 솔로 달래요 우리끼리 말 못하는 설움이 맘에 있어요. 그런 것을 솔로 달래요. 어제도 많이 마셨는데... 일반 사람들의 속상한 마음과 다

르다니깐. 간당간당한 삶이랄까?(한참 침묵이 흐른다)… 심장이 쭈글어 들만큼 내 자신이 싫어질 때가 많아요. (찬우 아버지. 2012. 6. 24)

돌아온 싱글은 뭐지? 이혼한 사람을 말하더라고요. 아- 나도 돌싱이구나. 난 사업에 망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서서히 별거했는데요, 남자가 돌싱이 되는 경우는 경제력이 큰 것 같아요. 그때부터 무너지면서… 얼마 전에 이혼해줬어요. 괜찮은 돈 많은 남자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아내, 아니 여자들의 맘을 이제는 이해 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난 후회 안 해요.(눈물을 흘린다)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싱글로 살고 있으니까 절반의 실패지요. (영화아버지. 2012. 7. 1)

아버지들은 처음에는 서로 불편해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며,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소극적으로 일반적인 이야기만을 하던 아버지들이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할 속사정을 표출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을 진행하면서 연구자와 참여자들은 각자 가정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정서적 교류를 통해 다른 가정의 자녀양육에 관한 문제를 자기 가정처럼 동일시하며 서로간의 신뢰형성을 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아버지들이 고충을 표현을 할 때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며 들어주었다. 시선을 아버지에게 고정하고 고개를 끄덕임으로 인정하고 공감한다는 것을 표현하다가 때로는 감정이 격하게 되어 울음이 날 경우에는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을 공유하였다. 반면, 즐거운 일이 있거나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갖고 기쁨을 나누었다.

참! 수영이 동생 생기게 되었어요. 00씨 부인 임신했네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유산 될까봐, 우리 선생님과 교육 팀에게만 알린테요.

(호승 아버지. 2012. 6. 24)

저번 주 목요일이 제 생일 이었는데 아내가 처음으로 미역국 끓여주었어

요. 다른 것은 잘하는데 미역국은 처음 이에요. 누가 이 말을 믿겠어요?

(중희 아버지. 2012. 7. 20)

아내와 여행을 갈 때 아내가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데... 와 정말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되더라니까요. 50세 넘어 다른 사람도 그 마음이 되려나?
(찬우 아버지. 2012. 8. 26)

기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박수를 쳐 주기, 즉석에서 휴대폰으로 축하의 노래를 찾아 들려주기, 부럽다는 말 등 축하하는 마음을 실제로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인 경험을 참여자들과 나누면서 기쁨이 상승되는 경험을 함께 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참여자들에게 가정생활에 의욕을 찾고 가족들과 더욱 친밀감을 갖게 하였다.

이처럼 부모교육에서 교육자가 아버지들의 감정을 공감하려는 노력은 서로들 간의 진정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감정을 공유하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개별 가정에 적합한 교육 제공과 역할 수행 돕기

소집단 부모교육에서 연구자는 각 가정의 어려움과 요구에 따라 관련 양육 지식을 제공하였고,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며 아버지 역할 수행의 동기를 부여하였다. 즉, 부모교육자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가정에 적용해야 할 역할이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제 아래 가정의 상황과 자녀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게 과제를 부여하였고 매 주 실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다음은 아내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찬우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 집은 문제가 아내나 아이들에게 표현하는 부분이 문제라서 내준 숙제인데... 정말 힘들어요. 욕 절대 안하지, 아이들에게 힘들지? 라고 마음 읽어주기 노력하지... 아내에게 매일 한번 씩 허그하지. 문자 보내지. 요즘에는 아이들이 ‘아빠가 달라졌어요’ 라고 해요. 나보고 TV 주인공 이래요. 나도 좋아요. 이번엔 숙제가 좀 많지만 한번 열심히 해 봐야겠죠.

(찬우 아버지. 2012. 8. 12)

남편은 내가 아들 보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 많이 울어요. 나는 베트남 아들 생각이 나서요. 남편은 내 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요즘 남편이 문자 해요. “사랑해”라고 문자 보내요. 아침에 나갈 때 “정말 고마워”라고 말해요. 남편은 날 사랑해요.

(종희 어머니. 2012. 7. 15)

찬우 아버지의 경우에 자녀에게 욕을 많이 사용하여 자녀와 대화가 잘 안되었고, 쑥스러움이 많아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기에 서툴러 아내나 자녀에게 오해를 주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구자는 찬우 아버지에게 자녀와 올바른 대화법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아버지와 자녀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또한 남편으로써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종희 아버지는 아내가 베트남에 두고 온 아들 생각에 종희를 양육하면서도 친정어머니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우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지만 모른 척 하고 지냈다고 하였다. 종희 아버지는 아내의 아들과 친정어머니가 그리운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위의 사례처럼 종희 어머니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남편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위로받게 되었다.

저는 자다가도 아이가 울거나 배고프거나 기저귀 젖었다고 반응하면 벌떡 일어나서 고쳐줘요. 애는 눈 뜨고 우유를 먹죠. 앞가리게만 대도 벌써 먹는 입모양을 해요. 두 명(쌍둥이)이니 한 명은 제가 맡으려 해요. 돌아가며 하

려 하는데... 힘들어도 아이가 반응하는 것이 신기하더라고요.

(한이 아버지, 2012. 7. 22)

땅에 그림 그리는 놀이(땅따먹기) 해 봤더니 남편 좋아해요 우리 시집 시골에 가서 마당에서 이것(손으로 뺨으로 원 그리기)하면서 세 시간 놀았더니 시어머니 깜짝 놀라셨어요. 예쁘다고 칭찬해 줘요. 더워서 이것은(재기차기) 못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빠, 엄마랑 차기 했어요. 남편 정말 놀이 잘해요. 처음 알았어요. 애들이 좋아해요. 아빠가 끈 목어서 연습하라고 해서 아들이 매일 들고 다녀요.

(호승 어머니, 2012. 7. 5)

요즘은 이렇게 주신 프린트를 차에 갖고 다니며 보고 연습 할 것은 하고 그러니까 종희가 나를 조금 친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나를 싫어하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하던지... 그런데 아직도 밤만 되면 나와 놀다가도 바로 엄마에게 가버려요. 그래도 옛날만큼 찬바람이 불진 않죠. 이번엔 이유식을 만들어서 줘 봐야겠어요. 빵죽 괜찮네요. 수박 주스도 만들어 볼까 해요. 집에서도 얼마나 읽을지... 그런데도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종희 아버지, 2012. 7. 15)

이처럼 아버지들은 부모교육에서 개인 가정에 맞는 양육 지식을 배우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함으로서 아내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아버지들은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지식으로만 아는 양육방법이 아니라 각 가정에 맞는 양육방법을 가정에서 실천함으로써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6) 반복적인 격려와 정서적 지원하기

부모교육을 하면서 아버지들은 계속하여 열심히 배운 것을 실행하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바쁜 바깥일과 일정하지 않은 출퇴근 시간으로 평소와는 다른 일

관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어제 너무 피곤해서 애 책 읽어 주기도 너무 힘들고 작은 애 우유주기도 힘들어 안 했더니만 입이 툭 나왔더라고요. 아침엔 나가는데 안 쳐다보더라고요. 지키기 너무 힘들고 어쩌면 난 왜 이리 힘들게 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한이 아버지. 2012. 8. 12)

이처럼 아버지들은 적극적으로 양육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생활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기에 힘들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또는 전날의 음주나 피로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나, 의문점이 생겨 질문을 할 경우 연구자는 교육 내용을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다. 또한 보충 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통화를 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심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었다. 상담할 내용이 있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에는 부모교육을 마치기 전, 후에 개별적인 교육을 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는 아버지들에게 응원의 문자를 보냈고 대화 중에서도 어려움을 해소할 때에는 정서적으로 지원 하였고 아버지에게 다시 실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재확인 시켜주는 시간을 가졌다.

어제 정말로 술을 많이 먹어 머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인데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이번 주만 빠진다고 선생님께 문자드렸죠. 그때 바로 답문 주셨는데 죄송한 맘이 들 정도로 성의 있게 보냈을 때 정말 누워있기 힘들더라고요. 바로 씻고 오는데 20분 정도 늦었어요. 맞아요. 마음이 다져지도록 누가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찬우 아버지. 2012. 8. 19)

맞아요! 행동으로 옮기기 힘들다가도, 잃어버리다가도 다시 얘기 들으면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지키면 우리 가족 누가 지키겠어

요. 내가 내 몸이 피곤하다고 봐 버리면 우리 자식새끼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 내가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들어요. 공부하면서 생각나는 건 난 행복한 놈이다! 라는 사실 이에요. 난 잘 할 수 있다. 난 행복한 놈이다!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놈이다! 고로 잘 할 수 있다.

(찬우 아버지. 2012. 8. 5)

아빠 너무 바빠 잘 못할 때 있어요. 선생님한테 이른다고 했어요. 아빠 다시 열심히 할 거예요. 선생님 고마워해요. (중희 어머니. 2012. 9. 9)

연구자는 아버지들에게 부족한 부분과 헤이해진 부분을 보완하여 알려 주었고 참여자들은 처음과 같이 긴장을 하면서 양육참여와 긍정적인 만족감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중희 아버지가 쓴 저널이다.

아버지 교육은 참 즐겁고, 유익하고, 슬펐던 시간이었다. 말도 안 통하는 아내와 사는 것이 얼마나... 이런 생각만 하면 울컥 하였다. 그러나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로 고맙게 느껴진다. 정말 아내가 소중하게 느껴진다. 내 아이 다르게 나올까봐... 걱정을 몰래 남몰래 했던 시간. 만약 이상하다면 가져다 버릴 생각도 종종 했던 나의 못된 생각들.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다. 시간이 없지만 먹고 사는데 힘이 드는 세상이지만 지금 부터라도 시간을 내어 아이와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싶다. 노력하는 아빠가 되고 싶다. 잘 키워야겠다. 미안하다 정말. 그때그때 마다 힘들 때 마다 잘 잡아주신 선생님. 여러 번 포기하려는데 그때마다 이끌어 주시고 아내의 선물, 기분 좋은 말, 행동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느라 정말 애쓰셨다. 평생 가슴에 잊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신 선생님.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 바르게 잡아주신 선생님께.

(중희 아버지의 저널. 2012. 9. 9)

아버지들은 바깥 일로 피곤하면서도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 연구자는 확

인 시켜주고 격려와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자녀양육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또한 가족에게 적극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 올바른 양육경험의 성취감과 함께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긍정적인 아버지 인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부모교육 과정에서 교육자의 역할은 아버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그리고 부부들에게 맞는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부모교육자는 아버지들에게 소외되고 억압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장소와 연구 참여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버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교육자는 베트남의 문화 이해교육과 양육에 대한 지식을 소개하면서 상호 문화 이해와 올바른 양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식 전달로 끝나지 않고 각자의 생활에 적용되도록 강의와 반복된 시연을 함께 제공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각 가정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터득하여 배운 것을 아내에게 전달하고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양육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자는 아버지들의 상호 감정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버지들 스스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참여자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공유하게 하였다.

부모교육자는 부모교육 과정에서 아버지들과의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격려를 해 주거나 축하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통해 친밀감이 상승되는 경험을 하였다. 부모교육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감정을 공유하고 나누는 교육 과정을 통해 아버지들은 적극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를 함으로서 가정에서 아버지와 남편 역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하였다. 교육자는 가정에서 실행 적용하는 과정 중에서 아버지들이 반성적 사고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다. 또한 부족한 부분은 포기하지 않고 정서적 지지를 통해 양육참여를 시도하도록 격려해 줌으로써 아버지의 역할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3. 소집단 부모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변화 양상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이 양육의 조력을 위한 소집단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아버지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연구 시작 당시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의 대부분은 자녀 양육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한 양육에 참여는 하고 있었지만 부부가 협력하는 양육이 아니었기에 다양한 어려움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소집단 부모교육이 진행되면서 이들은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양육 참여자로서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아버지들이 자녀와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가 변화 되었고 아내에게 자녀양육 지식과 방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가정에서 자녀에게 실행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그 결과로는 자녀양육에의 능동적인 참여, 아내에 대한 이해와 지원,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부간의 갈등 완화, 자녀양육비 절감 방안 모색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녀양육에의 능동적인 참여

(1) 자신감 있게 아버지 역할하기

소집단 부모교육에 참여한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은 한국문화에 서툰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을 보완해야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부모교육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배움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가정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부모교육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찬우 아버지의 경우는 자신의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해 남편 역할과 아버지 역할까지도 자신감이 없었다. 그러나 부모교육이 진행되면서 교육 내용을 이해하고 반

복적으로 연습한 것을 자녀와 아내에게 적용해보는 과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녀와의 관계에서 친밀함과 유대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아내에게도 관심과 애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남편 역할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우리 집에서 나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고 나도 잘 하는 것이 있구나,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속상하면 술 먹는 버릇은 여전하지만 예전엔 ‘난 못난 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어요. 못난 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애 엄마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애들에게 내가 너무 귀한 존재이고 아내에게는 내가 울타리고, 지난 과거에 엄마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자주 하기로 했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어쨌든지 난 귀한 놈이란 사실. 아직도 난 ‘놈’이 아니라 중요한 ‘분’이라고 매일 읊어요. 마음속으로… (찬우 아버지, 2012. 8. 12)

꽃다발 선물에 아내는 “꽃이 참 예쁘다”라는 말에 저는 이런 것이 행복인데… 잘 몰랐어요. 나는 실패한 놈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인생을 슬픈 인생이라는 생각과… 그래서 늘 술을 달고 살았어요. 술 좀 끊어야지 저는 술을 해야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뭐 별거인가? 자식 잘 크고 아내는 꽃 한 다발에 행복해 하는데… ‘안아주는 것’ 하나에 웃음을 짓고 자식은 내가 안아주고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하던데. 가족에게 고맙더라고요. 제가 최고로 멋지다니?. 가짜라도 좋던데요. (남영 아버지, 2012. 6. 24)

위의 사례들에서 드러나듯이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아버지들은 변화해 가고 있었다. 과거에 엄마이지 않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며 현재의 아버지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차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찾기 시작하였다. 또한 가정에서는 가장인 남편으로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녀에게도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큰 딸과 나는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 말 한마디도 안하고 살아 왔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조금씩 문자 보냈던 마음의 변화 때문인지... 그렇게 표현을 해봤던 것들이 정말 이젠 아예 터놓고 얘기하게 된 거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 했어요. 난 애들과 한 번도 그런 얘기 안했어요. 애 엄마랑 헤어지고 나서 애들에게 미안하고 정말 어떻게 뭐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모른척하고 살아왔던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 애들이 다 커버렸어요. 다시 그런 내 맘을 털어놓으려고 해도 용기가 정말로 없었어요. 선생님이 용기 주셔서... 정말 처음으로... 내 맘을 다 털어 냈어요. 한 번도 딸에게 얘기 해보지 않았는데, 애들이 나를 놀라게 보더라고요. 아빠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 눈에 북받치는 눈물을 보이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본 게... 그것이 아이 맘을 열게 했나 봐요. 큰딸이 '아빠 이해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울고 있었다) 이젠 애 엄마(새엄마)보고 '엄마'라 하는 것이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게 큰 수확 이에요. 우리 딸들... 그리고 종희 잘 키워야지요.

(종희 아버지. 2012. 8. 12)

한편, 종희 아버지의 경우에는 전처에게 음주, 폭행과 폭언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였음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런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는 다르게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재혼한 아내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려 하여도 새엄마에게만 좋은 감정을 갖는 것처럼 큰 딸이 생각할까 봐 마음을 졸였던 부족한 남편이었고, 또한 큰 딸에게도 미안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아버지로서 나설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부모교육 수업에 참여하면서 자녀와의 대화법을 배우고 큰 딸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문자도 보내면서 자녀와의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밖에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딸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큰 딸이 새엄마에게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흡족한 마음을 드러내었다.

(2)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부모교육에 참여한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교육적인 경험이 별로 없었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배우고 싶지 않았던 행동들이 다시 자녀의 행동으로 답습이 되어 자녀에게 대물림될 것을 염려하여 양육참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의 무지함으로 인해 양육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없고 오로지 과거에 부모에게서 보고 배웠던 행동들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행동이라 인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자녀의 발달에 따른 육아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서 자녀양육에 참여해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도하였다.

우리 막내가 요즘 잘 놀아 주니까 저에게 와서 우유를 달라고 했어요. 나에게 와서 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애가 아빠를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놀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어도 주고 줄릴 때 달래주다가 와이프가 힘드니까 제가 ‘한번 업어볼게’ 하구 업어 주니까 좋아서 잠도 안 자구 그냥 두 시간을 놀아버렸어요.

(종희 아버지, 2012. 7. 22)

우리 수영이가 대변 가리려 해요. 애 엄마는 애 똥 싸는 것 기저귀 안채우면 된다고 자꾸 벗...벗겨요. 저는 저번 토요일 날 처음 수영이에게 똥 놀 시간에 맞춰 변기에 앉혀 놓았다가 한 2분 후에 같이 힘주기 해봤더니 정말 신...신기하게 똥을 변기에 누는 거예요. 애 엄마도 박수 쳐 주었는데..... 나 하고 계속 똥 누...누면 잘 누는 게...참 신기 했어요.

(수영 아버지, 2012. 6. 17)

종희 아버지와 수영 아버지는 자녀 발달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면서 가정에서 점차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처럼 아버지와 자녀가 상

호작용을 할 때 애착이 형성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아버지들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2) 아내에 대한 이해와 지원

(1) 아내에게 자녀양육 방법 알려주기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어머니들은 한국생활의 적응과 결혼 생활, 임신과 양육의 삼중고에 시달려야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녀 탄생의 소중함을 느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자녀양육을 회피하며 자녀양육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그러나 소집단 부모교육을 함으로써 남편이 이전에 자녀를 대하던 모습과 다른 양상을 보임으로써 양육 방법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자녀양육 방법을 전달받고 생활에 적용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였다.

큰 애가 음식을 잘 안 먹어서. 안 먹고 남는 것은 둘째가 다 먹었어요. 측구를 2-3개월 쉬었더니 더 똥똥해졌어요. 지금 가슴이 나왔어요. 똥똥해서 가슴이 나왔다고 남편이 그러던데요. 맞나요? 남편 관심이 많아졌어요. 친정엄마는 괜찮다고 하는데. 베트남 아이들은 비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정엄마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내가 걱정하면 “미쳤니?” 라고 해요. 안되겠지요? 남편이 똥똥하게 되는 음식을 먹이면 안 된다고 대신에 무엇 무엇이 좋다고 계속 알려 주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생각 해야겠어요. 안 먹일 거예요. 한국 아이는 똥똥한 아이들 많아요.

(찬우 어머니, 2012. 7. 15)

베트남에서는 비만 아동을 거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찬우 어머니는 자녀가 비만이 되는 것에 대하여는 생각지도 않았으며 찬우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특히, 친정어머니도 아이가 똥똥해 진다는 생각은 ‘미친 생각’이라며 유아 비만의 위험성에 대하여 무지하였다. 그러나 찬우 아버지가 부모교육을 통하여 유아 비만에 대한 지식과 아이들의 간식에 좋은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정크 푸드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배우고 반복하여 아내에게 전달하여 찬우 어머니도 자녀의 식생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내는 평소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딸을 아들처럼 막 내돌리는 모습이 참 싫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엄마들 수업에서 우리도 보았던 ‘아기의 탄생’에 대해 배웠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업 날 집에 와서 울더라고요. 물어봤죠. 남영이 밑에 아이를 임신했는데 수술했거든요. 눈물이 나서 울었네요. 그 애기에게 미안하고... 불쌍하고... 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괜찮다고 애기 해주고 함께 동영상 얘기를 다시 이해 시켜주었어요. 남영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가 이야기 해 줬어요. 그랬더니 남영이를 안으며 “사랑해”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생각도 있구나. 이런 여린 마음이 있는데 아이에게 냉정하다고 생각했던 미안한 마음이 스치더라고요. 기특하게도 어른이 돼가고 있구나...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영 아버지. 2012. 8. 12)

평소에 자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남영이 키우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남영아버지는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던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영상을 보고 난 뒤 낙태하였던 아이를 생각하며 슬피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영 아버지는 아내가 자녀양육에 대해 소홀하였던 일로 아내에게 함부로 대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였다. 그리고 철부지라고 생각한 아내가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자녀의 소중함을 느끼는 엄마가 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흡족해 하였다.

장모님 가시기 전에 정을 좀 더 쌓아야지요. 가시기 전까지 계속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알아두었다가 써야겠어요. 미리 좀 신경을 썼어야 했어요.

전 장모님의 마음까지를 헤아리기까지 벅찬 거예요 아이에게 말도 안 통하는데 키우느라... 미안 하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걸요. 그 전까지는 아내 도와주는 거지... 자기 손주 키우는 거지... 라는 이기적인 생각에 별로 미안한 마음이 아니었는데... 공부하면서 자녀양육이 정말 힘이 든다는 것을 이해되었어요. 내가 아내에게 이만큼 아이 키운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며 “아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엄마에게 감사해라”라고 했더니 (아내가) 고맙다고 했어요. 아내도 그런 말을 해주니 고마운가 봐요. (한이 아버지. 2012. 4. 22)

아내의 직장생활 때문에 대리 양육을 책임지기 위하여 베트남에서 온 장모에 대하여 한이 아버지는 평소에 손자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부모교육이 점차 진행되면서 아이를 보살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이제까지 아이를 키워 준 장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아내에게도 친정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와 같이 아버지들은 부모역할에 대해 재고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통하여 필요한 지식을 얻고 양육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서 자신이 이제까지 가정에 소홀하였고 자녀의 양육 문제가 전적으로 어머니의 책임만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부모역할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을 하게 되었다.

(2) 친정에 대한 아내의 경제적 지원 이해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아내가 집에서 조용히 자녀를 키우기를 바랐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내는 결혼하기 전 친정부모에게 송금을 약속하였거나, 친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국으로 시집 간 딸에게 부탁하는 일이 생기게 되므로 일을 갖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에서 자녀가 어린상황에도 직장에

갖길 원했다. 그러나 남편은 자녀양육에 대해 소홀할 것을 염려하여 아내와 대립을 하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들이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처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다른 베트남 이민자가정에게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아내의 형편을 이해하게 되었다.

다들 돈 부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우리 집은 조금 부치는 편이네... 00씨는 이번에 집 사주고 오셨어요? 나는 엄두도 못 내는데... 그래도 우리 와이프는 불만은 안 가져요. 열심히 나가 벌어요. (종희 아버지. 2012. 8. 12)

소집단 부모교육을 하면서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있었지만 먼저 말 꺼내기 꺼려하였던 송금 액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다문화가정에서 경험하는 일인 줄은 알고 있었으나 대부분 겪는 공통적인 일이라고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베트남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내를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이야기들은 남에게 속 시원히 물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부모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어떻게 보면 애 엄마가 안 됐어요. 애 낳은 지 두 달 만에 나갔다니까. 돈 번 다고...난 애 안 키우고 돈 벌러 나간다고 화를 내고 소리도 질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애 놔두고 나가는 아내 마음은 어떻겠어요? 한편으로 생활력이 강하다고 보이더라고요... 안됐다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이 아버지. 2012. 7. 22)

베트남에서는 여자가 드센 줄로만 생각했는데...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베트남 역사를 알고 보니 이해가 좀 되요. 아내가 애기 돌보지 않고 친정에 돈 보내는 것만 미워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일이 지위라고 생각하면 밀어줘야지요. (남영 아버지. 2012. 7. 22)

남편이 고맙다고 말했어요. 어제 일하고 오는데 아빠(남편)가 마중 나왔어요. 고마워요. 나 돈 많이 벌어서 남편 옷도 사주고 우리 종희 잘 키울거예요.
(종희 어머니. 2012. 8. 29)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이 아버지는 아내와 실랑이를 할 당시 아이의 양육을 등한시 한다고 아내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갈등을 느끼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과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베트남 여성들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뿐만 아니라 아내의 형편과 상황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아내의 친정집에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고, 베트남 사회와 문화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종희 어머니는 본국에 있는 전남편의 아들에게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 직장에 다니는 것이 항상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으나 남편의 이해와 격려의 말에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아버지들은 아내가 자녀양육과 가정에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직장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교육 과정을 통하여 아내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말을 하였던 남편들이 아내에게 긍정적인 말로 표현하고 현실을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변화를 보였다.

아버지들은 한국으로 시집온 어머니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아버지들이 어머니들과 결혼하기 위해 친정에 충분히 경제적으로 보상하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의 역사와 문화이해 그리고 처가의 형편을 먼저 헤아리기 전에 아내가 겪어야 할 몫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부모교육을 하면서 베트남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과 결혼한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사랑과 격려의 표현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어머니들은 남편들에게 감사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3) 아내의 한국어 습득 독려하기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아버지들은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어머니와 자녀와의 갈등, 시모와 며느리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 속에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언어소통이 잘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성장하여 가는 자녀와의 소통과 언어적 자극을 위해 국적 취득 면접시험과 한국어 능력시험을 대비한 한국어 교육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였다.

우리 애 엄마는 정말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몇 년이야? 한국 온 지 7년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니까’ 라고 말했지만 미련한 게 더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애 교육은 다 저리 가라지요. 한국말 거의 못해요. 기본 말만 해요. 사실은...도망갈까 봐 내가 안 해줬죠...그게 더 크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빨리 빨리 하라고 해야겠어요. 그런데 한국어 심사 이게 두려워 못한다니까요. 내가 도와줘야겠어요. 그랬더니 무척 반가와 하는 거예요. 의외더라고요. 열심히 하겠대요. 노트사고 언필도 사줬죠. 내가 도와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애 누가 교육시켜요?. 누가 도와 주겠냐고요.

(남영 아버지. 2012. 6. 24)

한국어 능력 시험 보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어 실력이 좋고 한국어를 잘 알아야 아이들 언어교육이 되지. 우리도 시험 보면, 문법 다 틀려요. 애 엄마한테 가르쳐 준 것 시험도 보고 그래요. 다 맞아서 나가서 점심 사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걸 호승이에게 물어보고 그러던데 보기 좋았어요. 우리가 가르치면서 우리도 한국어 배웁시다. 우린 반쪽이야. 반쪽이 한쪽 역할을 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함께 배워야 우리 애들 잘 가르치지.

(호승 아버지. 2012. 6. 24)

우리 남편이 귀화 면접시험 준비하라고 했어요. 매일 남편이 베트남어, 한

국어 단어 얘기해요. 남편과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있어요. 우리 종희 공부 엄마가 해야 한다고 아빠(남편)가 말 했어요. 잘 할 거예요. 열심히 해서 종희 잘 키울 거예요. (종희 어머니. 2012. 5. 6)

남영어머니는 한국 국적 취득을 하지 못했다. 남편은 결혼 초 불안한 결혼 생활 때문에 내심 아내가 본국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적 취득하는 것을 만류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내의 한국어 실력이 부진하여 면접 질문에 대답할 만큼 한국어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미루는 것이라며 아내 탓으로 돌리곤 하였다. 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도 남영 아버지는 아내를 ‘미련하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중에 남영아버지는 도움을 주어야 하는 남편 역할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아내를 도와주기로 하였고 남영 어머니도 남편의 도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승이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은 의사소통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시험(TOPIK) 공부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호승이의 언어지체 때문에 2년 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정확한 한국어 실력으로 언어 자극을 많이 주고 싶은 이유 때문이었다. 호승이의 언어지체를 알기 전까지는 수술 후유증으로 곧 회복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하지 못했지만 유아기 언어 발달에 대한 지식을 배운 후 부터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는 먼저 어머니의 부정확한 발음을 수정하고 자녀를 지도할 만큼의 한국어 지식을 쌓기 위하여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기로 결정하였고, 호승 아버지는 아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아내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종희 아버지의 권유로 어머니도 귀화 한국어 면접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여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포부를 드러냈다. 한국어에 미숙한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의 한국어 습득을 격려하는 정서적인 지원은 낯선 한국에서 생활하는 어머니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어머니들의 적극적인 자녀양육 참여를 하게 해주는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3)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부간의 갈등 완화

(1) 아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소집단 부모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처음에는 자기 아내에 대하여 ‘가족과 말이 잘 통하지 않고’, ‘감정 교류가 되지 않으며’, ‘미련하다’, ‘자녀교육에 나태하고’, ‘돈에 미쳤다’, ‘교육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이라는 말들로 갈등상태를 표출하며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갈등과 아버지들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정서가 함께 어우러져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더욱 증가되었다. 특히, 아내에 대한 남편의 편하적인 부정적 감정이 아내에게 전달됨으로서 아내도 자신이 받은 부정적 감정을 다시 자녀에게 표출하게 되는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지금까지 가졌던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새로운 안목으로 아내를 바라보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부모교육에서 아내와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실천하는 과정에서 아내와의 대화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감정이 대립될 때 감정이 분출하려는 것을 조절하게 되면서 부부관계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내도 속상한 것도 많이 있을 거야. 애 엄마는 화나면 애한테 분풀이 하고... 난 애 엄마는 어찌 되던지 간에 내 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른 체 하는 거지. 말 안 통한다는 이유로... 난 그래 왔어... 좀 미안하지...나만 그런 맘이 드는 줄 알았어. 그런데 보통 베트남 부인과 남편들이 다 그렇게 얼렁 넘어가고 그런가봐. 그러니 성격 더 급해지나 봐. 우리가 감싸줘야 하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더라고. 미안하지. 마음을 표현하니 와이프도 느껴지는 거야. 그렇게 쉬운데. 정말 처음 하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가정은 소중하지만 깊이 생각하진 않았다는 거야.

(남영 아버지, 2012. 6. 22)

우리는 늦게 시작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로 몰라서도 못하고, 방법도 모르고, 없어서도 못하고. 그러니 몸도 피곤한데 짜증나고, 마누라가 예뻐 리가 있어? 현실은 똑같아. 그런데 방법을 알고 달리 생각하고 실제로도 해보니까 좀 아내가 달라 보이던데요. 입구를 찾았다고 할까?

(호승 아버지. 2012. 8. 2)

좀처럼 변화를 모르던 아버지들은 부모교육을 통해 차츰 자신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느꼈고 이전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아내의 모습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와 함께 부모교육에서 실제적으로 배운 것을 아내에게 행동으로 옮겨 자신의 변화된 긍정적인 마음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남자가... 정말 쑥스러워서 잘 안 되었어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아내 생일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꼭 안아 주었어요. 아내도 저를 한참 안더라고요. 내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것... 조금은 다른 느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1박 2일로 울산에 갔어요. 입 밖으로 소리 내어 표현해보기에 도전했어요. 그래서 꽃다발을 준비하구... 작은놈이 날 보고 “아빠 뽀뽀해.” 하더라고요. 저는 배운 대로 “너희들이 기뻐하니깐 나도 기뻐.” 라고 애들에게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놈이 아빠 욕 안하고 그런 말하니까 “우리 행복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 애들의 맘속에 내가 욕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었구나. 아버지니까...애들 잘못하는 것을 잡아야겠다, 고쳐야겠다, 엄마가 못하니까 나라도...라는 생각 뿐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찬우 아버지. 2012. 6. 24)

아버지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깊이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내를 배려하고 격려하거나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또한 아내와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행동은 남자로서

부끄럽다는 가부장적인 생각 때문에 마음의 표현을 꺼려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부모교육을 통하여 가부장적인 사고와 행동은 아내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아버지들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의 비언어적인 고마움의 표현을 처음에는 어색해 하였으나 점차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아버지들은 아내에게 그림으로 메시지 보내기, 출, 퇴근 때에 아내에게 사랑 표현과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기,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 가끔 아내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이런 방법을 부모교육 시간에 배웠지만 표현하는 방법에 서툰 아버지들을 위하여 부모교육에서 반복적인 연습을 하고 가정에서 실행함으로써 아내도 남편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을 갖게 되고 남편의 마음을 수용하는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결과 부모와 자녀와 관계도 안정된 모습을 갖게 되었다.

(2) 상대방의 양육문화 이해하기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국제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에 대해 아내와는 다른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였다. 아버지들은 자기 나라의 것이 더 비교우위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양육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아버지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나타냈다. 아버지들은 아내의 문화를 이해하려다 조부모의 개입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곤란하여 더욱 가중되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한국 교육은 학교에서 공책주고, 책 주고, 다줘서 좋아요. 그런데 교육은 학교에서 안 시키고 왜 엄마가 시키는 줄 잘 모르겠어요. 베트남은 엄마들 신경 안 써도 되요. 학교에서 글 가르쳐줘요. 한국 엄마는 정말 어렵고 이해 안돼요. 나는 베트남식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말 남편한테 했더니 너희 나라가 그래서 잘 사냐? 하더라고요. 진짜 심하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한국 애들이 공부 때문에 많이 죽는다고 했어요.

(찬우 어머니. 2012. 6. 10)

베트남 말 어머니 몰래 써요. 그러면 어머니는 화를 내죠. 한국말도 못하는데 뭐 하려고 쓸데없는 베트남 말을 가르치냐? 하나만 하라고 소리 지르시죠. 2개 국어 배우던지 하면 좋잖아요. 우리 어머니 난리예요. 다시 (베트남으로) 데리고 갈까봐 그런가 봐요. 옆집에 사는 우리 어머니 친구까지 합세를 한다니까요.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어머니 맘속에 손녀 데리고 도망 갈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호승 아버지. 2012. 6. 24)

위의 사례들과 같이 부부는 상대방 나라의 교육이나 문화에 대하여 존중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고 바로 일축해 버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호승 아버지 경우에도 함께 사는 조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호된 편견을 듣기도 하였지만 남편은 이것을 중재하지 못하고 아내는 시어머니 몰래 모국어를 쓰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문화로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이러한 다른 문화에 대한 아버지들의 이해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들에게 베트남의 문화와 일상생활, 사회풍습, 예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소개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시간에 이중언어 환경의 장점과 어머니 나라 이해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배려하였다. 아버지들은 아내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배우고 연구 참여자들 간에 가정에서 겪었던 문화와 관련된 경험담을 서로 나누면서 이전에는 이해가 안 되어서 갈등으로 나타났던 경험들을 베트남에 대한 문화와 풍습에 대한 지식을 우리나라와 연관시키면서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이나 연변과 베트남은 너무 다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정통 베트남 쌀국수 처음에는 정말 못 먹어요. 나도 베트남에 갔을 때 처가에서 쌀국수 주는데 냄새가 정말 적응 안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애 엄마에게 우리 것만 강조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에요. 애들에게 베트남 음식먹이기 보다는 한국음식만 먹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나라 음식 먹이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환이 아버지, 2012. 7. 20)

절대 어머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애는 우리의 반반 이라고 말했죠. 그러니 어머니도 아무 말씀 안하시던데요. 이젠 한국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나라 말인 베트남 말을 배워 우리 아이들이 커서 베트남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호승 아버지, 2012. 6. 10)

이번 우리 둘째 낳을 때에 어머니가 오신다고 했어요. 첫째 때...때는(아내는) 족발 끓여 달라고 하구 미역국 버리려다가 들켜서 정말 많...많이 혼났거든요. 아까운 미...미역국 다 버린다고... 이번엔 제가 어머니께 족발에 야채 넣어 끓여 주라고 했어요. 베트남 산...산모 음식이라고 어머니가 족 국물에 미역 넣으면 된...된다고 했어요. (웃음) 족발도 젓 많이 나온다고 좋다네요. 아내가 먹을까? 시...시도 해보기로 했어요. 아내도 미...미역국 영양가에 대해 배웠으니 아마 잘 먹을 것 같지 않나요? (수영 아버지, 2012. 8. 26)

베트남 다문화가정에서 부부들은 양육문화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 문화이해’ 라는 주제로 부모교육을 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우리 땅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한발 물러서서 같은 시각으로 자녀양육을 바라보고 적응해 나가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실 베트남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

게 에 엄마가 뭐라고 하면 인정하기 싫더라고요. 인사하는 법도 없어서 하는 것이 건방져 보이고, 밥그릇 여기저기에 밥을 담는 것도 교양 없어 보이고 그랬는데. 그런 것 자체가 그들의 생활이니까 받아들여야죠. 애가 보고 배울 까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애가 버릇이 없으면 바로 엄마 탓만 했던 것이 미안하고 정말 속죄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면담 때 만약 베트남이 우리나라 보다 더 잘 살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함부로 했을까 라는 선생님 말씀이 맘을 바꾸게 되었어요. 내 맘속에 그런 맘이 있는 줄 몰랐어요. 문득 그런 맘이 들잖아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마음이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 했더라고요.

(중희 아버지. 2012. 7. 15)

이와 같이 아버지들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온 아내이기 때문에 베트남 문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또한 아버지들은 우리나라가 우월하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무심코 행동으로 표출되었던 행동들이 바뀌어진 의식의 전환을 통하여 아내의 입장을 고려하고 베트남 문화를 존중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은 베트남어이지만 어머니와 자녀와의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아내와 협력하여 양육에 참여하기

낮선 타국 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민자가정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남편의 양육 참여는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와 정보가 부족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양육에 참여해야 하는 아버지들은 자녀에 대한 양육과 기본 생활습관 및 행동지도에 대하여 무지하였다. 더군다나 자녀가 문제행동을 일으킬 경우에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조언이나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았고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활용하고 있었다. 부모교육을 통해 아버지들이 양육 지식과 자기 자녀에 맞는 문제행동 지도방법에 대해 알

게 됨으로써 가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어머니들에게 문제 해결방법을 알려주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한이가 동생 우유병에 우유를 먹고 싶어 하고 안 주면 때 부리고 이런 것이 어리광 부리는 것이라 생각해서 혼냈어요. 부모교육에서 배운 뒤부터 장모님에게 계속 한이가 동생 기저귀 갈아주게 놔두고 우유병도 잡아주게 해주라 했죠. 며칠 전에는, 내가 아내와 함께 애기 목욕시키는데 도와주게 놔뒀더니 어제 저녁에 동생 우유 먹이면서 우유병은 동생 것 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기 예뻐”라며 신이 났어요. 너무 신기하고 대견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말 커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안 배우면 큰 문제라 생각하죠. 정말 안 배우면 모르죠. (한이 아버지, 2012. 7. 22)

한이 부모는 자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아이의 감정을 잘 이해해 주지 못하였다. 면담 때에 아버지와 한이의 문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연구자는 아버지와 대화를 통하여 한이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한 뒤 한이의 문제는 동생이 생기는 경우에 유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이 부모들에게 한이와 대화하는 방법, 동생과의 문제 상황이 벌어질 때 어머니의 대처방법,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할 때 아버지의 태도 등을 연습을 하도록 교육을 진행하였다. 매주 결과 보고식으로 하여 진행되는 상황을 이야기 하였고 연구자와 대화를 통해 반성적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 후 한이 부모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협력적인 양육 지도를 통해 변화된 한이가 대견해 보였고 또한 부모로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종희 아버지도 부모교육에서 배운 대로 종희에게 책을 읽어주려고 하였다.

나는 책 읽기를 시도하지만 종희가 자꾸 나가려 해요. 엄마에게 가려고 하는데 자꾸 데리고 와서 읽히기는... 참 잘 안 되죠. 아이가 재미없나 봐요. 읽는 방법이 이상한가... 아무튼 싫어해요. 일하고 와서 나도 피곤해서... 그

냥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런데 애 엄마가 옆에서 보다가 얼른 달려오더니 종회를 무릎에 앉히고 나를 보게끔 책을 쳐다보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보고 읽으래요. 정말 잘 보는 거예요. 그 자세가 좋은 것 같아요.

(종희 아버지. 2012. 5. 6)

반면에 종희 아버지는 종희에게 책 읽어주기를 시도하였지만 처음으로 해보는 아버지의 책 읽어주기는 미숙하여서 자녀의 몰입을 유도하지 못했다. 종희 아버지는 몸도 피곤하였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포기하려 하였지만 아내의 협력으로 자녀에게 책 읽어주기를 성공적으로 하였다는 긍정적인 양육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부모교육 이후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자녀를 양육하고자 시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부모교육에서 배운 것을 아내에게 알려 주려고 하였지만 어머니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매일 아침에 공부를 하고 가요. 엄마가 관심이 많아서 매일 공부는 시키죠. 엄마가 시키기는 벅차니까 방문학습지 선생님에게 맡겨요. 매일 글씨 공부 시켜요. ‘그렇게 하면 말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 애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말이 좀 느려도 매일 아이와 이야기하기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애 엄마는 내 말을 못 믿고 옆에 사는 베트남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 말만 듣고 계속 글씨하면서 단어공부를 해야 한글을 깨친다구, 그것이 더 중요하대나요?

(호승 아버지. 2012. 5. 6)

어머니들은 남편의 양육지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호승 어머니는 아이의 발음도 부정확하고 어휘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한국어 방문학습지를 시키는 것이 아이의 언어교육에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글씨쓰기에 주력하고 있었다. 호승 아버지가 습득한 양육방식은 아이와 놀이, 말놀이,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놀이처럼 보이므로 어머니는 그런 방식은 호승이에게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여겼다. 호승 아버지는 아내가

가까이 사는 베트남 언니의 정보를 얻고 따르는 모습을 보고 속상해 하였다. 본 연구자는 호승이의 언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호승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면담을 하였다. 면담을 통해 자녀의 언어교육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호승이에게 나이에 맞는 언어 발달, 대화 방법, 적합한 놀이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호승이 말 많이 시켜야겠어요. 나는 한글공부가 너무 급하게 생각되었어요. 아직도 걱정 이예요. 난 아직 한국말 확실하지 않아서 호승이와 대화 하는데 정확히는 잘 못해요. 나는 책읽어주기 하고요, 아빠는 함께 놀이 많이 가르쳐 주세요. 나도 호승아빠가 아이랑 노는 것이 중요하니까 놀이 하는 것 찬성 할게요. 요즘 호승이아빠가 참 열심히 해요.

(호승 어머니, 2012. 6. 17)

본 연구자는 호승이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호승이의 언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호승이는 자꾸 말을 웅얼거리며,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게 말하였으며, 노래 한 곡을 정확하게 부르지 못하는 등 또래보다 언어 발달이 늦은 언어지체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호승 어머니는 호승이에게 말하기보다 글씨 쓰기에 강조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었다. 호승어머니가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방문학습지 사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한글 지도를 시키고 있었으며 쓰기 지도가 공부를 더 잘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호승어머니는 면담을 통하여 쓰기 지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말하기에 힘든 환경을 만들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호승이 부모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노래 부르기, 말 잇기 놀이, 낱말 맞추기, 책 읽어주기 등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지도 방법을 부모교육을 통해 이해하였고 또한 호승이 발달에 맞는 언어 교육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4) 아내가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기

소집단 부모교육 참여자 아내들의 대인관계 형성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혼 초에 시어머니나 남편들은 아내가 외출을 하거나 남편이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과의 전화 통화, 외부인과의 접촉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다. 또한 베트남 이주 여성 아내는 한국의 실정에 미숙하고 언어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나타난 어머니의 소극적 대인관계 형성은 자녀들의 성장과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모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다. 아내가 좋지 못한 행동을 배울 것에 대한 남편의 염려는 소극적인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버지들은 아내를 차츰 긍정적인 대인관계로 연결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남편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한국어 공부하라고 해서 등록 했어요. 거기에서 한국어 말하기와 발음 가르치고 요리, 컴퓨터도 가르쳐서 좋아요 거기 가면 베트남 사람 만나고 다문화 사람도 만나서 좋아요. 애기 태어나면 나랑 애기랑 힘들지 않게 말 하고 싶어요. (수영 어머니. 2012. 8. 12)

수영 어머니는 남편의 권유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였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다문화가정 어머니들도 만나는 베트남 자조모임에 참여할 기대와 곧 태어날 자녀와의 대화를 한국어로 자유롭게 할 생각에 기쁨을 나타냈다.

호승어머니의 경우 다른 어머니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남편의 교육에도 열의를 보이며 부모교육 수업 중에 컴퓨터에서 남편의 교육이 마치도록 기다렸다가 연구자와 인사를 하고 함께 자녀 교육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았다. 호승 어머니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으나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인해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그러나 한국어머니들과 교

류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던 중 본 연구자의 권유로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스승의 날 일일교사 신청을 하였다. 다음은 호승 어머니의 일일교사 경험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 호승이 스승의 날 도우미로 애 엄마가 신청했잖아요. 약간 발음이 이상하냐고 앞에서 괜찮냐고 연습을 자꾸 하더라고요. “괜찮아. 당신은 잘할 수 있어. 호승엄마 힘내” 라는 말을 해주었더니 애 엄마가 “진짜 힘난다. 호승아 엄마 잘해?” 하며 진짜 좋아 했어요. 스승의 날 베트남 생활 사진 보여주고 쉬운 베트남 말로 인사하는 법 가르쳐주고 전통 옷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선생님도 정말 잘 했다고... 칭찬 받았다고 좋아했어요. 상장도 받아 왔어요. 참 잘한 일인 것 같아요. (호승 아버지, 2012. 5. 6)

한편, 아래 사례에서 한이 어머니의 경우 산후 우울증을 겪은 경험이 있으며 베트남에서 온 친정어머니와도 대화를 하지 않고 남편과도 거의 대화가 없어 가족이 모두 힘들어 하고 있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고 한국어 강좌를 신청하는 데에 동의를 하지 않은 한이 어머니의 경우에는 먼저 한이 아버지가 자녀와 밖에 나가 놀면서 어머니도 함께 나가도록 천천히 유도하기로 하였다.

매일 늦게 들어오고 하니 애는 엄마와 놀고 싶은데 엄마는 힘들다고 성질만 내고, 부끄럽다고 안 나가고... 나는 매일 바쁘고, 늦게 오니 애도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걸 몰랐다니... 애에게만 불뚱이 튀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말 저녁엔 항상 애와 놀이터에서 뛰려고 해요. 지금 4주째 계속 하구 있어요. 4번이지만 애랑 많이 가까워지고 한이가 이젠 공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때 애 엄마는 좀 쉬고 어느 날은 먹을 것 갖고 나와요. 그때 옆 동네 사는 아이가 항상 나와서 같이 놀아줬더니 그 애 엄마가 정말 좋아해요. 한이도 친구 생겼고요. 애 엄마와 인사도 몇 번 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많이 진전되었죠? (한이 아버지, 2012. 7. 22)

할머니랑 나가는 것도 연습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이도 할머니랑 많이 놀이하는 법을 알아가지고 잘 놀더라고요. 함께 애 엄마도 나와서 햇별 쪼라고 했어요. 햇별이 좋다고 했잖아요. 약간 시원한곳에서. 쌍둥이들도 해주니... 온 식구가 저녁 빨리 먹고 놀이터에서 논다니까요. 장모님도 점점 다른 사람의 의식을 잘 안하는 거예요. 자꾸 베트남 말이 나오니까 아마 의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애 엄마도 똑같은 생각이지요. 우리 가족이 활동적이 되고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되어 참 좋아요. 우리 집이 반 지하라 어둡고 바람이 안 통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방에서 잘 안 나왔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창피해서... 다문화가정 그러면 다 쳐다보는 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이젠 더 안 그래요. 뭐 어때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맘껏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게 해야 하잖아요. 내가 맘먹기에 달라진다고 아빠인 가장이 생각을 바꾸니깐 확실히 집안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집에 흐르는 우울한 생각을 바꾸려고요.

(한이 아버지. 2012. 8. 12)

적극적인 한이 아버지의 태도로 인해 어머니도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갖게 되었고 대인관계에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딸의 양육을 도와주려 베트남에서 온 장모는 바깥에서 손자와 함께 놀이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외국인이라 쳐다보는 것에 대해 거의 의식을 하지 않게 되었다.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전에 한이 아버지는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한이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기로 하여 아버지의 적극적인 외부 활동으로 아내와 한국인 어머니들과 친해질 수도 있고, 한이도 한국 아이들과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처럼 아버지들은 적극적인 대인관계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함으로서 어머니들의 적극적인 대인관계가 어머니들의 소극적인 양육에서 적극적인 양육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생각 변화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가족의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아버지들은 부모교육 시간에 이야기 나누는 경험을 함으로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아내의 넓은 대인관

계 관계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녀양육비 절감 방안 모색

(1)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협력 활용하기

본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이민자가정들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생활비 충당도 어려운데 자녀양육비와 사교육비의 지출은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부모교육을 진행하면서 자녀양육에 관한 비용을 줄이는 대안방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다문화가정지원을 많이 해준다고들 하는 것을 들어보긴 했어요. 이렇게 많은 교육을 시켜주는 줄 몰랐어요. 사실 나는 전혀 그런 거 몰라요. 애 엄마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애 키우는데 드는 돈이 많이 드는 줄 알아서 걱정만 했어요. 산모도우미도 교회 아는 분이 신청해 줘서 그렇게 받았는데…
(한이 아버지, 2012. 7. 20)

있다는 것은 알아요.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 서로 통해서 뭐를 해 주는 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신청하고 뭐 준비하고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서 집사람이 알도록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정보인데 활용을 못해요. 애들도 방문서비스 신청해야겠어요.
(호승 아버지, 2012. 7. 20)

이런 좋은 것은 알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라도 저축을 해야 할 판에… 우리가 해결할 줄 아는 것만 알고 있어요. 고마운 정보죠.
(남영 아버지, 2012. 8. 5)

산모 도…도우미 우리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어머니 오시지만 수…수영이 때는 어머니랑 수영 엄마랑 싸웠어요. 동생 내년엔 태어나면 다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거든요… (수영 아버지. 2012. 7. 20)

아이들 한글교육도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 좋은 정보예요. 들긴 했지만. 애들 한글교육을 맡기는 것과 아내도 함께 한글 교육신청하면 일석이조지요. (한이 아버지. 2012. 8. 12)

부모교육과정 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결혼 이민자의 자녀에게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 생활 서비스, 독서 도우미 방문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방법 등 가정지원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아버지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신청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정보에 미약하여서 서비스에 대한 종류와 지원에 방법에 대하여 정보가 없었으며 실제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드는 비용이나 사교육 지출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고 있었다.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아버지들은 논의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방법을 모색하였다.

한편, 대안을 모색하던 중에 주민센터에 영어강사로 일하는 영화아버지는 주민센터의 강좌에 등록된 아파트 부녀 회원들과 연결을 함으로써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돌려쓰는 일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아버지들은 집에서 쓰지 않는 가전제품, 옷, 책과 장난감 등 물건을 지원을 받게 된 경위와 참여자들 간에 서로 물건을 교환하여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금요일에 폐지를 수거하는데 그때에 아이들이 다 읽고 내놓은 동화책이 많다고 해요. 부녀회장님이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모아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실로 보내 주기로 했어요. 또 반상회 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다른 부분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가전제품 안 쓰는 것, 이런 것들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까운데 잘되었다고... 그냥 버리는 것이 참 많대요. 책도 가져다 보고 다보고 나면 다른 집에 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영화 아버지. 2012. 7. 15)

사실 지나가던 아파트에 버려진 것들 중에 꽤 쓸 만한 것들이 많이 봤는데 남 눈이 무서워(웃음) 눈독만 들이고 그냥 지나간 적이 많았거든요. 사실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깨끗하게 다시 세탁만 잘하면 되죠. 안 그래요? 요즘은 빈티지가 대세 아니에요? (웃음) 남을 의식하는 거죠. 우리의 양반의식이 아닐까 봐요. 다행인 것이 아내는 상관없어 해요. 베트남에서는 그런 것도 없대요. 그런 게 고마워요 미안하구... 그런 것 챙겨 주면 우리야 좋죠.

(종희 아버지. 2012. 7. 15)

우리 집이 제일 많이 혜택을 받아요. 우리 애 옷을 7벌이 왔다니까요. 축구화 1개, 애 엄마 옷도 입을 만한 것 4벌 골라 왔어요. 믹서기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애 옷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겐 큰 절약이 되요. 살기 빠빠한테... 생활에 보탬 되고... 너무 고맙죠.

(한이 아버지. 2012. 7. 22)

아버지들은 지원을 받고 싶었지만 남의 눈을 의식을 하였기 때문에 꺼렸다고 말하였고, 아파트 부녀회와의 연결을 통해 물건을 서로 돌려쓰는 것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원과 함께 연구 참여자들 간에서도 자녀가 사용하였던 물건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한국의 높은 물가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대하여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물가 너무 비싸요. 베트남은 안 그래요. 남편이 돈 벌어서 우리 베트남 가서 살 것도 생각해 봐요. 애들 교육도 베트남은 이렇게 공부 안 시켜도 돼요. 한국은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못할 거 같아요. 애 교육비 너무 비

싸요. 나는 공부 못시켜요. 베트남에서는 잘 살 수 있어요.

(호승 어머니. 2012. 8. 5)

이렇게 아버지들은 한국에서는 교육비가 비싸서 다문화가정 부부가 자녀 교육을 시키기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 나라인 베트남에 가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며 서로 대안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다른 의견으로는 정부가 다문화가족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에 공감을 하였다. 가정에서 안 쓰는 물건은 서로 돌려쓰기도 하고 재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다른 방안으로는 물가가 싼 어머니 나라에 가서 자녀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아버지들은 소극적으로 경비절감을 하고자 노력하던 생활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실생활에 도움과 생활비 절감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려 하였다.

이상과 같이 소집단 부모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에게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이 가정에서 중요함을 알게 되면서 자녀양육에 능동적인 참여를 하게 되었다. 또한 아버지는 아내에 대하여 이해와 지원을 하게 되었다. 즉, 아내에게 자녀양육 방법을 알려주거나 친정에 대한 아내의 경제적 지원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어 습득을 돕는 변화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변화됨으로 어머니와의 갈등이 완화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남편은 지금까지 아내에게 대했던 태도를 바꾸어 아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고 베트남의 양육문화를 이해하면서 아내와 협력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아내의 대인관계를 이끌어 줌으로써 아내와의 갈등이 완화되었다. 또한 자녀양육 비용절감에 대한 방안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협력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베트남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베트남 문화 이해와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소집단 부모교육 과정에서의 부모교육자 역할과 아버지들의 변화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논의

1)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이 겪는 어려움

본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는 과중한 책임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한 어려움,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어려움, 부부간의 이해 부재로 인한 어려움, 자녀양육과 관련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못하여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들은 과중한 책임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의 아버지들은 한국생활에 익숙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기저귀 고르기, 분유 사기, 병원 가기, 마트 가기 등 생활 전반에서 일상적인 양육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를 대신하여 자녀의 준비물 챙기기, 자녀 학원 보내기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의 아버지는 일반적인 아버지의 역할과 더불어 어머니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자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들은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역할로 여겨왔던 언어와 요리 가르치기, 은행업무 도와주기, 청소, 빨래 등 가사 일을 도와주고 같은 종교생활도 함으로써 일상적 생활 전반에서 도움을 주

고 있음을 보고한 연구 결과(강유미, 2009; 한현이, 2011)와 유사하다. 그러나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이은하(2010)의 연구에서 한국 남편들은 양육지원이나 가정 일에는 크게 참여하지 않음을 보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는 대부분 나이가 많고, 저학력, 저소득층으로 일용직이나 노무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거나 휴식시간이 부족하여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순희(2004)의 연구결과 아버지들의 근무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녀양육 참여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이 직장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내의 몫까지 대신하면서 가사와 양육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인내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은 자녀양육 과정에서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자녀양육에 대하여 무력감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남에게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없는 외모,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남편이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무력감, 그리고 부모로부터 배운 나쁜 습성이 자녀에게 세습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Belsky와 Isabella(1985)에 따르면 아버지들은 부친의 양육태도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은 자신의 부모가 보여준 양육태도를 비슷하게 답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러한 자신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도 전달되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면서 아버지 역할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공수연(2009)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은 경제적 능력, 외모, 사회적 위치가 부족하여 한국 여성과 결혼하지 못하고 외국인과의 결혼하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생활 전반에서 위축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위축된 아버지들이 자녀양육과 결혼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지속

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존감이 더욱 낮아지고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여성과 결혼하지 못하였다는 자의식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이호준, 2010; Lee, 2010)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버지들은 부정적이고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는 무능력함을 드러냈다(김소영, 1996). 이런 결과들은 자존감이 낮은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 스스로가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배제하고 본인의 강점을 발견하며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어 자신감 있는 남편, 능동적인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은 아내가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숙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녀양육을 자신이 대신하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한국에 온 후 평균 6.6개월의 이후에 임신을 하고 한국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기 이전에 출산을 하게 된다(Kim, Hwang, Chang, & Kang, 2008).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어머니들은 서툰 한국어로 인하여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에게 필요한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더군다나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어머니는 대부분 20~24세의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려는 마음의 준비 없이 결혼을 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이 어린 어머니들은 자녀의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영아의 요구를 지나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로 나타나기도 하여 아버지가 대리 양육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이 어릴수록 양육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임혜경, 1998; 한경선, 2008)와 유사하지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자녀의 양육 태도에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김영옥, 임진숙, 정상녀(2008)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및 남성의 가족생활

적응을 연구한 선행연구(김계하, 선정주, 오숙희, 2013; 박재규, 2009) 결과 국제 결혼 이민자와 남편의 연령 차이가 크지 않을수록 가족생활 적응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내와 남편의 연령 차이가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할 때 젊은 여성을 선호하기 보다는 적절한 연령대를 고려하고 국가별 예비 배우자의 특성을 반영한 결혼준비 교육을 하는 것이 가정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베트남 결혼 이민자 어머니들은 친정에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두고 취업을 하려고 하였다. 설동훈 외(2006)의 결과에서 베트남 이민자가정 부모들은 보육비용이 부담되어서 다문화가정 중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가장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어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빨리 보육시설에 보내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12년 1월부터 소득하위 70%이하 가정의 0~5세 유아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낼 경우 보육료와 학비가 전액 면제됨에 따라 어머니들은 무상으로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려고 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아내가 취업을 해서 친정과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보다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 주기를 원하는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진 아버지들은 아내의 행동에 불만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부부가 함께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어 있고 서구의 영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경제활동을 원하기 때문에(Bui, 2012) 베트남 이민자가정 어머니들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행동이 아버지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민자가정이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트남 이민자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남편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베트남 이민자가정에서는 부부간의 이해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들이 자녀를 양육이나 훈육을 할 때 한국어 미숙으로 자녀 행동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어머니들을 이해하기 힘들어 하였다. 조모는 어머니에게 자녀와 베트남어로 대화를 하지 못하게 만류하고 어머니 또한 베트남어를 사용하면 한국어 습득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모국어 사용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요구에 ‘안 돼’, ‘이놈’, ‘뻑!’ 이라는 간단한 말로 자녀의 요구에 대답을 하므로 자녀들은 아버지와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였다. 민성혜, 김경은, 김리진(2011)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는 적당한 한국말이 어려워 ‘안 돼’ 라는 말만 사용하다 보니 ‘엄마는 항상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녀에게 소외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 자녀양육에 위축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에서 잘 쓰이지 않는 외국말을 가르치는 것을 주변사람들이 원치 않아서 더딘 한국말로 하다 보니 자녀와의 중요한 시기에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들(강선자, 손수민, 2011; 서현, 이승은, 2007; 이영애, 2012)과 같은 맥락이다. 김유순, 오영숙, 안현화(201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모국어를 배우는 것은 어머니와 자녀간의 애착 형성과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내의 모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하는 것이 부부관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서원준(2010)의 연구에서도 자녀들은 어머니가 외국인이라서 부끄럽게 생각하기 보다는 외국어를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세계화된 감각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이중 언어를 제공 할 필요성이 있다.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가족들은 어머니에게 자녀에게 감정과 사고를 표현하는데 어려운 한국어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위축된 양육태도에서 벗어나 국제화된 시대에 어머니 나라 언어인 베트남어로 표현하도록 허용하여 자녀에게 다양한 언어 환경이 제공되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부부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어머니는 자신이 성장해 온 배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자기 나라의 양육방식으로 양육하려 하였고, 한국 아버지는 자녀가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식 양육문화를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아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문화적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 심선진(2004)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무조건적으로 한국식으로 키워야 한다는 아버지들의 가부장적인 태도는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고(강상일, 2004; 한건수, 2006), 가정에서 부정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기 쉬우므로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교육이 중요하다(채옥희, 홍달아기, 2008).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은 아내가 한국문화에 동화되기를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베트남의 문화이해를 통해 상호 소통이 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베트남 여성들에게 베트남에서 결혼 수속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베트남에서 한국문화를 익히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남성들에게도 베트남 입국 전에 생활 베트남어와 베트남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한편 베트남 이민자가정에서는 남편이 알고 있는 양육 지식과 아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발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자녀에게 나타나는 문제 행동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도 과거에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양육 방식을 자녀에게 적용하려 하였으나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을 겪게 된다. 이는 이주여성과 한국 배우자와의 양육태도와 방식에서 불일치로 나타나고 갈등으로 연결 된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들(박진옥, 서은주, 2011; 보건복지부, 2005; 신경희, 2004)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이주 여성인 아내는 한국인 모임인 부부동반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으려 하고 주로 베트남 친구들과 만나면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남편은 베트남 자조모임에서는 베트남어로 대화하므로 한국어 습득을 더디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끼리 만나려는 아내와의 인식차이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들의 대인관계에 대해 정성미(2010)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 여성들만의 자조모임이 현지의 적응을 더디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낯선 한국 땅에서 자기 나라 친구와 베트남어로 대화하면서 결혼생활의 어려움에 대하여 소통하고 공통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문화적 충격을 완화하게 되고 고립에서 벗어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대부분 한국-베트남 가정의 부부 자조모임에서는 주로 결혼정보에 관한 의견과 다양한 다문화 가정의 혜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므로 한국 생활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정성미, 2010).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제한된 인간관계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조모임 육성이 장려되어 같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과 정보교환과 상호지원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지원에서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베트남 이민자가정 대부분이 일용직이나 파트타임으로 맞벌이를 하지만 낮은 소득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을 힘들어 하고 있었으며 일반가정의 부모처럼 사교육을 시키고 싶지만 한글 방문학습지 교육을 시키는 것 외의 사교육비 지출은 부담스러워 하였다. 이진숙(200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에서 부모들은 사교육을 원하지만 경제력이 어려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1:1 학습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싶지만 아버지들이 대부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장래에 경제력이 약화될 것에 대한 염려를 하며 한 명의 자녀라도 잘 키워보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나이가 많은 아버지는 자녀의 교육비 지원이 불확실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더 이상 자녀를 낳는 것을 원치 않으며 다문화가정에서 이주여성의 출산은 배우자와의 연령차이가 출산을 결정한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Chen, 2008; Kim, 2008). 그러므로 다문화가정에서는 어휘력과 학습이해도가 낮은 자녀에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교육을 시켜 줄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학습부진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학습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 소집단 부모교육에서 나타난 교육자의 역할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위한 소집단 부모교육에서 부모교육자는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내용 구성하기, 소외되고 억압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하기, 베트남 이민자가정에게 필요한 양육 지식 제공하기, 상호 감정교류를 통해 정서적으로 공감하기, 개별 가정에 적합한 교육 제공과 역할 수행 돕기, 반복적인 격려와 정서적 지원하기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부모교육자는 아버지들에게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제공하였다. 부모교육의 내용은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의 어려움과 요구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는데, 아버지들 뿐 아니라 어머니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내용에 어머니교육을 포함하였다. 이런 결과는 가족 구성원을 함께 참여시켜야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오영희, 1993). 아버지 부모교육의 주제로는 ‘자아인식과 자존감 높이기’ 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이 강화되도록 교육하였다. 김정희(1999)의 연구에서도 아버지들이 가장 희망하는 부모교육의 내용은 ‘아버지의 자신감 갖기’ 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계획하고 구성하

기 위해서는 학습자인 아버지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이호준, 2007).

또한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부부들에게 친밀감이 강화되도록 목표를 두어 ‘소중한 우리 가족’, ‘아내와 친밀한 관계 개선’을 통해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자녀와 친밀한 관계에 목표를 두고 주제를 정하였다.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은 자녀와의 관계가 주된 목표이나 부부간의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프로그램의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이윤정, 강기정, 강복정, 2010). 또한 아버지 교육에서는 베트남의 문화를 주제로 다룸으로써 한국문화로만 동화되기를 바라지 않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각 문화이해 교육을 다루었다. 어머니 부모교육 주제에서는 한국문화와 예절, 풍습, 음식, 자녀 양육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계획하여 어머니 역할에 자신감이 생기도록 부모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역할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자신이 자녀교육에 대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민성혜, 김경은, 김리진, 2011), 어머니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머니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교육자는 소외되고 억압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아버지들은 부모교육에 참여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고, 교육의 기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대집단 형태로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것이 전부였다. 소집단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처음에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토론하는 소집단의 수업진행을 따르기에 다소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과 친분을 맺고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 내놓기에 꺼려하였다. 본 연구자도 아버지들에게 적합한 부모교육 방법에 대한 부담감으로 고민을 하였다. 이경화, 김연진, 배지연(2010)의 연구에서도 교사로서 부모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심리적 부담감이 있지만 강한 사명감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부모교육을 하러 오면서 아내와 자녀를 동반하고 오는 경우를 위해 상담실 옆 빈 방에 자녀와 아내가 쉴 수 있는 가족 쉼터를 만들어 환경 구성을 배려함으로써 아버지들이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경감되어 부모교육 수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윤소영(200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아버지들 서로간의 대화가 적극적인 참여 가운데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집단 부모교육에 모인 아버지들은 서로 자신들과 비슷한 환경이라는 공감대를 점차 형성하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다른 고민들을 드러내놓기 시작하였다. 소집단 부모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부모들의 마음이 부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문제를 스스로없이 드러내 놓을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함께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교육자는 아버지들에게 베트남 이민자가정에 필요한 양육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론뿐 만이 아니라 영상보기, 시청각자료 제공하기, 상황극 연출하기, 자녀와 놀이 시연하기, 실습하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무료 지원 상담하기 등 실천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어머니들과는 다르게 정적이기 보다는 동적인 부모교육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윤소영, 2002). 아버지들은 이런 수업과정을 통하여 가정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터득하고 배운 것을 아내에게도 전달할 수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자신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홍은경(2003)의 연구에서는 가르치기 단계로 교육자가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진단하여 이론과 상황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여 안내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결과와 내용이 상통한다. 특히, 아버지 교육은 일반적인 이론교육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면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아버지들이 쉽게 실생활의 문

제에 닥쳤을 때 자연스럽게 실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모교육으로 제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부모교육자는 아버지들의 부정적인 경험과 결혼하기까지 어려웠던 지난 과거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감정을 공유하면서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을 하였다.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위해서 부모교육자는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 판단하거나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Rogers, 1959). 이영미(2006)의 연구에서 교사교육자는 교사들이 학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힘들어하고 감정이 상했을 때 교사들의 마음을 지지하고 마음의 응어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감정을 공감해 주고 수용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자는 참여자의 감정을 선입견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부모교육자와 아버지들은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부모교육자는 감정의 교류를 통해 아버지들 사이에서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배경이 비슷한 경험을 서로 나누는 과정 속에 서로 격려하고 위안을 제공하였다는 Mullen(2005)의 연구를 지지한다. 부모교육자는 아버지들과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정서적 지원을 통해 아버지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 나가며 적극적인 양육참여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부모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경험과 배경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교육자는 각 가정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개인에 맞게 양육에 관한 교육방법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어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는 막상 배운 것을 실행하려고 하면 이제까지 해왔던 습성들 때문에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아버지들이 혼자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연구자는 어머니의 면담을 통해 아버지들이 배운 것을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

도록 어머니나 다른 가족의 노력도 요구하였고 아버지들에게도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교육과정 속에서 지원을 통해 부모교육자와 참여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참여자 스스로 계획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겪는다는 결과(박수미, 2007)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에게 전시성과 일회성으로 그치는 부모교육이 아니라 교육대상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반복지원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부모교육자가 양육지식을 반복적으로 보완하여 알려주고 격려해 줌으로써 아버지들이 적극적인 양육참여와 자녀양육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아버지들은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함께 부모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격려를 통하여 혼자라도 수업을 받으려고 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자는 아버지들에게 헤이해진 부분에 대한 양육지식을 제공하여 격려 해주었다. 아버지들은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을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녀교육에 대해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해 무관심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에 반해(조경숙, 2012)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로의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자녀양육의 주 담당자는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부모교육의 참여를 통해 자녀양육과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기회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배지희, 2008).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이 극대화되기 위하여 아버지들에게 생활 실천기술을 복습하도록 반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이윤정, 강기정, 강복정, 2010).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으나 직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육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부모교육을

계획하여 아버지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장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3) 소집단 부모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변화 양상

소집단 부모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변화는 4가지 양상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자녀양육에의 능동적인 참여, 아내에 대한 이해와 지원,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부간의 갈등 완화, 자녀양육비 절감에 방안 모색으로 나타났다.

첫째,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자신에 대한 무력함이 가정에서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였으나 부모교육을 통하여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서 아버지들은 점차로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과 함께 자녀양육 지원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을 하면서 아버지들은 가정의 요구에 따라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 아버지가 양육참여에 적극적이고 또한 아내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표현을 하면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아버지의 능동적인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며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준다는 이정순(2003)의 결과와 상통한다. 남편의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정에서 이민자 어머니들만의 지원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남편을 중심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먼저 아버지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여 자기 성장을 통해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선행 되어야 한다.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에 자녀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들을 위한 아버지 역할 강화교육과 부부를 위한 부부역할 강화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버지는 아내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들

은 부모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양육방법을 아내에게 알려주면서 어머니들이 부모역할에 대하여 재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부모교육 대상자는 가정생활에서 실제적용을 통해 주도자와 전수자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자녀교육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전애영, 2010).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태도에 영향을 주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어머니 또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 해 볼 때(장재홍, 김태성, 2002)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부모교육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어머니도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되었다는 결과는 남편의 행동이 아내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어머니들도 함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어머니 대상 부모교육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교육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아버지들은 한국에 와서 친정에 지원을 하기 위해 직장에 다녀야 하였기 때문에 임신을 반가워하지 않고 낙태까지 생각하는 아내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부모교육을 하면서 결혼 후에도 자녀양육과 취업을 병행하는 베트남 사회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아내의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처럼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친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정부의 지원은 취업에 필요한 직접적인 교육과 취업이 가능한 다양한 직업군이 부족하다(박현주, 2012). 고혜원, 김상호(2010)는 여성 결혼 이민자는 육아문제와 함께 학력과 경력, 한국어 능력 면에서 많은 격차가 있어 어려움이 나타나므로 보육과 육아 문제를 해결 해줌과 함께 특성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어떠한 직업을 가지던지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필수이므로 직업 기술, 기능교육과 함께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 직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이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 알선 지원 교육과 취업연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적 지원서

비스가 제공되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 어머니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아버지들은 아내들이 한국어에 미숙하여서 자녀와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자녀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언어소통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들은 아내가 ‘미련하여서 한국어 습득이 늦다’고 하였고 또한 아내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혜련(2011)은 이러한 이유로 한국 남편들이 국적취득에 협조해 주지 않고 저지하는 현상으로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국어 습득이 늦어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처음에는 이해하고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자 아버지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Lee(2010)의 연구에서도 결혼 초에는 한국어가 미숙하여서 배우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려고 시도하였으나 결혼생활이 많아질수록 아내에 대해 이질감을 느껴 갈등을 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부모교육을 하면서 유아기의 자녀에게는 부모와의 언어소통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녀의 언어교육에는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시험, 귀화시험 때 한국어 면접시험 대비시키기 등 다양한 한국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옥, 임진숙, 정상녀(2008)의 연구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한국어 습득을 하도록 격려해 주어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남편도 아내의 언어습득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은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며 아내를 무시하는 사고에서 탈피하여 빠른 시일에 한국어 습득을 하도록 적극 지지를 해 주어야 한다.

셋째,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여러 어려움으로 감정이 서로 대립되어 있었지만 소집단 부모교육 과정 중에 부부간의 갈등이 완화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아버지들은 어머니와 많은 갈등 인해 어머니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전달이 되었고, 어머니들은 이것을 자녀에게 표출하였다. 또한 아버지들은

나이가 들어 어렵게 한 결혼이어서 가정이 소중하며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자녀나 아내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색해 하기도 하여 부정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부모교육을 통해 아버지들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아내에게 긍정적인 마음의 표현을 하게 되면서 아내들도 긍정적으로 공감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최지영(2009)의 연구에서도 국제 결혼한 한국남성들은 낯설고 먼 이국땅에 온 아내와 자식들을 보면서 아버지들은 가정의 문제 해결 대안을 찾고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상대방의 양육문화를 이해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은 어린 시절에 경험하였던 양육문화가 서로 다르므로 자녀양육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다(Ho, 1990). 다문화가정에서 가족의 양육 불일치는 가족 전체의 문제로 불거져 갈등을 초래하므로(곽금주, 2008; 권복순, 2009) 본 연구에서는 갈등 해소와 소통을 위해 부모교육 수업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대방의 양육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서로 자기의 것만 강조하지 않고 상대방의 양육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박정윤(2009)은 일방적으로 외국에서 온 아내에게만 한국문화에 동화되기를 강조하기보다는 남편뿐 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쌍방향 문화이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의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시부모, 남편, 외국에서 자녀양육을 도움을 주러 온 장모에게도 문화이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문화가정에서의 문화의 이해는 단지 부부 뿐 만이 아니라 주변사람들 까지 인식변화와 협조가 필요하다.

넷째,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은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녀양육비 절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버지들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으나 일반가정의 자녀들처럼 사교육비에 많은 지출을 할 수 없었고 양육비 지출도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이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 지방, 정부, 민간단체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의 형성이 잘 안되어 있고 체계적이지 못하여서(이무영, 2009)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있지만 접근성의 어려움과 이용의 불편함으로 인해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김성옥(2013)의 연구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모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방법과 혜택의 종류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습지원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의 혜택을 제공받아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이 겪는 어려움은 몇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한국생활에 미숙한 어머니로 인해 과중한 양육책임을 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자아상이 자녀에게 되물림 될 것에 대한 걱정으로 자신과 비슷한 모습이 자녀에게 나타나면 심하게 혼내거나 질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들은 아내의 나이가 어려서 자녀양육 미숙으로 인해 어머니의 역할을 자신이 대신해야 하고 아내들이 친정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직업을 갖다보니 자녀양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어머니들은 한국어가 미숙하여서 자녀들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와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부는 자녀양육에 대해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 차이, 양육 지식의 차이,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의 문제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여 갈등이 누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 아버지들은 거의 나이가 많고 안정되지 않은 직장으로 인해 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어머니 나라인 베트남에 가서 자녀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둘째, 소집단 부모교육 과정에서 부모교육자는 아버지들의 요구와 어려움에 근거를 기초로 하여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버지 부모교육의 주제는 자아인식과 자존감 높이기,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개선, 아버지역할 강화, 베트남의 문화이해, 자녀양육과 교육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대부분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이 친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소홀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자는 아버지들과 문화가 다른 아내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베트남 여성의 일반적인 사회적 역할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들에게 베트남 여성들이 친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한국에 왔으니 한국식대로 따르라는 동화주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호 호혜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사고를 전환하는 수업을 지향하였다. 부모교육자는 아버지들에게 베트남 문화 이해와 토론을 통해 어머니들과 소통이 되고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였다.

어머니 부모교육 주제는 한국의 문화와 풍습, 예절과 자녀양육과 교육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어머니 교육 프로그램은 어머니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후반부에 실시된 부부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부모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각자가 이야기를 나누게 하여 아내와 남편이 서로 격려하고 고마워하는 감정의 표현을 통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미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부의 계획이 제시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부모교육자는 소외되고 억압된 아버지들의 감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도록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주말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에 부모교육을 실시하여서 수업시간 동안에 가족이 함께 와서 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여 아버지들이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부모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베트남 이민자 가정에게 필요한 양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고 아버지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시청각 활용, 역할극, 연습하기, 시연하기, 실습하기 등을 함께 제공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수업은 아버지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배운 것을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하였고, 가정에서 양육 참여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하였다.

부모교육자는 부모교육 시간에 아버지들과의 정서적 공감을 나눔으로써 아버지는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것이 아버지들에게 자신감을 가져다주었다. 소집단 부모교육에서 부모교육자는 자녀양육 지식을 각 가정의 어려움과 요구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고, 배운 것을 매주 과제로 주었다. 이와 같은 수업과정은 아버지들이 배운 지식을 가정생활에서 활용하고 실천함으로써 이민자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부모교육과정에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전화로 질문을 할 경우, 또는 보충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심을 잃지 않도록 격려했고 상담할 내용이 있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정서적인 격려와 부모교육을 마치기 전, 후에 개별적으로 반복교육을 하였다. 이처럼 부모교육자는 아버지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반복하여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재확인 시켜주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과 남편 역할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셋째, 소집단 부모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부모교육을 시작할 때 자신들이 겪었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자아상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과 남

편 역할에 대하여 대부분 무력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배운 것을 가정에 적용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 능동적인 참여를 하면서 아내와 자녀의 긍정적인 반응에 본인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 자신감 있는 아버지 역할을 해내는 변화를 보였다. 이런 아버지들의 양육태도의 변화는 어머니들에게도 적극적인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교육에서 배운 자녀양육 지식을 아내에게 소개함으로써 어머니들도 부모역할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친정에 대한 아내의 경제적인 지원에 대하여 이해를 하게 되었고 부족한 한국어 습득을 하도록 도와주었다.

특히, 아버지들은 가부장적인 양육문화를 주장하고 아내에게만 동화되기를 강요하여서 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으나 아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고 또한 상대방의 다른 양육문화에 대한 지식을 배움으로써 아내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변화에 어머니들도 자연스럽게 협력하여 양육에 참여하려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아내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아내에게 한국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아내들도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는 다문화가정은 자녀양육 비용절감을 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직접 상담하여 신청을 하였다.

이상의 논의 및 결론을 기초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집단 부모교육을 통한 아버지들의 변화에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에게 양육지식과 방법을 전수받아 양육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는 결과를 볼 수 있

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따라 어머니들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의 역할 뿐만 아니라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연구가 계속하여 나오기를 기대한다.

둘째, 소집단 부모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실행하는 아버지들의 노력은 어머니들에게도 양육에 대한 큰 관심과 양육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져다주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들에게도 3회의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머니들을 위한 더 많은 회기의 부모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부부간의 양육 문제는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들의 입장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녀들의 연령이 16개월~7세의 영유아기 부모들 대상으로 하였다. 소집단 부모교육을 하면서 아버지들은 이와 같은 문화이해와 양육지식에 대해 결혼 초에 사전 지식을 갖게 되었다면 아내와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집단 부모교육을 갖 결혼한 이민자가정의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자녀양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베트남 이민자가정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의 연령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부의 연령 차이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는 한국 남성들이 사전에 베트남 이민 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부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홍보와 지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의 대부분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서 부모역할과 남편역할에 무력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소집단 부모교육 과정에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과 함께 가정에서 부모와 남편역할에 긍정적인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한 본 연구와 같이 베트남 이민자가정 뿐만 아니라 국가별 이민자가정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포함된 소집단 부모교육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기정 (2009). 다문화가정 모의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 코칭 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3), 111-125.
- 강기정, 이윤정, 정천석, 권혁상 (2009). 다문화가족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강기정, 이윤정 (2010). 다문화가족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9-102.
- 강경자 (2006). 유아교육기관 미혼원장의 '부모교육하기'에 관한 내러티브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강선자, 손수민 (2011). 영아기 자녀를 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만족도와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결혼이주여성 4인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6(6), 161-188.
- 강유미 (2009). 한국남성과 결혼한 아주여성의 성공적인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운정 (2006).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유형 및 내용분석.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순생 (2001).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의 실태와 정책과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현웅, 김현미, 소라미, 김정선 (2005). 국제결혼 필리핀 베트남 현지 실태조사.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고혜원, 김상호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방안: 언어, 문화 자원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공민정 (2011).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보육 프로그램 요구도 및 기대에 관한 연구. 경남 과학기술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수연 (2009).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의 적응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인하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은숙 (2009). 다문화가족의 고부갈등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인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연구, 18, 123-134.
- 곽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발달과 적응;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다인종·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심리학적 과제와 전망,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26. 8월 20일. 서울; 육군사관학교.
- 곽정선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 구미경 (2001). 어린이집의 부모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 권복순, 차보현 (2006).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3), 109-134.
- 권혜진 (2002). 유치원 초임 교사와 경력교사의 협력적 멘토링 적용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갑성 (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실태조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 공진희, 이민경 (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가정유아 부모의 특성과 유치원 참여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9(4), 311-335.
- 김경옥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의 부모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하, 선정주, 오숙희 (2013). 여성 결혼이민자 남편의 스트레스, 자존감 및

- 무력감.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1), 29-39.
- 김금자 (2009). 다문화 가족의 자녀교육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베트남 결혼이민자가족을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태 (2012). 전환기의 베트남. 서울: 조명문화사.
- 김낙홍, 장소정 (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6(4), 121-138.
- 김두섭, 송유진 (2013). 거주지역 외국인 아내의 비중과 가구구조가 혼인이주여성
의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주변효과의 검증. 한국인구학, 36(1), 51-74.
- 김미숙 (2009).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희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희 (2012). 농촌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서의 아버지 역할: 경상남도 의령군
과 함안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현 (2011).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토 경험.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희 (2011). 농촌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서의 아버지 역할.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 김경은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결혼
만족도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순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유치원 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일 (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
여성인권 센터 3주년 기념심포지엄, 한국 이주여성인권센터.
- 김선희 (2013). 베트남어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억양 교육 방안 연

- 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옥 (2013). 다문화이혼가정 중국인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지원서비스의 문제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영 (1996).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영 (2009). 협동조형활동을 통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재 (1987). 유치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 임진숙, 정상녀 (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양육 태도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43-164.
- 김영천 (1996). 질적. 후기실증주의 연구 작업에서 고려해야 할 방법적 이슈들. 교육과정 연구, 14(3), 41-72.
- _____ (2006).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아카데미 프레스.
-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6).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부부갈등 결정 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3), 63-108.
- 김유경 (2009).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151, 29-52.
- _____ (2011). 다문화가족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75, 45-62.
- 김유경, 조애저, 최현미, 이주연 (2009).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순, 오영숙, 안현화 (2012). 국제결혼 한국남성의 결혼생활 어려움과 적응전략. 정신보건과 사회산업, 40(4), 349-378.
- 김은주 (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7).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연구보고서.
- 김정옥, 전형미, 이현혜 (1992). 자아존중감, 부부간 의사소통 및 결합력이 아내 학대에 미치는 영향. 여성문제연구, 20, 21-44.
- 김정원 (2008). 독서토론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원, 이기숙 (1999). 보육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183-197.
- 김정희 (1999). 유아를 둔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7, 251-292.
- 김지현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위한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성 (2009). 멘토링을 통한 아버지 역할 회복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 이근무 (2009). 국제 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회지, 61(1), 135-162.
- 김진영, 김정원, 전선옥 (2000). 유아· 부모· 교사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창지사.
- 김춘화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한나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상호작용행동 분석.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2006). 국제 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한국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0-37.
- 김현수, 최연실 (2012).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 관련 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 여성, 17(3), 435-456.

- 김현재 (2007). 베트남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민: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 52(2), 219-254.
- 김혜경 (2005). 결혼초기 부부의 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 박수강, 서지혜, 성지영, 신미숙, 조희경 (1997). 아버지의 스트레스와 자녀양육실제와의 관계. *생활과학*, 30, 80-84.
- 김혜련 (2011). 다문화시대 여성결혼이민자의 시민권에 관한 연구: 중국여성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선, 김명자 (1992). 배우자선택과정과 결혼적응도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13-131.
- 김희태 (2001). 유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다문화(multiculture)의 의미. *영유아보육연구*, 7, 1-18.
- 김희진 (2002).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교육학회*, 40(6), 239-260.
- 남광수 (2009). 부모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복현 (2012). 한국과 베트남 국제결혼을 통해 본 다문화가족의 이해. 서울: 장서원.
- 노미향 (2009).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진형 (2005). 반성적 사고중심의 모자 상호작용 증진프로그램 및 발달 지체아 모자에 대한 적용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도순복 (2011). 임신부 대사 영양 플러스 프로그램 평가.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모경 (2010). 한국 다문화가족의 문제와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가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무경 (2010). 유아교육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의 정책동향과 교육. 2010 한국 유아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다문화 사회에서 유아, 부모, 교사의 역량강화, pp. 25-40.
- 문성은, 방은령 (2012). 충청남도 결혼이민자 현황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359-384.
- 민성혜, 김경은, 김리진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성 증진. 아동학회지, 32(1), 31-49.
- 박미경 (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 엄정애(2007). 결혼이민자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8(2), 115-136.
- 박선옥, 김하림, 최수현 (2010). 자녀교육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결혼 이민자 특별 교육 프로그램 설계. 인문과학연구, 26, 551-574.
- 박수미 (2007). 멘토링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변화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순희 (2009).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 28, 125-154.
- 박영아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경험과 보육교사의 보육경험 실태. 유아교육연구, 30(1), 197-223.
- 박윤경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지능에 관한 연구.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 (1981). 유아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유치원을 중심으로. 교육학 연구, 19(2), 108-129.
- _____ (1996). 반성적 사고와 유아 교사교육. 유아교육학회, 16(1), 175-192.
- 박재규 (2009).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및 남편의 가족생활 적응연구: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26, 137-163.

- 박정윤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7, 31-62.
- 박진옥 (2011). 결혼여성 이주가정의 부부관계 및 고부관계에서 나타나는 적응과 갈등,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옥, 이은경 (2011).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변용과 자녀교육관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6), 433-458.
- 박해미 (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주 (20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 욕구 반영 비교 연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지희 (2008).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부모참여 실제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교육인류학연구*, 11(1), 147-176.
- 배지희, 조미영, 봉진영, 김은혜 (2008).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 및 참여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과 기대. *유아교육학회지*, 31(3), 279-304.
- 법무부 (2008). *보도자료*. (2008. 12. 17).
- 법무부 (2009). *지역별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 법무부 (201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및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정책 방안*. 과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 보건복지부 (2009).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부썬 투이 (2009).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 서울: 대원사.
- 서수정, 김태련, 이경숙, 신의진 (2007). 어머니-영아 안정애착 형성을 위한 예방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효과. *한국심리학회*, 12(1), 21-42.
- 서영희, 권미량, 김은주 (2006).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참여 인식과 요구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6(6), 33-57.

- 서원준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주 (2011).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사례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현, 이승은(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설동훈 (2006).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국회도서관보, 43(5), 2-3.
-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내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설동훈, 이혜경, 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 정책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설동훈, 윤홍식 (2005). 국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 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247-265.
- 성지혜 (1996). 중국교포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복희 (2001). 유아교육기관의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유니 (2001). 능력강화를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과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이화교육논총, 12, 165-181.
- 신경희 (2004).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한국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난희 (2005).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여성의 생애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

- 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상준 (2009). 여성의 지위와 한-베 다문화가족. 베트남 연구, 9, 25-66.
- 심인선 (2010). 결혼이민자의 취업 및 직업훈련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65, 36-46.
- 신현식 (2011).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경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선진 (2004). 국제결혼과 여성폭력-국제결혼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워크숍 자료실. 전라남도 여성정책과.
- 안부금 (2002). 구성주의 이론에 기초한 유아과학교육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전행정부 (2013). 2013년 외국인 주민현황 보도자료. 2013. 7. 3.
- 양선화 (2004). 상담사례에서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전남 광주시 국제결혼한 이주 여성 실태 보고 및 토론회. 광주여성의 전화.
- 양순미 (2004). 성별에 따른 농촌부부의 행복정도와 가족건강성 변인의 효과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53-172.
- 양옥경, 김연수 (2003).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 연구. 사회복지학 연구논집, 11, 115-147.
- 여성가족부 (2005). 국제결혼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결과 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_____ (2010).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안내 2010.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오성배 (2005). 코카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32(3), 61-83.
- _____ (2005). 한국사회의 소수민족, '코시안'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 연구, 16(4), 137-157.

- 오영희 (1993). 2세 유아를 위한 가정방문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옥선, 김성봉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259-278.
- 오정선 (2011).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화선 (2012). 적극적인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안석, 한건수, 양명희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적응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 유동미 (2003).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정도와 부모교육 요구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보미 (2011). 베트남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문화감지도구 개발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신 (2008).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의 실태와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소영 (200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도 및 요구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초현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형숙 (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 등(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pp. 321-349).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이기숙 (2000). 유아교육과정. 서울: 교문사.
- 이경아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화, 김연진, 배지현 (2010). 유아교육기관의 ‘유아문학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실험연구.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11(2), 153-177.
- 이경화, 임희정 (2012).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아버지가 경험하는 자녀양육에 관한 이야기. *열린유아교육연구*, 17(5), 69-98.
- 이금연 (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체 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pp23-48.
- 이금진 (2008). 언어치료와 함께 실시한 소집단 부모참여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발달지체 영유아의 상호작용 행동 및 영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금진, 송준만(2008). 소집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발달지체 영유아의 상호작용행동 및 영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 연구*, 42(4). 1-25.
- 이명순 (2011). 보육시설 부모 참여에 대한 시설장과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학 논문집*, 15(4), 23-43.
- 이명지 (2010). 반성적 소집단 부모교육 모임의 경험과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무영 (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실태 및 서비스에 관한 기초 연구. *광신논총*, 18, 291-321.
- 이미혜 (2004).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와 아버지의 인식 및 교육실제 비교. *카톨릭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삼식, 최효진, 박성재(2009).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인구의 양적,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성한 (1997). 임상장면에서의 소집단 부모교육활동과 바람직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행동변화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1, 145-168.

- 이순희 (2004).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보상, 대가,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아름 (2012). 아동이 인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유형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의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승, 김덕숙 (2002). 그림책을 이용한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어머니의 언어유형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1), 1-28.
- 이영미 (2006). 멘토링을 통한 2세 영아교사의 보육 프로그램 수행과정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애 (2012).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 생활과 육아경험에서 오는 갈등과 소망. 유아교육학논집, 16(50), 435-457.
- 이영주 (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이 (2007).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정, 강기정, 강복정 (2010). 다문화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 223-239.
- 이윤호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애착,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하 (2010).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권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이야기:경북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14(3), 109-129.
- 이지원 (201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

- 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선 (1998). 초등교육 연구방법으로서의 문화기술적 연구: 방법과 시사점. 초등교육연구, 12(1), 187-207.
- 이정순 (2003). 유아기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4(3), 99-108.
- 이정순 (2003). 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2), 183-199.
- 이진숙 (200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12(6), 21-42.
- 이진희 (2009). 이주여성 어머니 교육 프로그램이 모성역할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 및 신생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호준 (2007). 부모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성찰과 전망: 참가자 관점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8(3), 247-268.
- 이호준 (2010).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결혼 적응 과정. 아시아교육연구, 11(4), 119-143.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인봉숙 (2002). 한일 국제 결혼 가정 2세의 한국생활 적응 실태조사 연구: 천안시 거주 통일교인 가정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1), 137-159.
- 임은미 (2013). 활동 중심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자아존중가 양육태도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은주 (2011).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관한 사례 연구. 양육일기 쓰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향, 이응표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및 우울감의 조절효과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2), 49-70.

- 임태희 (2010).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희정 (2012).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혜경 (1998). 신생아발달 사정 시범이 초산모의 모아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영희 (1997). 유아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개념 및 교수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연구논문집, 37, 295-314.
- 장영희, 김희진, 엄정애, 권정운 (2007). 생애초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자녀 발달지원 프로그램 개발방향.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장은정, 박정운 (2009). 결혼이민자가정 한국인 남편의 가족관련 가치관 및 문화적응태도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1(2), 1-27.
- 장은정 (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재홍, 김태성 (2002). 아버지의 자녀양육 행동과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및 자녀 양육태도간의 관계. 청소년 상담연구, 10(2), 123-139.
- 장혜진 (2006). NLPia 코칭 프로그램이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만길 (2005). 외국인 주부 한국생활 실태 조사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애영 (2010). 한국문화의 탄력적 부모교육 프로그램. 상담과 지도, 45, 361-374.
- 전혜경 (2010).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의 언어이해 능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홍주, 배소영, 박금주 (2008). 결혼이민자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필리핀과 일본 어머니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

- 화, 20(3), 161-186.
- 정계숙, 고은경, 차지량, 박희경(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 연구: 모자치료놀이의 적용. 열린유아교육학회, 17(6), 1-76.
- 정기선 (2007).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장단기 계획. 경기도 가족 여성 개발원 편.
- _____ (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0, 68-103.
- 정보미 (2013). 영아기 첫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부모교육 현황 및 요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영 (2007). 결혼이민어머니의 개인 특성, 부부 적응 및 유아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미 (2010).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수경 (201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정순화(2008). 부모교육. 서울:학지사.
- 정인오 (1994). 사회교육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희 (2006).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보육시설 적응.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 인적자원 지원센터.
- 정천석 (2009). 국제 결혼이주여성, 한국사회에 적응하는가. 경기: 한국학술정보.
- 정혜경 (2009).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문화적응에서 나타나는 갈등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경림 (1997). 부부의 커뮤니케이션 단계에 따른 결혼 만족도. 침례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경숙 (2012). 농촌지역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아버지의 자녀교육 역할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영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영유아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멘토링 과정 탐색.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미영, 배지희 (2009). 부모의 교육참여에 대한 유아교사의 담론 분석. 아동교육, 18(2), 221-234.
- _____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영유아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멘토링 과정 탐색. 유아교육연구, 31(6), 427-453.
- 조선닷컴(2005, 3, 21). 국제결혼.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조용환 (2008). 질적 연구의 원리와 기법. 한국무용학회 연차학술대회자료집, pp. 18-37.
- 조일현, 성승연 (2011). MBTI를 적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동국성신과학회지, 14(1), 73-89.
- 지은숙 (2007). 국제결혼한 가정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옥희, 홍달아기 (2008). 피해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 남편의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91-897.
- 최경숙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병욱 (2003). 19세기 남부베트남의 여성상: 음탕함과 그 함의. 동남아시아 연구, 13(1), 165-198.
- _____ (2006). 동남아시아사-전통시대. 서울: 대한교과서.
- 최연선 (2013).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 이민자의 거절 화행 전략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실, 이순형, 문무경 (2008). 농촌거주 결혼이민 여성의 발달과 적응. *인간발달연구*, 15(3), 225-248.
- 최윤희 (2006). 반응적 의사소통 전략의 적응을 위한 어머니교육이 발달지체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의신 (2008). 베트남 국제결혼 가정의 가족생활 실태와 가족기능.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울산시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영 (2009).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남편으로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 225-254.
- 최진희 (1996). 장애영아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연구. *특수교육논총*, 13(1), 1-16.
- _____ (1994). 장애유아 교사의 부모관과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논총*, 11, 159-189.
- 최형성 (2011). 여성결혼이민자 집단과 한국어머니 집단의 양육 및 아동 관련 변인 비교. *유아교육학논집*, 15(3), 165-183.
- 추현화 (2008). 국제결혼 이주 여성 배우자의 가족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윤 (2007).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 부모참여에 대한 맞벌이 부모의 인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진 (2003). 취업모의 부모교육 참여실태와 요구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클라이브 크리스티 (2005). 20세기 동남아시아의 역사. 서울: 심산출판사.
- 통계청 (2005). 2005 인구주택 총 조사.
- _____ (2009). <http://www.nso.go.kr>.
- _____ (2010). 인구동태 통계연보.
- _____ (2011). 인구동태(혼인, 이혼)

- _____ (2011). 2011년 혼인통계.
- 팜 프옥 마잉 (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다중지능의 관계: 베트남과 한국의 비교.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숙현 (2000). 다문화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양육실제 연구조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순 (1994). 베트남의 가족제도와 베트남인의 사회적 행위. *외대논총*, 12, 387-401.
- _____ (2000). 메콩델타-역동적인 문화와 역사의 세계. *국가지역연구*, 4(2), 1-112.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19.
- 한건수, 설동훈 (2006). 결혼 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한경남 (2012). 다문화가정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73, 171-190.
- 한경선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성심 (1983). 부모훈련 프로그램 모델에 관한 실험연구: 저소득층 모자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현이 (2011). 미취학자녀를 둔 일반가정 아버지와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비교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형석 (2011).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이 예비초등교원의 다문화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 (2009). 2009년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 _____ (2008). 2008년 외국인 현황조사.
- 홍기혜 (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달아기, 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위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 과학회지, 15(5), 729-741.
- _____ (2007). 국제결혼 부부의 가치관 및 의사소통유형과 갈등과의 관계. 한국 생활과학회지, 16(4), 733-744.
- 홍은경 (2003). 유치원 초임교사를 위한 멘토링 과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종명 (2012).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결혼이민자 모국어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6(3), 279-302.
- 황범주 (2008).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분석.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성희 (2012).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실태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pple, M. W. (1996). *Cultural politics and education*. Buckingham, UK: Open University Press.
- Belsky, J. & Isabella, R. A. (1985).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to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hange following the birth of baby: A retrospective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 342-349.
- Belsky, J. & Vondra, J. (1989). Lessons from child abuse: The determinates of parenting. In D. Cicchetti & V. Carlaon (Eds.),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pp. 150-20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gdan, R. & Biklen , S. K. (2010). 교육의 질적 연구방법론. (조정수 옮김).

서울: 경문사. (원저 2007년 출판).

- Buell, C. (2004). Models of mentoring in communication. *Communication Education, 5*(1), 56-73.
- Bui Thi Thu Hien (2012).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선택과 임파워링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aplan, G. (1974). *Support system and community mental health*.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 Chen, Y. (2008). The Significance of Cross-Border Marriage in a Low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 639-682.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rippen, C. & Brew, L. (2007). Intercultural parenting and the transcultural family: A literature review.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 and Families, 15*(2), 107-115.
- Dembo, M. H., Sweitzen, M., & Lawritzen. P. (1985). An evaluation of group parent education: Behavioral, P. E. T. and Adlerian program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5*, 155-200.
- Dix, T. H., & Branca, S. H. (2003). Parenting as goal-regulation process. In L. Kuczynski (Ed.), *Handbook of dynamic in parent-child relations: Parenting as a goal-regulation process* (pp. 145-187). Thousand Oaks, CA: Sage.
- Field, T., Woodson, R., Greenberg, R., & Cohen, D. (1982). Discrimination and imitation of facial expressions by neonates. *Sciences, 21*, 179-181.
- Ho, M. K (1990). *Intermarried couples in therapy*. Springfield, IL:

Chrales Thomas.

- Hoang, T. H. A., (2010). 베트남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입국 전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amner, T. J., & Turner, P. H. (1985).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Huberman, A. & Miles, M. (1994).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Methods. In N. Denzin and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428-444). London: Sage.
- Kim, D. (2008). *Status of Foreign Wife and Fertility: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Taiwanese Data 285-319 in Cross-Border Marriage: Process and Dynamics*, Seou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Aging Research, Hanyang University.
- Kim, H. R., Hwang, N. M., Chang, I. S., & Kang, B. J. (2008). *The reproductive health and policy subject in the international foreign wive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Y. H. (2010). Grounded theory approach toward marriage adjustment in Korean men with international marriage.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16(3), 265-287.
- Merriam, B. S. (1994). 질적사례연구법. (허미화 역). 서울: 양서원. (원서는 1988 출판).
- Mchale, J. Rao, N. & Krasnow, A. (2000). Constructing family climates: Chinese mothers' reports of their co-parenting behaviour preschoolers'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1), 111-118.
- Mullen, C. A. (2005). *Mentorship Primer*. New York,: Peter Lang.
- Nelson. K. E. (1977). Facilitate children's acquisition of syntax.

Developmental psychology, 13, 101-107.

- Powell, D. R. (1986). Research in review: *Parent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 Young Children, 41*(3), 147-172.
- Powell, D. R. & Diamond, K. E. (1955). Approaches to parent-teacher in U. S. early childhood programs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4), 379-402.
- Powell, D. R.(1989). *Families and Early Childhood Program*. WA;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Rogers, C. (1959). The characteristics of helping relationship.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37*, 6-16.
- Rogers. C. R.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s developed in the client centered framework*. In S. Koch (Ed.), *Psychology: A study of science : Formulation of the person and the social context (Vol. 3)*. New York, NY: Mcgraw-Hill.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3), 301-331.
- Scott, N. H. (1999). Supporting new teacher: A report on the 1998~99 beginning teacher induction program in New Brunswick.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37-447).
- Seidman, I. E. (1998).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tea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 (2nd ed). New York: Teacher College Press.
- Thanh, H. M. (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Walke, D. (1985). Writing and Reflection. In D. Boud, Keogan, & D. Walker (Eds.), *Reflection: Turning Experience into learning* (pp. 52-68). New York: Kogan & Page.

Waston, J. S. & Ramey, C. T. (1972). Reaction to response contingent stimulation in early infancy. *Merrill-Parmer Quarterly*, 18, 219-227.

ABSTRACT

Difficulties of Korean Fathers Raising Young Children in Vietnamese Multicultural Family and their Changes from Small Group Parent Education

Bang, Hye-Kyung
Dep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ifficulty of Vietnamese female marriage immigrant family fathers who takes care of the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the role of parent mentors in the course of small-group parent mentoring programs supporting fathers and the transition aspects of fathers.

First, what are the difficulties of the Vietnamese female marriage immigrant family fathers experiencing from the rearing the infants and young children?

Second, what are the roles of the parent educators shown from the small-group parent mentoring programs?

Third, how is the transition aspect of Vietnamese female marriage

immigrant family fathers in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small-group parent mentoring programs?

This study used culture description research methodology in understanding the difficulties of Vietnamese female marriage immigrant family fathers' home, and the change process of the fathers who joined small-group parent mentoring programs. From April 30 to September 16, 2012 the researcher applied small-group parent mentoring programs to 7 Vietnamese female marriage immigrant family fathers living in Gyeong-gi province who have the infants and young children. The small-group parent mentoring programs were given at a psychology counsel center located at a church in P city. The mentoring programs included the discussion and demonstration process to help them understand their culture and child-rearing methods. During the research period there were total 20 times of parent mentor programs for which one session took 90 to 120 minutes.

Interviews for data collection were given four times. Fifteen times first interviews, person to person, were given from April 30 to May 5, 2012 to 10 fathers hoping to take part in small-group parent mentoring programs. Second personal interviews were given from May 6 to August 19, 2012. Total 56 personal interviews were given to 7 among 10 who participated in parent mentoring programs. Third interviews were three group interviews for mothers given from August 26 to September 2, 2012. Fourth group interviews were given twice from September 9 to 16 of 2012 to research participant parents. Moreover, 4 research participant families joined the family camp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from August 1 to 4, 2012. The researcher also joined the camp and applied participant observation.

The collected data during research period including 20 parent mentor program data, 76 in-depth interviews, observed data, on the spot note, quick write-ups, journals and the like were categorized and then analyzed.

Major results shown from the research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research questionnaire:

First, Vietnamese female marriage immigrant family fathers rearing the infants and young children were facing the following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child-rearing fathers replacing wives lacking mothers' role took mostly the place of mother-oriented jobs. So they were experiencing inertia or lack of confidence from the negative identity. Fathers were confronting difficulties as their wives' continuous financial support for maiden home family and their inability towards responding primary needs of their children. Within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family there were inefficient communication, cultural differences and differences between child-rearing knowledge. The financial difficulty caused from child-rearing was one major factor giving difficulty to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family. Fathers working at unstable jobs felt heavy burden from ever increasing education expenditure.

Second, under the course of constituting the contents of small-group parent mentoring programs and applying parent mentoring, parent educators made parent mentoring contents which included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family fathers' understanding Vietnamese culture and the subjects for child-rearing. As parent educators provided the place for

fathers expressing their isolated and repressed sentiment and let Vietnamese female marriage immigrant family members feel comfortable fathers could participate the parent mentoring programs with comfort. During classes parent mentors took the role of information givers to fathers for the understanding Vietnamese culture and the knowledge about rearing the infants and young children. Parent educators did the role of the communicator by way of sharing emotional consensus through exchanging feelings with fathers. By parent educators' providing the opportunity to practice and discuss what fathers learned fathers were encouraged to improve child-rearing attitude. By parent mentors' providing fathers with the opportunity of reflective thinking and supported repeatedly the inefficient parts, parent mentors supported fathers to have confidence in paternal role.

Third, before participating small-group parent mentoring, fathers didn't have confidence and struggled in the process of child-rearing in paternal role from the negation and anger of their own life. By joining small-group parent mentoring programs they participated actively in child-rearing and had confidence in paternal role in due process. Fathers who have changed during parent mentoring programs let mothers know the child-rearing methods and helped wives actively with the Korean language acquisition. Change like this led to less struggle between husbands and wives concerning the child-rearing. By participating small-group parent mentoring program, Vietnamese female marriage immigrant family fathers became to know how to cut child-rearing expenses and how to use the information about the support service suitable for their family.